

생명 지혜, 평화 향연의 길

故 김용복 목사

1938.11. ~ 2022.04.

“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시36:9)

생명 지혜, 평화 향연의 길

故 김용복 목사

1938.11. ~ 2022.04.

생명 지혜, 평화 향연의 길  
故 김용복 목사 추모위원회

국경선평화학교, 동아시아평화센터후쿠오카, 산돌교회, 산돌노동문화원, 서서평연구회, 새문안교회대학부동문회, 아시아신학자협의회, 아시아자료센터,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 영등포산업선교회, 오월민주여성회, 일하는 예수회, 제주사랑선교회, 지리산평화교육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기독교목회지원네트워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한국민중신학회, 한국에큐메니컬학회, 한국에큐메니컬연구원, 한국회년재단, 한일반핵평화연대, 한일장신대학교 총동문회, 한-팔올리브나무평화네트워크한국위원회, 핵없는세상을위한그리스도인연대, 희년상생사회적경제네트워크, 희년빛탕감상담소

# 生命 智慧, 平和 饗宴의 길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다.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는 주체적 실체이다.'는 말이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더불어 살림살이, 삶, 즉 살고 살리면서 산다. 이 더불어 삶은 생명 망을 이루어 살기에 가능하다. 이 생명 망은 생명주체들의 삶의 <상생 망>임으로 생명주체들이 서로서로 엮어서 형성한다. 우리는 이것을 <생명공동체> 또는 <생명의 정원>이라고 흔히 부른다. 이 생명망은 생명주체가 잉태될 때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된다.

바벨론 제국의 횡포는 천지창조와 에덴 생명동산의 배경이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가 결코 멸하지 않는 생명안전과 생명지속의 약속(계약) 수립의 영적인 설화이다. 예언자 에스겔은 바빌론의 해골 골짜기에서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을 체득하는 평화의 비전을 증거하고 있다. 예언자 이사야는 앗시리아와 이집트제국의 횡포를 극복하고 평화의 생명동산의 비전을 설파한다.

예언자 예레미야도 바빌론의 횡포에 의하여 상처 당한 생명체들의 치유를 꿈꾼다. 로마제국의 횡포에 학살당하던 초대 기독교 공동체도 민족들의 평화와 생명의 향연을 꿈꾸었다. 예수운동은 이 로마제국의 횡포에 저항하는 부활의 생명운동이었으며 제국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과 모든 생명체가 함께 이루는 진정한 평화운동의 태극이었다. 이것이 오늘 기독교 예언적 공동체가 경전을 읽는 문명 해석의 길일 것이다.

로마제국의 횡포에 저항하는 아씨의 성 프란시스의 생명평화운동을 비롯하여 서구 기독교 역사를 재조명하는 기독교 생명평화운동의 비전을 재발굴하는 창조적 노력이 요청된다. 서구 식민지 권력의 횡포와 전 지구를 지배하고 탈취하는 서구 권력체제에 저항하는 민족자결, 자주, 평화, 상생운동의 비전과 실천을 도모한 기독교 신앙 공동의 역사 변혁적 증언은 이 시대에 창조적으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기독교 신앙공동체는 민족 독립운동과 3.1운동을 계기로 삼천리 금수강산을 평화와 상생의 동산으로 재현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역사 변혁의 개혁을 꿈꾸었고, 민족사 안에 깊이 흐르는 종교적, 문화적 유산을 창조적으로 융합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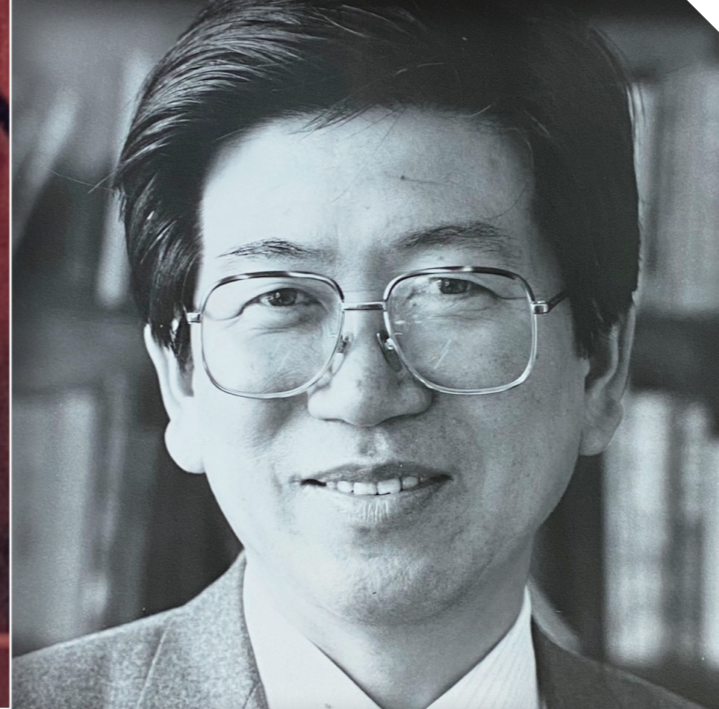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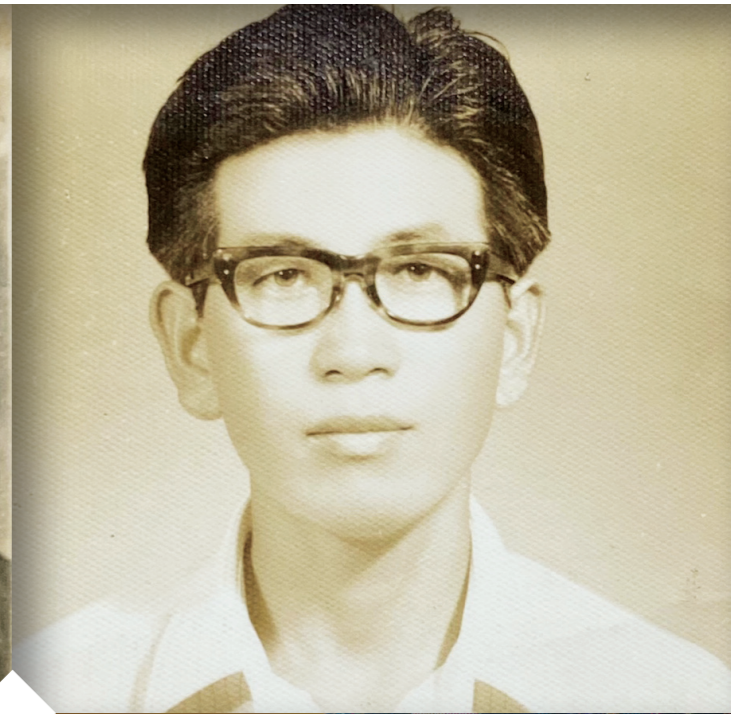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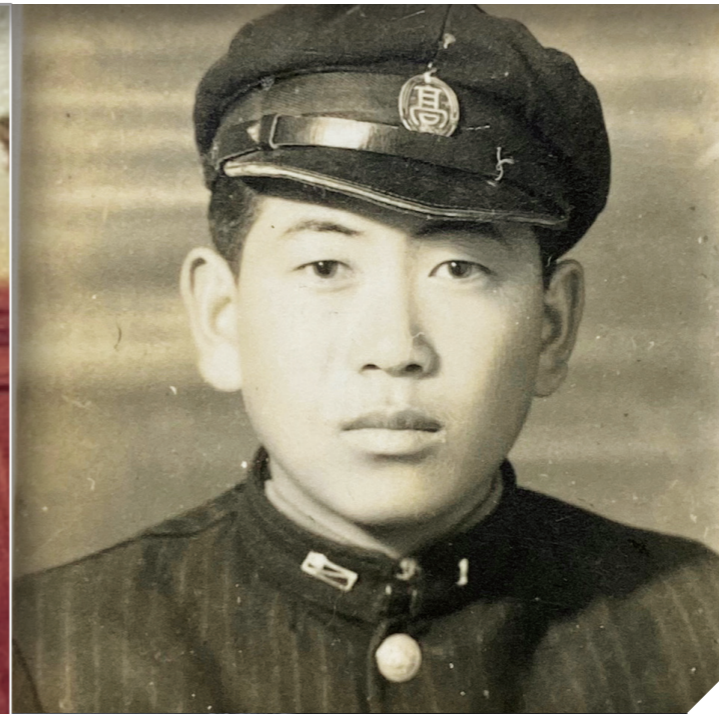
오늘 이 시대의 예언자적 신앙공동체는 한반도의 태평과 상생을 기조로 형성하고 생명의 향연과 풍류를 향유하는 민족통일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의 지평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조상이 꿈꾸던 이화상생, 경세제민, 태평성대의 시운을 선계(仙界)로 실현하는 사명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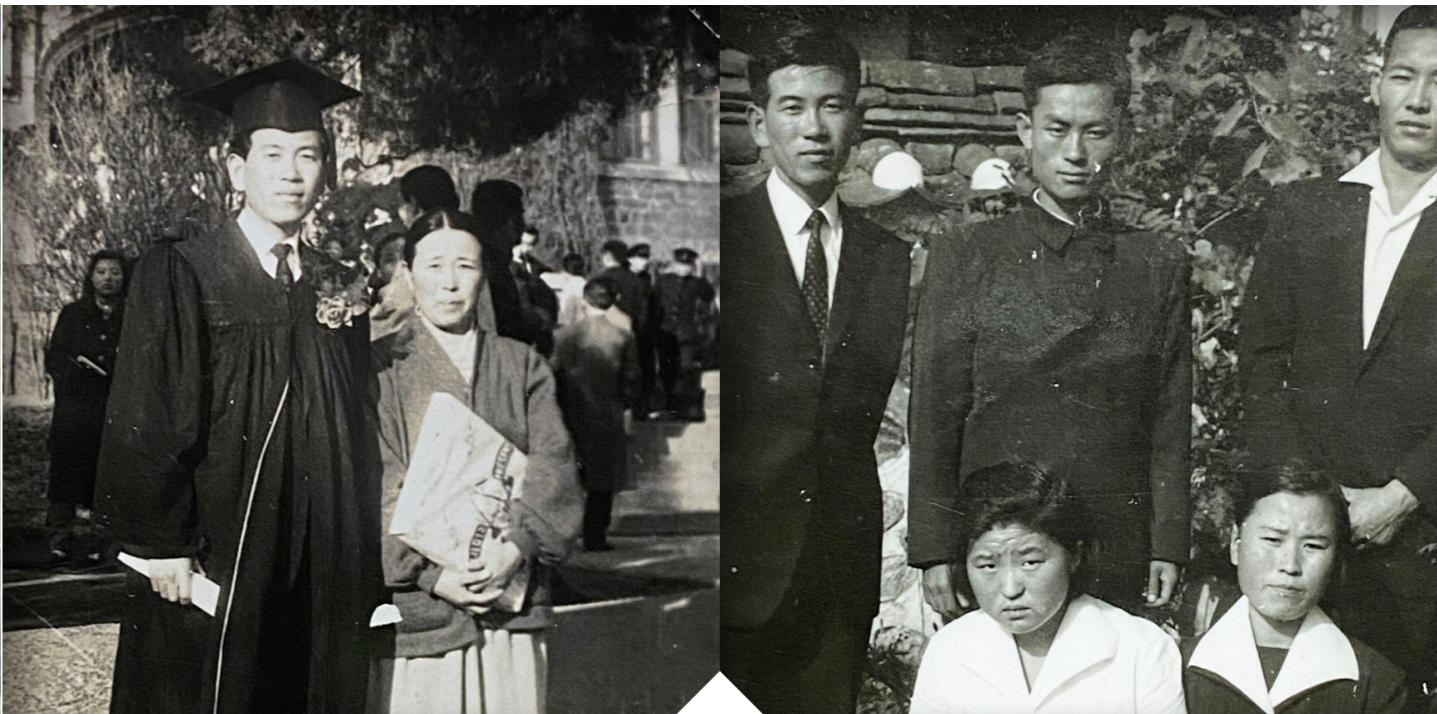
김 용 복

2021. 1. 1.

생명학서지生命智慧書誌 신년사



생명 지혜, 평화 향연의 길  
故 김용복 목사



생명 지혜, 평화 향연의 길  
故 김용복 목사



생명 지혜, 평화 향연의 길  
故 김용복 목사



생명 지혜, 평화 향연의 길  
故 김용복 목사



생명 지혜, 평화 향연의 길  
故 김용복 목사 이력



# 생명 지혜, 평화 향연의 길

## 故 김용복 목사 1938.11. ~ 2022.04.

<b>출 생</b>	1938. 11. 1	전북 김제군 성덕면 남포리
<b>학 력</b>	1957 ~ 1960	연세대학교 철학과 문학사(B.A.)
	1963 ~ 1966	미국 프린스턴신학대학원 교역학석사(M.Div.)
	1966 ~ 1969	미국 프린스턴신학대학원 신학전공 철학박사(Ph.D.)
<b>경 력</b>	1967 ~ 1972	미국 프린스턴신학대학원 Teaching Fellow
	1970 ~ 1972	미연합 장로교선교본부(Commission on Ecumenical Mission and Relations)와 Board of National Missions 국제선교상임고문
	1973 ~ 1974	일본 동경신학대학 Research Fellow
	1974 ~ 1977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세계교회협의회(WCC) 상임연구원 (다국적기업에 관한 연구)
	1974 ~ 1977	토쿄 소피아대학(上智大學) 국제관계연구소 Senior Visiting Scholar
	1976	학위논문 "Historical Transformation, People's Movement and Christian Koinonia", 박사학위(Ph.D) 받음
	1976	세계기독교학생연맹총회(스리랑카) 한국 대표
	1977	미국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 초청교수
	1977 ~ 1978	스위스 Ecumenical Institute 초청교수
	1979 ~ 1984	한국 기독교사회문화연구원 연구담당 부원장
	1980 ~ 1984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Mook지 편집인
	1985 ~ 1988	장로회신학대학원 제3세계 교회지도자훈련원 부원장
	1985 ~ 1988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 Adjunct Professor
	1988 ~ 1989	미국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 초청교수
	1990 ~ 1999	기독교아시아연구원 원장
	1991 ~ 1999	미국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 한국목회학박사원 원장
	1992 ~ 1999	한일장신대학교 총장(1992.3.1.~1999.12.6)
	1995 ~ 1999	동남아시아대학원(SEAGST) 한국지역 원장
	1997 ~ 2000	아시아신학자협회(CATS) 공동회장
	1999 ~ 2000	한국민중신학회 회장
	2000 ~ 2010	한국생명학연구원 원장
	2004 ~ 2005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 회장
	2004~2010	Mada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xtual Theology in East Asia 초대 편집위원장
	2007 ~ 2018	화천 평화의 댐 세계평화의 종 공원 조성 위원장
	2010 ~ 2022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 이사장
	2012 ~ 2013	2012협동조합기본법 발효 기념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협동조합교육과 거버넌스' 국제심포지엄 조직위원회 조직위원

2015 ~ 2022	Peace for Life 의장(필리핀 마닐라에 본부)
2015 ~ 2022	<시민이 만드는 헌법> 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2013 ~ 2022	한국YMCA생명평화센터 고문
2016 ~ 2022	죽재서남동목사기념사업회 이사장, 평화통일을 위한 기독교인연대(평통) 상임고문, 기독교청년의료인회 고문, 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장, 회년과상생 사회적네트워크 고문, 글로컬카이로스아시아태평양팔레스타인연대 초대 회장, '생명탈핵실크로드, 12000KM' 100인 위원회 공동대표등

### 교회 봉사

1970 ~ 1972	미국 연합장로교 선교본부 국제선교 상임고문
1974 ~ 1977	아시아교회협의회(CCA), 세계교회협의회(WCC) 상임연구원
1976 ~ 1981	아시아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 위원
1978 ~ 199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 통일문제전문위원, 교사위원, 중앙위원
1979 ~ 1981	서울 새문안교회, 용산교회 대학부 청년부 지도목사
1983	세계교회협의회 6차 총회(캐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표
1984 ~ 1990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회 UNIT II 전문위원
1985 ~ 1990	세계교회협의회 개발위원회(CCPD) 부의장
1985 ~ 1992	서울 산돌교회 담임목사
1986 ~ 1990	세계교회협의회 JPIC준비위원회 위원
1987 ~ 1991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고백문제로서의 경제 기초위원
1988	세계개혁교회연맹총회(WARC) 한국준비위원회 사무국장
1990	세계교회협의회 JPIC 서울대회 한국 대표
1991	세계교회협의회 7차 총회(캔버라) 전문위원
1994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연합사업대책위원
1997 ~ 1998	세계개혁교회연맹 신학부위원장
199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1세기 교단발전 전문위원

### 저 서

#### 단행본

People toiling under Pharaoh: report of the action~ research process on economic justice in Asia, Urban Rural Mission Christian Conference of Asia(1976)

『한국기독교와 제3세계』, 풀빛(1979)

『한국 민중과 기독교』, 형성사(1980)

『한국민중(韓國民衆)의 사회전기(社會傳記): 민족의 현실과 기독교운동』, 한길사(1977, 1980)

Minjung Theology: people as the subjects of history, Commission on Theological Concerns, Christian Conference of Asia(1981)

Asia forum on justice and development, CCA~ WCC/CCPD(1984)

『韓國社會變動研究』, 1,2,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1985)

Annotated bibliography on Minjung Theology, (1989)

Messiah and Minjung: Christ's solidarity with the people for new life,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Urban Rural Mission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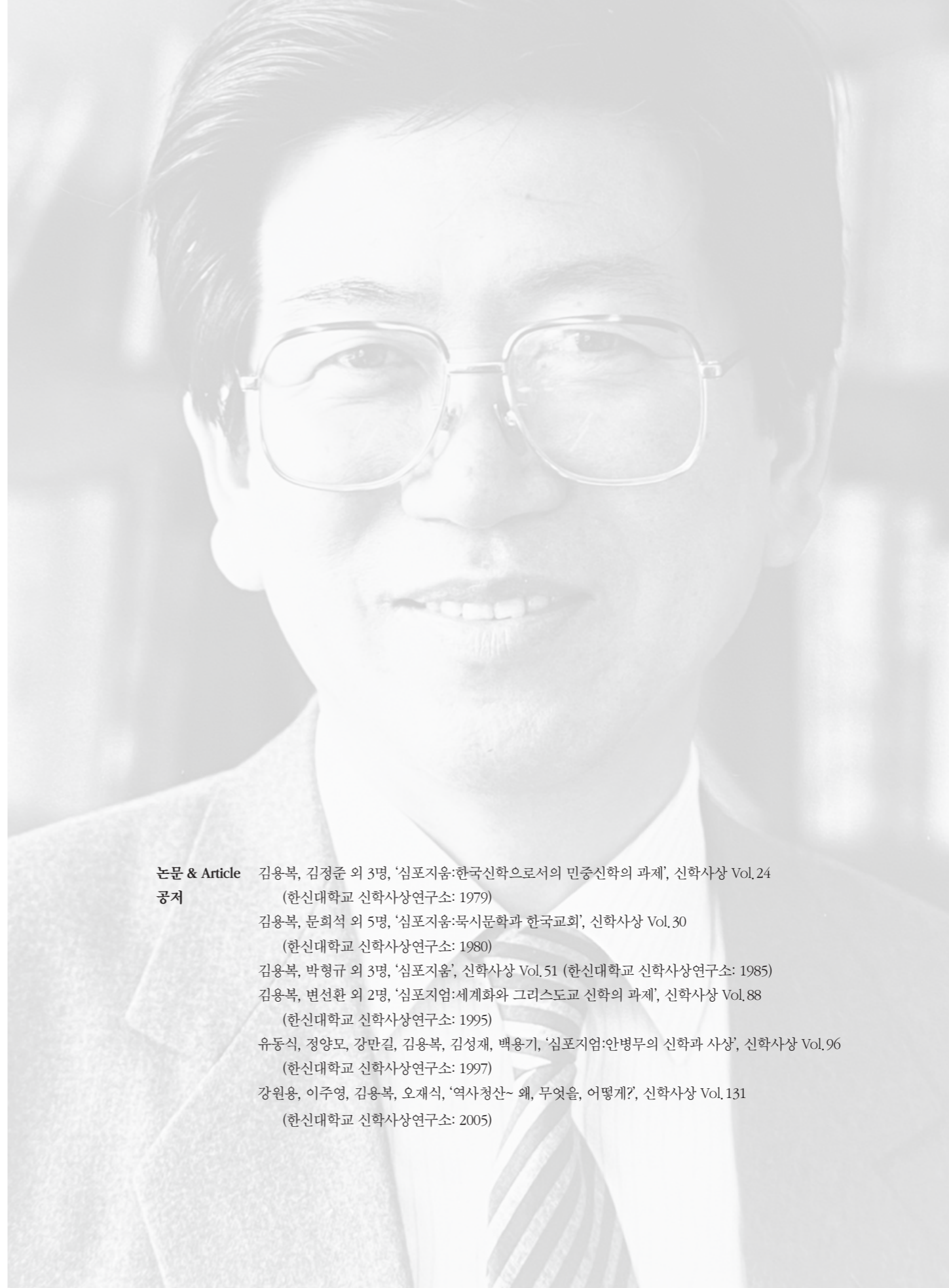
『지구화시대 민중의 사회전기~ 하나님의 정치경제와 디아코니아 선교』, 한국신학연구소(1998)  
 Diakonia and NGO of the Third World in a Neo~ liberal Age, Hanil University Press(2009)  
 Minjung Hermeneutics of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따뜻한 평화(2021)

**단행본(공저)**

김용복 외 3인 편, 『한국 그리스도교의 신앙증언』(세계개척교회연맹, 1989).  
 Kim Yong-Bock et al. ed, Testimonies of Faith in Korea (WARC, 1989).  
 Opoku, Kofi Asare; Kim, Yong~ Bock; Wire, Antoinette Clark, Healing for God's World:  
 remedies from three continents, New York: Friendship Press(1991)  
 Bergmann, Sigurd; Kim, Yong~ Bock, Religion, Ecology & Gender: East~ West Perspectives,  
 Berlin: LIT, c2009(2009)  
 Kim Yong-Bock, "Messias und Minjung," Juergen Moltmann (Hrsg.), Minjung Theologie des Vol-  
 kes Gottes in Suedkorea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4), 215-229.  
 Kim Yong-Bock, "Position Paper: Towards World Mission in the 21st Century," Hanil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ed.), World Mission and the Role of Korean Churches (Materials  
 on International Consultation, Nov. 8-10, 1995, The Korean Church Centennial Memorial  
 Building, Seoul), 36-41.  
 Kim Yong-Bock, "Sharing the Gospel among the Minjung in the 21st Century," Philip L. Wickeri  
 (ed.), The People of God Among All God's People (Hongkong: CCA/CWM, 2000), 113-124.

**논문 & Article**

'Historical transformation people's movement and messianic koinonia : a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Christian and Tonghak religious communities to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in Korea', Thesis(Ph. D),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1976)  
 '사회윤리를 지향하여:공범서의 [개신윤리와 사회윤리]~ 기독교 사회윤리의 방향',  
 신학사상 Vol.22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1978)  
 '민중의 사회전기와 신학', 신학사상 Vol.24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1979)  
 '80년대의 한국신학의 과제와 70년대의 한국신학의 결산(발제I)', 신학사상 Vol.28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1980)  
 '아프리카의 신학', 신학사상 Vol.34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1981)  
 '3.1운동과 한국 그리스도교의 고백신앙', 신학사상 Vol.51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1985)  
 '민중신학과 아시아신학', 신학사상 Vol.56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1987)  
 '[特輯: 民衆教會와 民衆神學]民衆教會論 試論', 신학사상 Vol.63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1988)  
 Editorial Committee (Kim Yong-Bock et al.), Testimonies of Faith in Korea,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1989).  
 '민중과 연대하는교회. 새로운 교회론에 관한 한 연구', 신학사상 Vol.68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1990)  
 '한국 기독교 경제사상사의 전개', 신학사상 Vol.73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1991)  
 'Mission and Christ's Solidarity with the People',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 Vol.80 No.318  
 (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1991)  
 '경제문제에 대한 세계 교회의 논의와 그 전개~ 신앙 고백의 과제로서의 경제:역사적 고찰',  
 신학사상 Vol.76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1992)  
 '21세기와 민중신학~ 새 세기에 민중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학사상 Vol.109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00)



**논문 & Article  
공저**

김용복, 김정준 외 3명, '심포지움:한국신학으로서의 민중신학의 과제', 신학사상 Vol.24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1979)  
 김용복, 문희석 외 5명, '심포지움:목시문학과 한국교회', 신학사상 Vol.30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1980)  
 김용복, 박형규 외 3명, '심포지움', 신학사상 Vol.51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1985)  
 김용복, 변선환 외 2명, '심포지움:세계화와 그리스도교 신학의 과제', 신학사상 Vol.88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1995)  
 유동식, 정양모, 강만길, 김용복, 김성재, 백용기, '심포지움:안병무의 신학과 사상', 신학사상 Vol.96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1997)  
 강원용, 이주영, 김용복, 오재식, '역사청산~ 왜, 무엇을, 어떻게?', 신학사상 Vol.131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05)

# 생명 지혜, 평화 향연의 길

## 故 김용복 목사



### 01 故 김용복 목사 추모예식

1. 추모예식 순서 26
2. 설교문: 목민(牧民)을 위한 생명 땅 짜기 28
  -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 02 故 김용복 목사를 추모하는 생명축제

1. 생명축제 순서 34
2. 추모시: “하느님은 우주에 충만한 생명이시어라...” 36
  - 서덕석 (시인, 열린교회 목사)
3. 추모사
  - 김용복 교수님께 드리는 추도의 글 38  
Henry von Bose (전 독일서남부지역 디아코니아 대표)
  - 김용복 박사님을 추모하며 42  
박종화 (평통연대 이사장, 목사)
  - A Tribute to Kim Yong-Bock, 1938-2022 43  
Philip L. Wickeri PhD (전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
4. 기억과 비전 나눔 I. 김용복 목사의 삶 과 신학 그리고 꿈
  - 김용복 박사의 민중신학, 그 삶의 자취: 한국민중신학회 제4대 회장 김용복 박사님을 추모하며 46  
김희현 (한국민중신학회 회장·향린교회 담임목사)
  - 20~21세기의 위대한 예언자·신학자, 고(故) 김용복 박사님을 추모합니다. 48  
임희모 (서서평연구회 회장·한일장신대 명예교수)
  - 김용복 박사와 시민사회운동 51  
신대균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사무총장)

### 03 故 김용복 목사의 평화향연

<국내>

-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과 김용복 목사 54  
이무성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 이사·광주대 해직교수)
- 산돌교회·산돌노동문화원과 김용복 목사 58  
박춘노 (산돌교회 목사)
- 제2의 산업선교 뗏목을 마련해준 김용복 교수님: 몇 가지 면모와 마지막 메시지 63  
손은정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목사)
- 카이로스(kairos)로 살아오신, ‘울곧지만 늘 변화하셨던 단아한 선비’, 김용복 선생님 68  
김은규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 회장)
- 돌봄운동과 김용복 박사: 고 김용복 박사님을 추모하며 70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학장, 회년과 상생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 반핵평화운동과 김용복 박사: 김용복 박사님 서거에 든 생각 73  
이승무 (한일반핵평화연대 대표, 순환경제연구소 소장)
- 목사님, 회년빛탕감상당소와 회년경제연구소를 열었습니다. : 고 김용복 목사님을 추모하며 76  
김철호 (회년빛탕감상당소장·목사)
- 김용복 박사를 추모함: 40여년간의 우정을 회고하며 79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우리시대의 예언자 김용복 박사님을 그리워하며.... 82  
남부원 (아시아태평양YMCA연맹 사무총장)
- 박사님의 제자여서 행복했습니다. 김용복 박사를 그리워하며 84  
홍주형 (한일장신대 제자, 부안 장신교회 목사)
- 김용복 박사님, 영원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86  
박성원 (경안대학원대학교 총장·목사)
- 꿈꾸는 영원한 소년, 故 김용복 목사 88  
배현주 (WCC 중앙위원)
- 민중생명신학자 김용복 박사를 추모하며 90  
권진관 (성공회대 신학과 은퇴교수·죽재서남동목사기념사업회 이사장)
-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의 선물, 고 김용복 박사 92  
금주섭 (세계선교협의회 CWM 총무)
- 학자와 실천가로 멋있게 사신 고(故) 김용복 박사님을 기억하며 94  
황남덕 (동아시아평화센터·후쿠오카 센터장, 세이난학원대학신학부 교수)
- 박사님, 사랑합니다. 95  
김승환 (원주 생명교회 목사)
- 고 김용복 박사님 장례식장에서 97  
홍인식 (<에큐메니안> 대표)

<국제>

- 세계교회협의회(WCC) 애도의 메시지 98
- 세계개혁교회커뮤니온(WCRC) 애도의 메시지 100
- Rev. Dr. Kim Yong-Bock - A Tribute 102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the Philippines (NCCP)
- A global Ecumenical giant has slept. 104  
Agnes Abuom (WCC /CC Moderator)
- Memories with Dr. Kim Yong-Bock 105  
Philip Mathew (India, WCC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 위원장)
- In Memory of Dr. Kim Yong-Bock, A Great Supporter of Palestine 106  
Nidal Abu Zuluf (Director, The Joint Advocacy Initiative, Palestine)
- Dr. Kim Yong-Bock - The radical prophet, teacher, and mentor 108  
Ranjan Solomon (A Palestine justice activist and a human rights activist, (India)
- 김용복 박사님의 타계를 애도하며 111  
사와 마사유키 (동아시아평화센터 후쿠오카 이사, 목사)
- 김용복 박사님을 회상하며 112  
기무라 코이치 (한일반핵평화연대 공동대표·목사)
- My Steadfast Mentor and Friend 114  
John Y. Jones (다그 함마숄드 재단 사무총장)
- In Memory of Reverend Kim Yong-Bock 115  
Franca Guglielmetti (President of CADIAI Cooperative)
- Remembering a teacher, mentor, friend - Rev. Dr. Kim Yong-Bock 117  
Hope Antone and Chan Beng Seng (Asia and Pacific Alliance of YMCAs)

04 故 김용복 목사의 생명지혜

- 생명운동 :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모색 (김용복, 2004) 120
- 生命學方法論 序說: 生命學을 추구하며 (김용복, 미발표 원고) 132
- 생명 살림살이의 지혜 : 생명경제학 (김용복, 미발표 원고) 138
- 새문명이 지향하는 생명평화운동 (김용복, 2021) 146
- 새로운 지구제국의 출현과 상생페다고지, 평화행동 (김용복, 2019) 149
- 김용복 박사의 신학 (권진관, 성공회대 신학과 은퇴교수, 2022) 162
- 고 김용복 선생이 꿈꾼 세상 (강원돈, 길마루글방지기, 2022) 165



생명 지혜, 평화 향연의 길  
**故 김용복 목사**  
**추모 예식**

인도 : **이근복** 한국기독교목회자네트워크 원장, 목사  
 피아노 : **정은경** 희망의소리 이사장, 피아니스트

**전주**

**예배의 부름** ..... **인도자**

**찬송** ..... **오소서** ..... **다함께**

오 소 서 오 소 서 평 화 의 주 님  
 우 리 가 한 몸 이 루 게 하 소 서 아 멘

2절 오소서 오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3절 오소서 오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4절 오소서 오소서 통일의 주님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기도** .....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성경봉독** ..... **장철순**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대학부 간사

“도독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요 10:10)

**설교** ..... <목민(牧民)을 위한 생명 망 짜기> .....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찬송** ..... **어느 민족 누구거나** ..... **다함께**

어 느 민 족 누 구 게 나  
 참 진 심 진 참 과 리 거 것 짜 울 때 에 어 어 편 에 설 건 가 도 라 리  
 주 가 주 신 새 목 표 가 우 리 앞 에 보 이 니 새 시 대 는 새 새 의 새 무 길 에 우 리 감 감 한 자 군 세 계 나 하 빛 과 어 둠 사 이 에 서 신 택 하 며 살 리 라 님 이 들 아 오 는 는 그 날 까 지 지 리 라 아 멘

**축도(강복선언)** ..... **신경하** 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후주**

# 목민(牧民)을 위한 생명 망 짜기

**이 홍 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목사

“도독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요 10:10)”

우리는 오늘 김용복 선생님의 죽음이 남긴 텅 빈 자리로 다시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부재가 남긴 빈 자리를 공허한 상실감으로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빈 자리를 선생님을 추모하는 마음과 선생님과 만남의 기억과 새로운 마음의 일치와 연대를 위한 화해의 정으로 충만하게 채울 것입니다. “텅 빈 충만”은 에큐메니컬 영성의 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선생님을 추모하며 모인 이 자리는, 70, 80 년대 한국사회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양심에 아로새긴 복음의 진리가 이끄는 거룩한 저항의 영성이, 기도와 공동의 증언과 정의로운 행동으로 이어지던 구원사건의 현장입니다. 김철공화국의 그림자가 다시 짙게 드리우고 평화가 깨어진 오늘, 이 역사적 시공에서 구름 떼와 같은 증인들과 함께, 선생님께서 들려주셨던 존재론적 증언의 메아리가 그리움이 되어 가슴을 메웁니다.

선생님께서 유신 군사독재권력이 드리운 ‘하나님 없는’ 시대의 어두움을 뚫고 비취오는 하늘의 빛을 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나님 없는’ 겨울공화국의 동토 속에서 짙게 띄우는 씨알을 상상하시며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주변부에서 고통당하는 한반도의 인민대중의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고 하늘이 열리는 개벽의 꿈을 꾸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본 사람은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시대의 숨통

을 조이는 죽음의 권세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감히 하늘의 얼굴을 외면 할 수 없었고, 하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순명의 길을 걸으며 약함의 자리에서 민중의 생명 안에 움트는 온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순교적 순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걸으신 순명의 길은 민중의 한이 커져서 서린 전북 김제 성덕면 남포리의 황톳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훗날 선생님께서 동양 지성사를 공부하시며 그 황톳길 위에 떠오르는 다층적인 민중사의 지평융합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황톳길 위에서 동아시아 민중사의 거대한 본류에 합류되어 흐르는 자신의 민중적 존재를 자각하셨습니다. 그 길은 경제제민의 실학의 길이었고, 시천주, 인내천의 영성과 반식민지·반봉건 혁명이 통전된 동학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그 길은 일제강점기의 어둠을 뚫고 자주와 독립, 민주와 평화의 햇불을 들어 한반도와 아시아의 길을 밝혔던 3.1운동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해방공간기에 하나된 민족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걸었던 자주와 통일의 길이었고, 분단이 가져온 독재의 억압 속에서 4.19 혁명이 결단한 민주주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5.18 광주민중항쟁의 길로, 6.10 시민항쟁의 길로,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의 길로 이어져 깊은 강을 이루며, 생명의 바다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난 85년 생애의 황톳길 위에서 민중의 사회문화적 전기의 지층을 새롭게 만나셨고, 그 지층을 뚫고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마시며, 시대의 시운을 분별하고 예언자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죽음의 우상이 제국의 정치 군사권력과 자본을 통해 한반도와 아시아를 침탈하는 고난의 시대를 수동적 풍자와 해학으로, 적극적 저항과 혁명으로 극복해 나가는 민중의 생명력을 현실 속에서 존재적으로 경험하시며, 민중의 사회문화적 전기의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셨습니다. 선생님께 민중은 역사의 주체요 토대였고, 민중은 생명살림의 역사를 이어가는 마르지 않는 깊은 강이었으며,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며 치유되고 화해된 생명의 바다로 역사의 흐름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궁극적으로 용서와 화해를 향해 굽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역사 속에서, 수난 당하는 민중이 이끄는 용서와 화해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민중의 집단적 지혜와 생명의 품 안에서 펼쳐지는 온 생명의 잔치를 선형적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어린 시절 부친을 여의신 선생님께서 어머니의 수난 당하는 모성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구체성을 발견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수난 당하는 모성 속에서, 고난당하는 민중의 삶의 자리에 성육하신 진리이신 생명을 깨닫고, 그 생명을 모시고 키우며, 그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생명의 담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자리잡은 민중 현실에 깊이 뿌리내리시고, 민중의 현실과 민중의 집단적 지혜에서 해석학적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과정에서 목민(牧民)

의 음성을 들으시고, 목회자의 길, 신학자의 길, 교육자의 길, 에큐메니칼 운동가의 길을 걸으시며 하나님의 목민선교에 참여하셨습니다.

“목민”은 갈릴리 예수의 선교 내용이었습니니다. 갈릴리 예수는 목민선교운동가였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심으로, 목민선교의 비전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민선교의 목표는 생명의 구원과 해방을 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해방의 기쁨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민선교의 영성은 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같이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 현존하시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지금 찰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선언하시면서, 절망 중에 애통하는 작은 이들을 부활의 산 소망으로 부동켜 안으시고, 살림의 새 희망을 불어 넣으시는 상호의존성과 자기 비움의 성육신적 영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민선교의 전략은 생명 망 짜기였습니다. 생명 죽임의 현실을 생명살림의 잔치자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생명의 근원과 매듭을 민중 현실 속에서 견고히 하고, 그 매듭 사이를 정의와 평화의 씨줄과 날줄로 이어 망을 짜면서, 치유되고 화해된 세상을 만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망 짜기를 통해 민중은 자신 속에 있는 생명을 재발견하고, 그 생명을 모시고 키우며, 억압받는 또 다른 생명을 향해 구원과 해방의 연대의 손을 내밀고 생명의 망을 지탱하는 매듭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예수의 목민선교의 유일한 정의는 진리였습니다. 로마와 유대의 권력자들이 십자가의 처형으로 예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부정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예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참된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역사의 종말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역사의 정점이며, 새로운 생명 역사의 시작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진실은 결코 사라지거나 가리울 수 없다는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죽임의 세력이 행하는 그 어떤 불의와 거짓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진리의 해방과 부활은 반드시 역사 속에 구현된다는 희망을 굳게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생명의 망을 짜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진리에 대한 이 믿음과 희망으로 군사독재의 폭압을 견디시고 이겨내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명 죽임의 자리에서 온 생명의 잔치자리를 꿈꾸며 대동세계를 열어가기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지역상호간 생명의 망을 짜는 일에 생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기억의 유산과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생명의 망을 짜가고 계십니다.

갈릴리 예수를 본받아 사신 선생님께서는 역사적이고 실존적인 절망의 길은 그림자를 숙명처럼 일상에 드리운 가난한 사람들의 땅, 죽임의 세력들이 쳐 놓은 소외의 뒷에 걸려 애통하는 사람들의 땅, 그러나 바로 그 절망과 가난이, 그 소외와 고통이, 하늘을 향해 내려오라 부르고 진리를 향해 솟아나라고 외치는 땅, 예수의 생명살림의 역사가 뜻을 펼치고 끝내 죽임의 권세를 굴복시킨 땅, 그 갈릴리 성문 밖을 향해 생명의 망을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선생님의 성문 밖은 부정과 부패, 부당과 부조리, 몰인정과 비상식이 권력의 이름으로 진실의 목을 조르며 꽃다운 생명들을 절망의 바다로 몰아넣고 있는 땅, 국가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공권력의 야만이 백성의 소리를 억누르며 하늘의 소리 듣기를 거부하는 땅, 억압받는 생명의 탄식이 하늘을 찢어 이미 하늘이 내려올 채비를 마친 땅,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선생님의 마음의 자리, 목민의 자리였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시대의 성문 밖을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구성적 계기로 인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난과 궁핍, 고난과 간힘과 난동,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 오래 참음과 자비함,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고, 십자가와 부활신앙의 산 증인으로 사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하여 신앙의 양심을 사고팔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애써 외면하면서 교조화된 이데올로기를 진리로 둔갑시켜 이웃을 정죄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인연을 따라 파당을 지어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문화가 자리잡은 세속화된 한국교회와 사회 안에서,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는 일 외에는 그 어떤 유혹 앞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 광야의 선지자로 사시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당대에 공동의 증언에 참여했던 많은 인사들이 기억의 유산에 기대어 지위와 명예를 탐하는 때에도, 선생님께서서는 치유되고 화해된 기억의 유산을 마음에 간직하신 채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사시며, 지금 여기에서 내일을 위한 목민의 생명 망 짜기에 헌신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목민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 위력에 의한 지배, 권위주의적 오만이 머리 위를 지나는 새처럼 오래 자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모인 우리가 목민의 사명을 위해 선생님께서 걸어가신, 생명을 위한 정의와 평화의 길

위에 함께 서서, 흔들림 없는 대오를 유지하며, 글로벌 한 차원에서 지역 상호간 생명의 망을 짜는 일에 헌신합니다. 고난 당하는 역사의 현장에서 지극히 작은 이들 가운데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노래 끈, 죽임을 살림으로 바꾸는 춤 끈이 됩시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만물의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는 세상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치유와 화해의 생명의 망을 짜는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갑시다. 이념과 빈부, 성별과 세대와 인종 등 다름이 차별이 되어 극렬하게 갈등하는 시대에, 수난 당하는 그리스도의 당파적 선택과 사랑에 힘입어, 궁극적으로 용서와 화해를 향해 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역사에 목민을 위한 생명의 망을 짜며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변함없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를 견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온전히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생명 지혜, 평화 향연의 길  
**故 김용복 목사를 추모하는**  
**생명축제**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시36:9)

사회 : **손은정**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목사

여는 노래 ..... **다함께(인도 : 전기호 목사)**

경과 및 취지 ..... **사회자**

추모 영상

추모시 ..... “하느님은 우주에 충만한 생명이시어라...” ..... **서덕석** 시인, 열린교회 목사

추모사 ..... **Henry von Bose** 전 독일서남부지역 디아코니아 대표

**박종화** 평통연대 이사장, 목사

**Philip L. Wickeri PhD** 전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

추모 공연 ..... <이 세상 사는 동안> ..... **김옥연** 희년빛탕감상담소, 목사

**기억과 비전 나눔 I. 김용복 목사의 삶과 신학 그리고 꿈**

1. 김용복 박사의 민중신학 ..... **김희현** 한국민중신학회장, 목사
2. 김용복 박사와 한일장신대학교 ..... **임희모** 한일장신대 명예교수
3. 김용복 박사와 시민사회운동 ..... **신대균** 한국한국기독교민중화운동 사무총장

함께하는 추모와 기억의 노래 .....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 **다함께**

**기억과 비전 나눔 II. 참가자 대화마당**

감사 인사 및 문집 전달 ..... **임광빈** 희년재단 상임이사, 목사

유가족 인사 ..... **김매련 선생** Marion Kim

추모 공연 .....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 **전기호** 한일반핵평화연대 사무국장, 목사

함께하는 노래 ..... **다함께**

마무리 인사

—  
“하느님은  
우주에 충만한 생명이시어라...”  
—

서덕석 시인, 열린교회 목사

민중속에서 피어난 꽃 동학의 고장  
김제 별판 붉은 황톳길을 걷던  
철학도 김용복에게  
영원한 화두를 던져 준 이는  
플라톤도 아니고 칸트도 아니고  
목자나 공자, 최시형도 그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 예수였다.

온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준  
순전 무구한 사랑앞에서 몸을 떨던 그 때,  
철학적 사유와 언어로는 가 닿을 수 없었던  
역사 저편까지 비추어 주는  
복음의 혜안이 열렸다.

학문의 진수를 몸에 익힐 수 있었던  
프린스턴에서의 10년 공부로  
‘민중의 사회전기’속에서  
하느님의 구원을 발견하면서부터  
제국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신학을 버리고  
제3세계의 가난한 민중들의 투쟁과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정치 경제라는  
‘김용복의 민중신학’이 시작되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개혁하시며  
성도들의 깊은 교제와  
더불어 함께 세상을 섬기는 믿음으로 산다는  
교회론에 힘입어  
그가 섬긴 교회, 신학교, 연구소, 공동체들은  
땅속깊이 뿌리내려 스스로  
생명수를 빨아올리는 나무가 되어 갔다.

변화하는 전 지구적 위기 가운데서  
예언자로서 증언하기를 멈추지 않았기에  
하느님은 그에게 끝없는 영감을 부어 주시어  
고통당하는 민중의 삶을 치유하며  
분열과 증오와 배제와 차별이 일상화 된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류에게  
유일한 길인 하느님의 평화를 전하였다.

짧고도 긴 신학적 여정의 끝에 깨달았나니  
가없이 크고 깊으셔서  
교회의 좁은 울타리 속에  
가둘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를 예배하는 거룩한 몸짓과  
만물이 연대하여  
우주적 영성공동체를 이루면  
이는 곧 하느님의 구원이니  
하느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생명이시어라.

김용복은 이 가운데서  
어린아이같이 행복하였네라.

---

## 김용복 교수님께 드리는 추도의 글

---

헨리 폰 보세 전 독일서남부지역 디아코니아 대표

김용복 목사는 독일 교회와 신학자들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에큐메니칼 활동뿐만 아니라 독일에서의 학술 활동으로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신학 및 종교 연구를 위한 중형사전 RGG, 과거와 현재 제4판에서 그는 2002년 민중 신학에 대한 상세한 기고를 할 수 있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의 사회 전기 개념이 설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민중의 메시아적 전통을 정치적 메시아주의와 대조하는 대규모의 역사적-이론적 초안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Volker Küster, RGG 4판, vol. 5, column 1255)

김용복은 이 중요한 사전을 직접 집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2000년에 그는 ‘정의’라는 키워드에 대한 8개의 광범위한 기고 중 하나를 선교학적으로 썼습니다. 그에게 정의는 “강자와 민중의 관계적 요소”입니다. (김용복, RGG 4판, vol. 3, column 715) 그는 정의의 모델이 “언제나 고유한 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와 관련하여 권력자와 부자,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의 희생자, 약자, 가난한 자, 소외되거나 배제된 관계가 당파적 견해 형성에 결정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관점에서 정의는 가난한 사람, 약자, 권력의 희생자를 우선시하는 관계입니다.”(a.a.O.)

김용복은 확신을 갖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정의는 당사자 간의 관계, 즉 사람 사이, 집단과 공동체 사이, 인간 공동체와 자연의 질서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의 증재자이십니다. 즉, 그는 의(義)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의 약속은 희생자들에 대한 정의의 희망입니다. 성경에서 정의는 지도 원칙, 질서 또는 시스템으로서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이며 생태적 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정의의 살아 있는 실재입니다. 민중신학, 해방신학, 기타 상황신학은 정의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강조하고 그것을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우주적 관계에서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뷔르템베르크 개신교회 디아코니아 복지단체에서는 고통받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엄성을 잃을 수 없다는 김용복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 음과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 형상대로 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더 이상 강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약하신 하나님이요, 권세의 하나님이 아니요 무력한 하나님이시니라.”(Henning Luther, Leben als Fragment. Ways to Man 5.1991, p. 262-273, 270)

우리는 그의 우정과 현명한 조언에 대해 김용복에게 여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0년 동안 그분을 여러 번 만나 뵈어서 즐거웠고 많은 또한 배웠습니다. 저는 그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가르쳐 주신 여러가지 배려에 대해 특별히 감사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사회적 가치경영연구원에서 “상생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

# Abschiedsgruss für Prof. Yong-Bock KIM

---

**Prof. Henry von Bose DD**

Auch in den deutschen Kirchen und den theologischen Fakultäten ist Kim Yong-Bock kein Unbekannter. Er hat sich nicht nur durch sein ökumenisches Engagement, sondern auch durch seine wissenschaftliche Arbeit in Deutschland einen Namen gemacht. In der aktuellen 4. Auflage des Handwörterbuchs für Theologie und Religionswissenschaft RGG,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wird er 2002 in einem ausführlichen Artikel zur Minjung-Theologie gewürdigt: Nicht nur wird sein Konzept der Sozialbiographie erläutert. Es heißt auch: „Kim entfaltet einen großangelegten geschichtstheoretischen Entwurf, in dem er die messianischen Traditionen des Minjung dem politischen Messianismus gegenüberstellt.“ (Volker Küster, RGG 4. Aufl., Bd. 5, Sp. 1255)

Kim Yong-Bock ist für dieses bedeutende Lexikon auch selbst als Verfasser gebeten worden. Es spricht für sich, dass er im Jahr 2000 zum Stichwort ‚Gerechtigkeit‘ unter den 8 umfangreichen Beiträgen den missionswissenschaftlichen geschrieben hat. Gerechtigkeit ist für ihn „eine Beziehungsgröße im Hinblick auf die Mächtigen und das Volk.“ (Yong-Bock Kim, RGG 4. Aufl., Bd. 3, Sp. 715) Er zeigt, wie das Leitbild der 2 Gerechtigkeit „von dem je eigenen kulturellen Kontext“ bestimmt ist. Ich zitiere: „Es bewegt sich in einem Spannungsfeld zwischen abstrakter Rechtmäßigkeit auf der einen und Parteilichkeit im Blick auf die sozialen Beziehungen auf der anderen Seite. Bestimmend für die parteiliche Sicht von Gerechtigkeit ist die Beziehung zwischen den Mächtigen und Reichen einerseits und den Opfern von Macht andererseits, den Schwachen, Armen, Entfremdeten oder Ausgeschlossenen. Generell ist Gerechtigkeit in dieser Sicht eine Beziehung, die den Armen, Schwachen und Opfern der Macht Vorrang gibt.“ (a. a. O.)

Kim Yong-Bock war überzeugt und hat es überzeugend vermittelt: „Das biblische Verständnis

von Gerechtigkeit neigt dieser zweiten Sicht zu. Gerechtigkeit ist eine Beziehung zwischen Parteien: zwischen Menschen, zwischen Gruppen und Gemeinschaften, zwischen menschlicher Gemeinschaft und der Ordnung der Natur. Gott ist Mittler von Gerechtigkeit zugunsten der Opfer. Das heißt, dass er der alleinige Grund der Gerechtigkeit ist. Seine Verheissung ist Hoffnung auf Gerechtigkeit für die Opfer. Gerechtigkeit ist in der Bibel keine abstrakte Vorstellung als Leitidee, Ordnung oder System. Gott ist die lebendige Wirklichkeit der Gerechtigkeit, die unmittelbar in konkrete Beziehungen zwischen Menschen oder in ökologische Beziehungen eingreift. Die Minjung-Theologie, die Befreiungstheologie und andere kontextuelle Theologien haben nachdrücklich das biblische Gerechtigkeitsverständnis betont und sich bemüht, es in örtlichen, nationalen, globalen und kosmischen Beziehungen zu verwirklichen.“ (aaO)

Wir in der württembergischen Diakonie stimmten mit Kim Yong-Bock besonders darin überein, dass der leidende Mensch die Würde seiner Gottebenbildlichkeit nicht verlieren kann. Denn Gottebenbildlichkeit bedeutet: „Der Gott, als dessen Ebenbild der Mensch gedacht ist, ist mit Christus nicht mehr der Gott der Stärke, sondern der Schwäche, nicht mehr der Gott der Macht, sondern der Ohnmacht.“ (Henning Luther, Leben als Fragment, Wege zum Menschen 5, 1991, S. 262-273, 270)

Wir bleiben Kim Yong-Bock dankbar für seine Freundschaft und manchen klugen Rat. Ich für meine Person bin ihm 30 Jahre lang immer wieder besonders gern begegnet und habe viel von ihm gelernt. Ich schulde ihm besonders Dank für alles, was er mir von der koreanischen Geschichte und Kultur vermittelt hat. Zuletzt noch hat er mir im Social Value Management Institute Korea die Bedeutung der „SangSaeng Social Economy“ erklärt.

---

## 김용복 박사님을 추모하며

---

박종화 평통연대 이사장, 목사

추모하는 사람은 추모받으시는 분과 마음으로 대화하며 공감을 나눕니다. 비대면 속의 대면입니다. 격식을 벗어나 자유스러운 만남을 이어 갑니다. 특히 김용복 박사님은 항상 자유인으로 사셨습니다. 사고의 체계도, 언어 표현도, 일상적인 삶도 “자유”라는 세계를 존재의 공간으로 삼고 평생을 사셨다고 회고합니다. 동시에 김용복 박사님은 자유의 세계에서 항상 “진리”를 찾고 해석하고 누리려고 애쓰시며 살았다고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용복 박사님의 삶은 “자유롭게 하는 진리”(요 8:32)라는 말씀에 기반이 되어 있다는 확신입니다. 김 박사님을 추모하며 배우고 본받고 나누고 싶은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인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여정을 김 박사님은 민중의 “사회적 전기”라는 컨텍스트 분석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진리의 근본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어떻게 민중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되고 열매를 맺는지 밝히려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열매는 삶의 기쁨이고, 민중 개개인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지는 삶의 축복임을 강조합니다. 이 축복은 이름하여 “정의, 평화, 기쁨”(롬 14:17)임을 항상 강조합니다. 성과 속의 경계를 넘어, 종교와 이념과 인종의 벽을 넘어 인류가 공동으로 누릴 이 “살롬”의 세계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일에 헌신한 김 박사님의 노력을 배우고 본받고 나누고 싶은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연륜이 깊어 가면서 귀결되는 삶의 초점이 있습니다. 곧 “생명”입니다. 죽음 이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보장된 약속이기에 김 박사님도 이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 우편에서 직접 맛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직은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도 모두 귀중한 영생의 한 토막을 역사적 현실로 경험하며 맛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진리, 자유, 정의, 평화, 기쁨이 한데 모인 합성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역사적 생명의 만남을 함께 맛보며, 이 만남 속에 김 박사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도 이 땅의 생명을 포함한 “생명 신학”을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하시기 기대합니다.

---

## A Tribute to Kim Yong-Bock, 1938-2022

---

Philip L. Wickeri 전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 교수

I first met Kim Yong-Bock in 1970 when I was a second-year student at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Yong Bock was working on his Ph.D. dissertation under Dick Shaul<sup>1)</sup>, who was also my mentor, and who was the reason I went to Princeton in the first place. Dick thought we should get to know each other. That first meeting was transformative, and although we were together only for a half hour or so, Yong Bock was the first Asian theologian I had met, and he took my interest in China seriously. It was the beginning of a beautiful friendship.

A year later, in September 1971, we met again, this time in Tokyo. Yong Bock spent a lot of time with Janice and me. He gave us some books and other materials to pass on to David Suh in Seoul. I remember that one of the titles was Letters from T.K. This was our first time in Asia and we were en route to Taiwan, where for the next two years we would be teaching English, doing Christian student work and studying Chinese at Tainan Theological Seminary.

Over the next five decades, there would be many more encounters, and the agenda was always about Christianity and social change. In between, we also found time to get together over a meal, and in the process, we became very close friends. As M. M. Thomas, a senior theologian from India, once said, “the ecumenical movement is a journey among friends.” Whenever Yong Bock and I met, it seemed as if we had never been apart.

Yong Bock had a kind of creative genius and he served as a catalyst for change in the world.

---

1) Kim Yong-bock, “Historical transformation: people’s movement and messianic koinonia,” Ph.D. dissertati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76.

He coined or redefined many terms: messianic koinonia, zoesophia, oikozoe, to name just a few. Above all was his use of social biography as the foundation for the historical involvement of people in movements of social change. Koreans. Asians. And all who embraced a prophetic ecumenism, not accepting existing social, political and ecclesial arrangements as a given.

I often took my cue from Yong Bock, even though we moved in different directions, and often in different circles. He used to speak of the "Princeton Mafia," which included Fely Carino, K. C. Abraham and Preman Niles and others who were at Princeton Seminary during his time. They, we, maintained contact with one another through CCA and the WCC, not to mention the home grown "Korean Mafia" and the ecumenism of change they created.

We had many encounters and conversations over the years, in Asia, Africa, Europe and North America. I remember we were together at a meeting in Chicago to determine global mission priorities for the Presbyterian Church (U.S.A.). I arrived the night before and I went to see Yong Bock in his room. He was busily at work on his computer, and when I asked what he was doing, he said he was working on our final committee report. "But we have not even met yet," I said. "Yes," he replied, "and so we don't have much time." As we met over the next three days, he steered the committee in the direction that we were hoping for.

Once I stayed with Yong Bock in his apartment for two weeks at Hanil Seminary, when he was president. It was a relaxing time, and our conversations were more leisurely than they usually were. But they still had the same intensity of purpose as we talked late into the night.

Yong Bock's great idea for the Accra Assembly of the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was the Global Institute of Theology. A group of us first gathered in Geneva, including Volker Kuester, Odair Mateus Pederoso, Priscille Djomhoue, Yong Bock and myself. We drew up the program - Yong Bock was not very good on details, but on big ideas. I became Dean of GIT, and when we met the next year, we had close to 100 students, half from different parts of Africa, and half from other parts of the world. It was a great experience. Everyone will remember that assembly for the "Accra Declaration," which Yong Bock had a great deal to do with. But the GIT and the Accra mission statement were also significant milestones in which he played a leading role.

Christianity in China became an area of concern for Yong Bock, and he used to tell me that I

was his introduction to China. I did introduce him to Bishop Ting, and they had a great deal to share with one another in the few times they were together. Two visionary leaders from different generations, in different contexts, but both with an abiding concern for social change in Christianity.

A few years ago, Yong Bock contacted my daughter Elisabeth (a human rights lawyer) for legal advice on a project to sue the US government for its bombing of Hiroshima and Nagasaki and Nagasaki in World War II. I don't think the project went anywhere, but this was yet another example of his approach to justice and social change.

The last time I saw him was here in Hong Kong. He was here with Marion, and Janice and I invited them for dinner. It was great to see Yong Bock and Marion together. They wanted a spicy Chinese meal and so we took him to one of our favorite Hunan restaurants. As always, we talked about new projects and who we could get to help us change the world. But for a change, we also talked about how we had been together over the years, and the important role played by Margaret Flory in the lives of each one of us.

Yong Bock was always looking beyond the horizon. "The future creates the present out of the past," one of our professors used to say, and Yong Bock was always looking to create that which does not yet exist. He was my close friend for more than 50 years and I miss him each day. But he is now dancing in the Communion of Saints, alongside others who have gone before, where somehow, he continues to push us forward.

There is a Chinese saying, "The trees want calm, but the wind will not subside." (樹欲靜而風不止) Yong Bock was like the inexorable wind, the spirit who kept things moving. Now, rest in peace, dear friend, in the knowledge that your spirit still moves among us. [end]

2022.05.18

**Hong Kong**

# 김용복 박사의 민중신학, 그 삶의 자취

## 한국민중신학회 제4대 회장 김용복 박사님을 추모하며

김희현 한국민중신학회 회장, 향린교회 담임목사

사람은 떠나야 그 빈 자리가 큰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한국 민중신학계는 선생님의 소천으로 마지막 어버이를 잃었습니다. 역사와 교회를 품고 거대한 생명운동을 밀고 가시던 분이 마지막 거처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남은 것이 슬픔만은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꿈이 등불처럼 남아 있습니다.

### 선생님은 자기 시대에 충실한 분이셨습니다.

1979년은 민중신학이 사상적으로 정립된 시기였습니다. 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으로 촉발된 한국신학의 전환기를 10년쯤 지나며 민중신학은 체계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서남동의 ‘두 이야기의 합류’와 안병무의 ‘예수와 민중’이 발표된 해, 마흔두 살의 선생님은 기사연 부원장을 맡으시며 ‘민중의 사회전기와 신학’을 통해 성서적 종말론을 ‘신학의 역사적 틀’로 풀어내셨습니다. 민중이 ‘메시아적 정치’를 펼치며 역사 속에 부활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이 주목할 것은 민중의 ‘사회전기’(社會傳記)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의 삶에 주목하여 치열하게 사상운동을 펼친 선생님은 당신의 생각을 한 단어로 집약해 기독교인의 젊은 영혼에 새겨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늘 새로운 곳으로 생각과 삶을 넓혀가셨습니다.

복음의 ‘보편성’을 추구하신 선생님은 민중신학의 사회전기를 ‘생명학’으로 넓힌 ‘생명전기’(Zoegrphy)를 제안하시고, 생명의 수렴통합론(convergence)을 철학적으로 가다듬어가면서, 동시에 제국의 지배질서에 맞선 정치신학의 사명을 강조하셨습니다. 21세기 지구화 시대를 민중의 시각에서 재해석하면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로 재편된 제국의 질서에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정치경제’에 관한 구상을 내놓으시며, 디아코니아 선교에 기초한 희년 신앙을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 펼쳐갈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민중신학이 학문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선생님은 의미 있는 실패를 통해 예수운동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로운 길을 걸으시면서도 연대의 꿈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시인이, “상처받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요, 고독하지 않으면 혁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나요? 선생님은 지구제국의 패권에 저항하는 예수운동의 길이 결코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고독은 기독교 신앙이 자기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현실에서 비롯되었고, 해방을 위해 복원되어야 할 예수 생명운동에 관한 열망 때문에 이어졌습니다.

이제 자기 사명을 다 마치시고 작은 불꽃이 되어 우주적 생명 세계의 신비 속으로 고요히 들어가신 선생님은 떠나시면서 굳어진 우리 마음의 지층을 흔들어놓습니다. 그분이 떠난 자리에 다시 ‘에큐메니컬’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단어에 담긴 연대와 협력, 그것을 지탱하는 긍지와 헌신이 여기 남은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좁은 영역에서 자급·자립하려는 우리 세계의 닫힌 자유가 이제는 선생님의 뜻을 잇기 위한 또 다른 수렴통합의 운동으로 넓혀져야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주적 ‘생명전기’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 20~21세기의 위대한 예언자·신학자, 고(故) 김용복 박사님을 추모합니다.

임희모 서서핑연구회 회장, 한일장신대학교 임희모 명예교수(선교학)

## 만남과 청빙

저는 1986년 여름부터 김용복 박사님께서 섬긴 산돌교회를 다녔고, 장신대 제3세계지도자훈련원 부원장님으로 봉사하실 때 만났고, 1989년 세계개혁교회연맹(WARC) 한국총회 준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하실 때 한국교회 신앙사와 민중신학 소개 자료집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돕다가 유학차 1989년 4월 독일로 떠났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받는 기간인 1994년 가을 김 박사님이 독일에 오셨습니다. 지난 20년의 숙원사업이었던 한일신학교의 '정규 4년제 대학 인가'를 받았다고 자랑스레 말씀하시던 김 박사님께서 뜻밖에 "우리 학교에 와서 같이 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아, 그때 그 조그만 건물 2채의 학교가 대학으로 인가를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1년 전 1993년 가을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었고 이 때 전주 중화산동의 그 작은 학교를 방문했는데 김 박사님은 제3세계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김 박사님의 순수성과 열정을 존경하면서 저는 1995년 3월 김 총장님과 한일신학 이사회의 청빙을 받고, 캠퍼스를 상관면 신리로 이전한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널따란 부지에 큰 건물도 6~7동이 들어서 있어서 깜작 놀랐습니다. 김 총장님께서 작은 건물 2채의 신학교를 2~3년 사이에 4년제 정규대학 승격과 종합대학교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1995년 한일신학대학원과 아·태국제신학대학원(APGS)을 차례로 설립하시고 목회자와 평신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섬김과 나눔 교육을 헌신적으로 행했는데 저도 여기에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 이일학교(한일장신대 전신)의 초대교장 서서핑을 역사 속으로 불러낸 김용복 초대총장

저는 지금 연구네트워크인 서서핑(셰핑, Elisabeth J. Shepping, 재한기간 1912~ 1934) 연구회 회장으로 봉사 중입니다. 서서핑 선교사는<sup>2)</sup> 한일장신대의 전신인 이일여자성경학교를 1922년에 설립하고 초대교장으로 불우한 한국인과 가난한 여성들을 섬기고, 이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과 열정과 모든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1934년에 별세한 서서핑을 오늘의 역사 속으로 불러내고 살리신 분이 김용복 전총장이십니다. 김 박사님은 한일신학교의 학장으로 1992년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한일신학교와 동문들의 사회전기적 역사를 이순례 선생을 통하여 『한일신학대학 70년사』로 정리하시면서 학교의 영적, 정신적 초석을 놓은 서서핑 초대교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 총장님은 서서핑의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강조하여 한일장신대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뿌 리내리도록 노력했습니다.

## 서서핑 상<sup>3)</sup> 특별상 수상예정자 김용복 전총장의 소천

한일장신대학교 총장직에서 1999년에 물러난 김 박사님을 안타깝게 여긴 서서핑연구회 실행위원회는 한일장신대학교 개교 100주년이 되는 금년(2022)에 '제4회 서서핑 상'(Shepping Award)의 수상자로 김용복 전총장님을 모시기로 결정하고, 특별히 이 상을 '서서핑 상 특별상'(Special Shepping Award)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서서핑연구회는 김 전총장님께서 서서핑 특별상을 수상하시고 그 자리에서 한일장신대 동문과 학생들에게 강연을 행함으로써, 더 이상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한일장신대의 섬김과 나눔의 전통을 새롭게 세우신 영원한 초대총장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각인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김 전총장님은 신병으로 인하여 상 수상과 강연을 하지 못하고 지난 4월 7일 별세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크나큰 애통이지만 하나님은 평안의 쉼을 고인에게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오는 9월에 있을 한일장신대 개교 100주년 선교대회에서 서서핑 특별상 시상식이 열리는데 김매련 사모님께서 대신 상패와 상금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 동시대의 성서적 기독교 예언자 김용복 박사와 남겨진 유산

저는 2021년 12월 서울 수유리에서 김 전총장님을 오랜만에 뵈었습니다. 선례에 따라 서서핑 상 수

2) 임희모, 『서서핑, 예수를 살다』(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5:초판, 2017:개정증보); 동저자, 『서서핑 선교사의 통전적 영혼구원 선교: 20세기 선교와 21세기 한국교회의 선교신학』(서울: 동연, 2020).

3) 서서핑 상은 명망가나 유명인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적 섬김을 본받아 순교자적 섬김의 삶을 산 서서핑 선교사의 섬김의 신앙을 이어받아 가난한



# 김용복 박사와 시민사회운동

신대균 한국기독교민중화운동 사무총장

김용복 박사의 주요 주제어 중의 하나는 '민'이다. 이 주제어는 몇 개의 주요한 주제어들인 변혁, 역사, 생명, 평화 등과 어울려 그의 사상적 구조를 이룬다. 그에게 있어 이러한 주제어의 공통 기초는 기독교이다.

그의 '민'론은 '민'이 역사의 주체라는 사상이다. 그의 '민' 주체론은 역사의 주체가 국가라는 관념과 대립한다. 그의 '민'론은 민중신학으로 나타났고, 시민사회운동론으로도 나타났다. 이 두 영역에서 '민' 주체론은 역사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민'이라는 논리에서 동일하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시민사회 모임에서 그는 아시아 시민 사회 현장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는 국가와 국가연합으로 구성된 세계질서에 대항하여 '민' 중심의 국제관계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그의 '민' 주도의 국제적 사회적 틀을 만들자는 제안은 역사의 주체가 '민'이라는 선언적 명제를 현실로 구체화 할 것을 제안한 담론이었다는 점에서 경탄할 만한 것이었다.

그는 다양한 시민사회운동에 관련하였고, 사상적인 지원을 하였다. 그는 경실련의 경제 정의 운동에 참여했고, 1990년대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될 때 지방자치운동을 추진했고, 생명 평화운동을 제시하고, 한국 YMCA 전국연맹의 생명평화센터의 고문으로도 오랫동안 봉사하였다. 환경 운동, 평화교육 운동, 사회적 경제 운동도 격려하였다. 그가 시민사회운동의 폭넓은 분야에 관련하였다는 것은 새삼 놀라운 일이다.

그의 '민' 주도의 역사창조운동의 비전의 원천은 성서의 '회년사상', '새 하늘과 새 땅'이었다.

그의 '민' 주도의 사상적 담론의 출발점은 3.1 운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박사학위 논문은 3.1 운동이었는데, 이 논문이 영문으로 발간된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한국어

상자에 대한 연구 발표를 해야 하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특별상 수상자이신 김 전총장님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하다가 “총장님을 예언자로 이해하고 서서평과 관련하여 논문을”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언자에 대하여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다음 날 김 총장님은 이메일을 통해 그렇게 하라고 확인하셨습니다.<sup>4)</sup> 이로 인하여 널리 알려진 민중신학자 외에 예언자라는 직함을 김 박사님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김 박사님은 현대의 참된 성서적 기독교 예언자이십니다. 구약시대 특히 주전 8세기 이후 예언자들은 시대적 고통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 이스라엘 사회와 백성은 물론 주변 강대국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평화(shalom)를 세우려 했습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억압적 로마 제국과 유대교 지배 상황에서 불의한 정치와 종교 세력에 대하여 예언자로서 회개를 촉구하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예언자 김용복 박사님은 오늘날 생명 죽임의 지구적 상황에서 자본과 권력과 탐욕과 물신을 섬기는 세상과 교회를 향하여 회개와 개혁을 외치고 예수 메시아의 십자가적 제자도를 따라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 충만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전이 받은 예언자 김용복 박사님은 자신도 가난과 억압과 소외와 차별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이를 선포하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한국과 개발도상국과 전 세계에 만연한 생명 죽임의 제도와 체제를 예수 메시아의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변혁하여 가난한 민중, 민족, 생명들이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생명 충만의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즐기는 세상을 염원하며 예언자적 학자로서 실천적 삶을 사셨습니다.

2000년 이후 전 지구적, 우주적 생명학 차원에서 예언자적 과제를 연구하시고 실천하시다가 김용복 박사님은 고인이 되어 우리보다 앞서 본향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남기신 예언자적 과업을 행하려는 다짐을 합니다.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고 김용복 목사님에게는 평안의 영면을 주시고, 가족에게는 위로와 소망으로 채우시고, 우리에게는 열정을 주셔서 우리가 참된 예언자적 삶을 살도록 이끄소서. 아멘.

4) 임희모, “선교사 서서핑(Elisabeth J. Shepping)과 예언자적 신학자 김용복 연구: 한일장신대학교의 예언자적 정체성,” 『00와 00』 xx집 (2022년 6월)(예정); 김용복·임희모 외 3인, 『서서핑과 김용복의 예언자적 정체성』(가칭) (전주: 학예사, 서서핑 연구논문 9집: 2022)(예정).

로도 번역되어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한다.

필자는 2019년에 3.1 운동 100주년 기념 국민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는데, 그는 이 일에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이 일을 성사시키기 까지 실천적으로도 많은 시간과 수고를 해 주셨다.

그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육당 최남선이 ‘기미독립선언에 영향을 준 사상이 무엇이었느냐 라는 질문에 기독교였다고 답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준 적이 있다. 필자는 1972년 처음 만나 뵈고 50년 동안 그의 담론으로부터 많은 통찰과 격려를 얻었던 일들을 새롭게 기억하게 된다.

김용복 박사님은 ‘민’이 창조하는 생명 평화의 새 역사를 꿈꾼 기독교 사상가였다.



#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과 김용복 목사

**이 무 성**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 이사, 광주대 해직교수

김용복 목사님께서 제 곁을 떠나신지 추모일인 오늘(5.27)로서 두 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분이 떠났다는 게 전혀 실감 되지 않습니다. 병원 입원 후에도 저에게 자주 연락을 주셨습니다. 항상 꿈을 꾸는 듯한 이상을 가슴에 품고 이를 바로 현장에 실행하신 분이어서 함께 일하면서 때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당혹감도 갖기도 하였습니다. 김 목사님은 가능한 일이라고 메시지를 낙천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김 목사님의 이상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사무 처리에 능한 분이 곁에서 보조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김 목사님 곁에 있으면서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심을 갖고 접근하고 순수한 분들은 사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접하여 하느님의 충직한 일꾼이 김 목사님에게 절실하였던 것입니다.

전혀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군소리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당신이 안고 가십니다. 고 허병섭 목사님과 너무 닮은꼴이어서 경남 함양에 소재한 제도 밖 녹색대학 운영위원장, 공동대표 등으로 10년 넘게 경험한 것을 김용복 목사님으로부터도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다니지 않는 길을 누군가가 먼저 나서야 길이 된다는 긍정으로 김용복 목사님은 항상 일에 임하셨습니다.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 활동을 곁에서 나뉠 열심히 지원하였던 것도 김 목사님의 사회변혁에 대한 열정 때문입니다.

아태생명학연구원은 생명학을 학문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이론과 실천을 병행으로 연구코자 컨소시엄 형태의 대안적 모형이었습니다.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 기존 제도권 대학에 받을 디딜 수 없는 한국사학의 이율배반적 모순을 연구원을 통해 극복하고 이를 모형으로 창출 법령 등 제도로서 정착하기 위한 유인이 당초 구상이었습니다. 아태생명학대학원대학교는 아시아경제윤리연구소(소장 강원돈)와 같이 생명학연구원의 큰 틀에서 다른 연구소들과 민주성이 보장된 동등한 구성단위로서 시너지

(Synergy) 상승효과를 얻기 위한 시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리산 자락 구례 토지면 신촌마을에 향토원이란 공동체를 주변 분들의 관심과 협조로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를 매도한 모 교회 장로로부터 등기 이전 없이 건축을 행하고, 준공되자 그 장로가 사적인 대출담보로 김 목사님의 신뢰를 배신으로 그 기대를 저버려 생명학연구원의 출범은 순탄치 않았습니니다.

사단법인으로서 아태생명학연구원도 <학교법인 목민학원> 인가 후 설립이 되어 그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녹색대학 운영위원장으로서 저는 대표이신 고 허병섭 목사님으로부터 제도 밖 녹색대학과 제도 내 아태생명학대학원대학교를 연계하도록 권유를 받고 목민학원에 집중하고 계시는 김용복 목사님과 의견 공유를 시작하였습니다. 녹색대학의 소액 다수 후원회 조직으로서 녹지사(녹색대학을 지원하는 사람들)와 같은 역할을 위해 연구원의 실체를 조속히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향토원의 주소지인 구례교육지원청에 사단법인 등록 작업을 실무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김용복 목사님의 사심 없는 그 품성을 사적인 자신들의 이해추구를 위해 악용한 무수한 군상들의 그릇된 행태들로 인해 김 목사님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현장 실행은 더디어졌습니다. 결국 향토원은 모 장로의 잘못된 행위로 그 장로의 친구에게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김 목사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주변 여러분들의 공동체로 형성된 향토원을 원상으로 회복코자 이해당사자를 직접 만나 그들을 설득하여 당초 법인 경매 가격으로 김 목사님께 되돌려 주는 것으로 협조를 어렵사리 얻어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김용복 목사님으로부터 감응을 받아 자신의 세속적 이익 상당 부분을 양보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일부 재매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김 목사님께서서는 제자인 성문밖교회 고성기 목사님을 구례로 귀농, 향토원에 생활하면서 사무 실무를 맡는 것으로 결정하고 실제 당초 생명학연구원 취지에 박차를 가하는 중 고 목사님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소천하였습니다. 몹시 시험당한 온갖 시련을 김 목사님도 실제로 겪으신 것입니다.

김 목사님은 자신을 고난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을 전혀 미워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송 등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 매듭을 풀려고 하는 저를 부끄럽게 당신은 오히려 의연하게 이를 받아 들였습니다. 김용복 목사님은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이례적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 해직되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항상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생전에 저에게 들려준 몇 가지 일화를 통하여 김 박사님의 교육철학을 엿볼수 있습니다. 총장 초기에 모 장로가 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거액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김 목사님께 건넸다고 합니다. 김 목사님은 그 금액을 학생들 장학금으로 사무처에 넘기었습니다. 이후 그 장로로부터 지인 교수 채용에 대한 청탁이 있었습니다. 금액을 건내 줄 당시엔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중

조건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김 목사님께서 그 금액을 공식 학교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것입니다.

김 목사님 총장 재임시 한일장신대엔 어려운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대학원 수업을 받은 학생들 대부분이 학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하였습니다. 학생들 등록금을 낮추는 것이 김 목사님의 당시 현안이었습니다. 정년보장 호봉제 교수로서 비교적 안정적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는 대학원 강의수행 교수들에게 추가 강의 수당을 절약하면 학생들 수업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호봉제 교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의 반발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박탈할 것으로 우려한 교수들 중심으로 김 목사님의 진정성에 반한 행동을 하고 김 목사님을 음해하고 드러내 놓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이를 몰이해한 학교법인 이사들에 의해 총장직 해촉은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평범한 학교 수준에 머물렀던 초기 한일장신대를 해외에서까지 입학할 정도로 내실 있게 꾸려나갔습니다. 온라인으로 정식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는 필리핀 모 대학의 한국분교로 동남아신학대학원을 한일장신대 부설로 연계하여 대학의 긍정적 확장에 기여도 하셨습니다. 김 목사님의 유학 중에 만들어졌던 제3세계 민중 신학자들과의 굳건한 네트워크에 의해 한일 장신대학교의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기독교아세안연구원, 기독교생활경제연구소 유병린 박사(유승희 국회의원 부친)께서 김용복 목사님의 학업적 동기 부여로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 신학박사 학위를 마무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한일장신대학교 해직 후 준비 중이었던 아시아태평양생명학대학원대학교 개교가 지연되어 동 대학 학교법인 목민학원의 존립 위기에 직면하여 온라인 학위대학을 목민학원으로 옮겨 운영하도록 저는 수차례 적극 권유를 하였습니다. 자신을 부당 해직한 대학이었지만 도리가 아니라며 김 목사님은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아태생명학대학원이 제도 내 대학의 대안모형으로서 개교로 이어졌다면 기존 한국 대학이 안고 있는 여러 모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으로 자리매김하였을 것입니다. 그 운영방식이 연구소 중심의 대학으로 교수들의 협동적 협업체제가 가능하여 기존 대학의 학과 교수들 간 갈등도 자동 해소될 수 있는 체제이었습니다. 자본이든 종교 권력이든 사학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수들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민주적 참여와 운영, 그리고 불특정 다수 소액 후원조직으로서 연구원 역할을 고려하여 설립자인 이사장에겐 명예는 부여하되 전횡적 인사권은 통제하고 재정조달은 연구원의 활동을 통해 확보하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목회자로서 자신을 속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사랑으로 감싸려는 김 목사님의 진정성이 현실에서 수용이 되지 않아 제도 내 대안대학으로서 아태생명학대학원대학교는 교육부에 의해 인

가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구례 향토원에 당초 근원을 두고 있는 연구원은 김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도 그 지속을 위해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펼치시고자 하신 많은 일들이 김 목사님의 소천으로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용복 목사님과 함께 활동하였던 저와 같은 후학들이 김 목사님께서 구상을 갖고 행하였던 일들에 대해 이젠 정리와 이어갈 사안들을 평가하여 김 목사님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현장 실천이 가능한 의미 있는 김 목사님의 유지는 그 불씨를 살려 목사님의 현장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최대한 살려가는 것이 그 분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저희들의 몫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산돌교회·산돌노동문화원과 김용복 목사

## 박 춘 노 산돌교회 목사

지난 4월말 주말이어서 모처럼 쉬고 있는 중에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였다. 받을까 말까 하다 받았는데 생소한 목소리였다. 저 000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벌써 30여 년 전에 산돌노동문화원에서 만나 함께 활동하던 친구였다. 이름을 듣고 당연히 옛 모습을 기억해냈다. 자초지종은 이러했다. 자신은 현재 여수근교 조그만 시골마을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한 친구가 자신의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왔고 서로 낯이 익어서 인연을 맞추어보니 산돌에서 만난 사이였다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직장청년 교양강좌에 참여하였고 마친 후 동아리 활동으로 산악회에서 상당기간동안 같이 활동했던 사이였다. 세월이 흘러 30여년이 훌쩍 지났으나 옛 모습을 서로 기억하여 뜻밖의 조우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도 저 멀리 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그 친구로부터 연락처를 알게 되어 전화를 하게 되었다는 사연이었다.

다음 이야기가 귀에 맴돈다. 자신에게 20대 젊은 시절,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 산돌에서의 만남이었고 그 때의 여러 가지 기억 중 '함께하고 나누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최근 늦었지만 사회복지 공부를 해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이다. 젊은 시절 산돌에서의 인연과 그 만남의 의미가 한 사람의 삶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산돌교회와 산돌노동문화원은 김용복 목사님과과의 깊은 인연이 있다. 이하에서 교회와 문화원을 설립하고 목사님과 함께 한 시간을 간략하게 돌아보려한다.

## 산돌교회의 창립

김용복 목사와 함께 설립한 교회로 보통의 교회와는 좀 다른 모습이였다. 그 내용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이 서울 구로공단지역으로 노동선교를 지향하였고, 젊은 청년들이 근엄한 목회자의 이미지보다는 실천적 사상가인 김용복 목사와 함께 교회설립을 하였으며, 교회설립 형태도 일반적인 재원형 성과는 달리 선교신용기금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재원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독교 신앙의 역사변혁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선교를 위해 교회 재정의 반 이상을 선교에 사용하는 선교가 강조된 공동체였다.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신앙공동체였다. 김용복 목사는 이 선교신용기금이라는 재정 형성 방법에 대해 큰 감동과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방법이 재정을 함께 공유하고 운영하는 이 방식이 가진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셨다.

산돌교회는 구로지역에서의 노동선교를 담당하기 위하여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매우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교회구성을 지향하였다. 물론 전통적인 교회의 조직과 비슷하지만 산돌교회의 조직운영은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성을 강조하는 명실상부한 평신도 공동체를 모색하였다는 점이다. 김 목사님은 항상 교우들에게 모두가 동역자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셨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창립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100여 명이 넘는 교우들이 함께하게 되었고 교회조직을 형성하였다. 교회운영을 위해 총무위원회,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등을 만들어 교우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회, 대학생회의 자치활동과 미래세대를 위한 유·초등부를 갖춘 교회학교를 운영하였다.

산돌교회의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은 김용복 목사와 함께 교우들이 공동으로 준비하여 1985년 가을에 채택한 '산돌교회 계약공동체 신앙선언'에 잘 나타나 있다. 전문을 공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산돌교회 계약공동체 신앙선언

1. 우리 산돌 신앙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한다. 이 계약관계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며 역사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증이며 희망의 근거이다.
1.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의 증언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새로 세우셨으며, 성령께서 항상 새롭게 하시는 계약공동체임을 고백한다.

1.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산돌 신앙공동체의 성원으로 하나님과 민족 앞에 다음과 같이 결단한다.

**다음**

1. 우리는 영적 훈련을 철저히 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 예배, 성례, 성서연구, 기도 등 영적인 생활에 깊이 참여하여 한국교회 갱신의 기반을 다진다.
  2.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깊게 경험하여 신앙적 삶을 풍요하게 한다.
  3.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고난과 희망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지역사회선교에 적극 참여하여 그들의 생활을 새롭게 복되게 한다.
  4.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에 있어서 계약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창조하여 사회변혁에 헌신한다.
  5. 우리는 민족의 염원인 정의, 자유, 통일을 위한 제단을 쌓고 민족화해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산 제물이 된다.
- \* 우리 산돌교회는 계약공동체로서의 약속과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구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약의 징표인 성찬예식으로써 결단한다.

뿐만 아니라 매주 예배순서에 나아감의 선언이 있는데, 그 내용은 ‘주여,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과 주의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며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앙공동체를 굳건히 형성하면서 노동선교를 모색하였다.

**산돌노동문화원의 창립과 활동**

산돌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1985년 가을부터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문화원 설립 준비를 시작하였고 1986년 2월 산돌문화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 그해 10월 제1기 직장청년교양강좌(교양대학)를 설치하면서 산돌문화원(산돌노동문화원으로 개칭)을 설립하였다(원장 김용복, 총무 신대균)

산돌노동문화원은 노동자들의 전인적 문화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문화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화원의 활동은 문화, 교육, 조직 작업에 중심을 두고 진행하였다. 노동문화원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크게 공개 대중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공개대중프로그램에는 비디오상영, 일꾼마당, 연극공연, 노래공연 등 각종 공연이 있었고, 토요일 강좌, 노동자성서대학, 월례시사강연 등의 강좌프로그램, 젊음의 노래마당, 노동절기념제, 노동문화제, 노동자캠프, 노동자백일장 등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교육프로그램인데 교양교육으로 직장청년교양강좌, 노동교육으로 노동조합강좌, 노동자정치강좌가 있으며, 문화교육으로 연극교실, 놀이지도자교실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공개 대중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에 함께한 노동자들의 자연스러운 조직이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새문화청년노동자회, 산돌산악회, 노동자극회 아침, 산돌노동자합창단, 우리사랑모임(봉사활동), 하랑이랑(신앙모임) 등이 있다.

산돌노동문화원의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연대활동과 지원활동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1989년 3월 '89년도 공동임투를 위한 서노협 구로지구 특별위원회 산하 상황실운영', 1989년5~7월 구로3공단 00전기 상황실운영, 1989년 구로공단 노동조합결성지원: S화공(2공단 모자제조), H전자(3공단), S전자(3공단전자완구업체) D정밀(1공단 전자완구), S(1공단전자), SK(3공단의류), E산업 봉제업 등이 있다. 기타 구로공단과 주변 회사의 노조 탄압이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노동운동단체인 서울노동운동단체연합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시민사회단체인 전국민족민주운동단체 연합과 연합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진료활동을 하였는데, 연세대의대기독학생회 회원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의료선교 차원에서 진료활동(치과진료포함)을 하였고(1987.5. - 1989.12), 또한 청년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한방진료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산돌노동문화원의 활동에 대해 김용복 목사는 ‘산돌노동문화원을 이끌어 온 사람들은 기독교신앙인들로서 신앙적 열정과 이상적인 사회변혁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여 노동자들과 친구가 되었는데, 최소한 이 과정은 철저한 자기희생이라는 기독교신앙의 경지를 체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러한 활동은 기독교신앙의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이고 증거’라 정리하신 바 있다.

산돌노동문화원의 주요활동자료는 서울시 금천구청이 설립한 ‘구로공단노동자 생활체험관’에 기록되어 현재 구로공단노동자 생활체험관 별도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렇게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교회와 노동자를 위한 문화원의 활동은 일찍이 정보기관의 감시의 대상이 되어 교회와 문화원 공간 임대 기간이 지나면 건물주가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아 1년 만에 이사를 계속하는 일이 벌어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보기관에서 건물주에게 압력을 행한 결과였다.

### 김용복 목사 가족과의 일화

김 목사님께서 산돌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들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면서 산돌교우들과 친교를 나누게 되었다. 가족 구성은 모친이신 이순례 권사님과 부인인 김매련 선생님, 자녀인 김제민, 김정민 등인데 부활절, 성탄절 등 주요 절기에는 가족들이 꼭 참석을 하셨다. 교우들은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을 직접 경험하며 만남을 계속하였다. 이순례 권사님은 항상 자애로우시고 교우들을 가족처럼 정겹게 대하시면서 감사함을 표시하시곤 했다. 교우들이 권사님께 미국 며느리 어떠냐고 짓궂게 물으면 너무도 훌륭한 며느리라 치켜세우시곤 하였다. 김매련 선생님은 김 목사님과 항상 동행하셨고 사모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기를 신신당부하셨다. 한 사람의 교우로서 대해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식사시간에도 준비를 솔선수범하셨다. 제민, 정민은 유년기에는 교회에 할머님과 부모님 손을 붙잡고 예배에 참석하였고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교우들을 삼촌이나 이모라 하면서 정겹게 지냈다.

한번은 김매련 선생님이 1개월 정도 교회에 나오시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 사유가 친정집에 다녀왔다는 이야기였다. 친정이 미국 오하이오 주 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성교우들이 우리 중에서 가장 먼 친정집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김매련 선생님 대학시절 전공은 '오보에'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서 교우들이 한번 예배시간에 특별연주를 원하였는데 혼자 하기는 부담스러워하여 교우 중에 플룻을 전공한 사람과 함께 바하의 플룻소나타 중 한 악장을 이중주로 연주하기도 하였다. 특별연주를 마치고 소감을 남기는데 자신의 잊혀진 전공을 이렇게 되살릴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기쁘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산돌교회 교우들은 이렇게 김 목사님과 그 가족들과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을 나눈 경험을 갖게 되어 요즘에도 가끔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며 즐거워한다.

산돌교회와 산돌노동문화원을 함께 설립하고 김용복 목사님과 동역자와 동지로서 함께한 산돌의 교우들과 문화원의 회원들은 목사님, 원장님을 결코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이다. 특히 아름답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어 이러한 우리의 젊은 시절의 경험을 일생의 소중한 만남으로 기억하면서 김용복 목사님을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추모하고 그 뜻을 새기고자 한다.=

## 제2의 산업선교 뗏목을 마련해준 김용복 교수님. 몇 가지 면모와 마지막 메시지

손은정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목사

### 안경과 같은 분

김용복 교수님에 대해서 명성을 들은 것은 1990년대 중반 신학대학원 때였다. 외국에서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두 사람을 꼽는데, 목사로는 조용기 목사이고 신학자로는 민중신학자 김용복 교수라고 했다. 한 분은 오순절 성령 운동과 교회 성장을 대표하고 다른 한 분은 현장과 시대정신을 담지한 민중신학자이니 이 조합은 꽤 모순적으로 들렸고, 그렇지만 강렬하게 남아있었다. 이토록 세계가 인정하는 신학자인 김용복 교수님을 나는 먼발치에서 가끔 뵈었고 들었다.

한일장신대 총장으로 가셔서 한국 최고의 지성, 인문학자들을 대거 등용했다더라 하는 소문이 들려왔고 함께 활동했던 몇몇 스마트했던 선후배들이 한일장신대에 입학했다고도 들었다. 이 경우를 보면서 대표가 바뀌고 리더십이 바뀌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구나 생각했다. 그러나 그리 오래 못가서 총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변화와 개혁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했다.

직접적으로 뵈고 대화를 나눈 것은 2011년 4월부터였다. 2010년에 영등포산업선교회가 민주화운동사적지이자 기독교사적지 8호로 지정되고, 역사 정리작업에 들어가면서였다. 첫 작업으로 조지송 평전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 작업에 가장 주요한 토대가 된 자료는 김용복 교수님께서 WCC 프로젝트로 1986년도에 조지송 목사님 인터뷰를 6개월에 걸쳐서 진행하여 만든 녹음 테이프였다. 테이프는 총 36개였고 총시간 3597분짜리였다.

그러나 조지송 목사님은 평전이라는 말을 꺼내자, 결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 평전이란 것이 인물을 미화하기 쉽고, 자신이 혼자서 한 일이 아니기에 개인 평전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평전이고, 게다가 자신을 드러내길 극도로 조심하시는 분이 평전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배제하면서 산업선교의 역사를 잘 증언하실 것이란 확신이 더욱 생겼다. 그래서 김용복 교수님께 설득을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오재식 원장님께도 부탁드려 함께 조목사님 맥을 방문하였다. 그때가 2011년 4월 13일이었다. 그 자리에는 산선 전 총무 세 분과 실무자들과 노동사학자까지 함께 해서 17명이 함께 했다. 4시간 30분 정도 식사도 하며 길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그 간담회 기록을 다시 들춰보니, 이 세 거장(조지송, 김용복, 오재식)의 첫 대화는 이러했다. 필자가 먼저 취지를 설명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평전 공모에 18건이 들어왔는데, 산선에서 넣은 조지송 목사님 평전 제안서와 기사연에서 제안한 김관석 목사님 것까지 두 개가 당선이었다. 각 500만원의 지원비를 받게 되었는데, 1500만원 정도는 더 모금을 해서 작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보여드렸다. 그랬더니 오재식 원장님께서 인쇄비는 없냐고 하셨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내용이 좋으면 발간비용도 지원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말씀을 드리니, 조지송 목사님께서 그러면 판이 너무 커진다고 하셨다. 그러자 오재식 원장님께서 “목사님이 얼마나 크신지 모르시죠?” 라고 했다. 그러자 조지송목사님은 “나 55키로 밖에 안돼.” 하셔서 모두 웃었다.

이어서 김용복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일을 하자면 크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큰 작업을 작게 시작할지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 산업선교는 영등포도 있지만 인천, 청주, 구미 등 지역도 있으며,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연대 관계들을 다 포괄하려면 어려운 과제이다. 상당한 깊은 토론이 필요한데 어찌든 조지송 목사님은 안경이다. 조지송 목사님 통해서 그때 산업선교운동을 볼 수 있으니까”라고 하셨다. 그러자 조지송 목사님께서 “요즘은 안경 써도 잘 안보여요. 초점이 흐려졌어”라고 해서 또 한바탕 웃었다. 1970년대 격변의 시기를 함께 통과한 세 분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말씀들이 묵화숨처럼 포근하고 따뜻했다.

김용복 교수님께서서는 이때 조금 더 부연하여 내가 조목사님을 안경이라고 표현한 것은 조목사님이 노동자를 통해서 산업선교가 뭘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과 노동자들 고통 속에 들어가서 보고 뭘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성서를 노동자의 눈으로 읽는 것이 민중신학이다.’라고 일갈하셨다.

그 날 저녁 늦게까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김용복 교수님은 이제 산업선교는 제2의 산업선교 운동, 이모작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이런 내용이었다.

“자본주의가 몰락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가 몰락하면 더 악랄해진다. 성장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자본주의는 죽어가는 짐승처럼 악랄하게 살아남으려고 한다. 이럴 때는 산업선교 전선을 재정비해야 한다. 2모작을 하자. 터도 다시 파악하고 비료와 씨앗도 장만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것은 조지송 목사님의 초심을 아는 게 필요하다. 처음에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한다. 역사를 돌아보는 데는 명분을 크게 세워야 한다. 기술적으로 모금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명분을 크게 세우면 일이 좀 더 생산적으로 될 것이다. 명분을 어떻게 재충전할지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나 한국사회 전체가, 한국교회가 ‘아 그건 우리가 해야지’라는 명분과 대의가 필요하다. 지금이 산업선교하기가 훨씬 어렵다. 그 때는 들이받기만 하면 되었다. 지금은 상당히 복잡하다. 전열을 재정비하고 그때보다 훈련을 더 받고 인생의 이모작을 함께 해야 한다. 300명 정도 필요하다. 지혜와 고백을 함께 할 기드온의 300용사가 필요하다.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사에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이 있다. 하나가 남아프리카 인종차별 철폐한 것이고, 또 하나가 한국 민주화운동인데, 이것을 유발시킨 것이 산업선교다.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운동은 많이 알려져 있으나, 산업선교 운동은 기록이 많이 안되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조목사님 평전은 회고록처럼 쓰지 말고 현재 진행형으로 쓰는 것이 좋고, 회상하는 것은 오늘의 시각에서 회상해야 한다.”

이렇게 11년 전 조지송 목사님 맥에서 김용복 교수님과 17명의 집담회가 있은 후, 조지송 평전은 시작될 수 있었다. 필자는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김용복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제2의 산업선교운동에 대한 제안과 300명의 고백과 지혜가 모이면 가능하다는 말씀, 그리고 평전은 회고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써야 한다고 했던 말씀을 지금도 되새겨 보고 있다. 김용복 교수께서 조목사님의 평전이 지난 과거의 산업선교의 역사와 정신을 들여다보는 안경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김용복 교수님의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든 잘 모아낸다면 청년들에게 불투명해 보이는 미래를 내다보는데 선명한 안경이 되어 줄 것이고, 나와 같은 연령의 사람에겐 돋보기가 되어 줄 것이란 예감이 든다.

### 다른 사람을 먼저 세우신 분

2020년에 결성된 조지송기념사업회(운영위원장: 이근복 목사)에서는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평전



초고를 작가인 서덕석 목사님과 조지송기념사업회 운영위원들과 산선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듬고 보완하는 작업을 했다. 방담회에 초대된 김용복 교수님은 확실히 그 폭이 넓어서 이 책은 한글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영문 번역을 해서 세계교회의 공동자산이 되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 11차 총회가 팬데믹으로 연기되어 내년 2022년 9월에 있으니 이 책을 영문과 독문으로 번역하여 공유하자고 하셨다. 그리고 평전을 시작으로 '21세기 URM'을 부활시킬 수 있도록 각 나라 URM 네트워크를 다시 구축하기를 제안하셨다. 아프리카의 샘 코비아, 필리핀의 파드레 비숍, 인도의 MP 조셉, 브라질의 말코스 아로다, 미국의 조지타드 후계자, 독일의 루츠드레셔, 호주 교회의 덕우튼 등과 연결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세계교회의 선교활동가들의 이름을 어찌 저렇게 다 기억하시나 싶어서 놀랐고, 정말 네트워크가 넓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놀랐다.

김용복 교수님의 제안을 함께 검토하며, 운영위원장인 이근복 목사님과 장윤재 교수님과 배현주 교수님과 산선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했다. 이 회의에서 제안된 대로 CWM(세계선교협의회)에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총무인 금주섭 목사님은 김용복 교수님 관련 책을 먼저 내고 그 후에 조지송 평전은 가능하다고 했다. 세계선교협의회에는 '남반구로부터 온 예언자들'이라는 특별한 시리즈 저작물이 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예언자적 신학자로 김용복 교수님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김용복 교수님께 전하자, 김교수님은 금총무님에게 전화하여 자기 대신 먼저 조지송 목사님 평전을 내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셨다. 이 간절함이 받아들여지면서 작년 2021년 8월에 세계선교협의회 차원의 출판이 전격 진행되었다. 김용복 교수님은 이 평전이 매우 권위있는 포트리스 출판사에서 나오면 가장 좋은데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제2, 3의 안도 만들자고 하셨다. 이 간절한 소망들이 모여져서 그랬는지 미국의 포트리스 출판사는 올해 4월 중순에 출판 승인을 했다. 그러나 이것을 그토록 간절히 기대하며 추진했던 김용복 교수님은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별세하셨다.

지금 되돌아켜보니, 김용복 교수님은 다른 사람을 먼저 세우는 분이셨다. <강아지똥>, <몽실 언니>, <하느님의 눈물>을 쓴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이 오덕 선생님 덕분이라고 알고 있다. 조지송이란 인물과 산업선교가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도전과 빛을 전해주도록 하는 데는 김용복 교수님이 계셨던 것이다.

**앞으로의 선교 운동은 서구적인 사고, 사회과학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김용복 교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석 달 전, 2022년 1월 7일에 전화를 드렸다. 1월 22일 조목사님 3주기 행사에 꼭 모시고 싶은데 건강이 여의치 않음을 확인하며 통화하던 중 메시지를 남겨야겠다는 마음이 퍼뜩 올라왔고, 제게 한 말씀만 해주소서 하는 심정으로 녹음을 하기 시작했다.

교수님은 작년부터 계속 만날 때마다, 조지송 평전을 통해 제2의 URM운동 부활과 세계교회와의 공유를 말씀하셨는데, 핵심 개념과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질문하니, 이렇게 답하셨다.

*“평전에 다 나와 있다.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서양에서는 민중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 제3세계에서 해야 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민중선교는 이념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 그것은 심층적인 것이다.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특히 조지송 목사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교회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심층적인 것이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 지금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에는 혼이 빠졌다. 서구적 사고 가지고 하는 일, 사회과학적인 것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 보다, 예수님과 같은 스타일, 제자들과 같이했던 그 스타일이 중요하다. 거기서 영적 파워가 나와서 저항도 하고 노동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기성의 선교, 기성의 교회론, 기성의 사회운동론을 초월한 것이다.”*

이것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메시지였다. 들려오는 육성에 담긴 진심이 하도 맑고 깊어서 그랬는지 영적 기갈이 해소되었다. 이 메시지를 앞으로 계속 곱씹고 묵상해볼 참이다. 그 가운데 우리는 혼과 기백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 김용복 교수님께서 마련해놓고 가신 제2의 산업선교의 땀틀이다.

# 카이로스(kairos)로 살아오신, '울곧지만 늘 변화하셨던 단아한 선비', 김용복 선생님

김은규 한국기독교사교수협의회 회장

김용복 선생님을 떠올리면, '울곧지만, 늘 변화하시는 단아한 선비'이시다는 단어가 생각난다. 동학 사상과 민중신학 사상을 근거로 하면서,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사상들을 접하고,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에 갇히지 않고, 어느새 저 곳에서 또다시 새로운 웅지(雄志, 큰 뜻)를 들고 계신다. 대개 하나를 세우면 그것이 단단하게 되어 외부 충격을 받으면 부러진다. 하지만 선생님은 동학과 민중신학을 두 뿌리로 하면서도 변화와 늘 조우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향해 도전하셨기에 늘 말랑말랑한(?) 뇌를 가지셨기에 부러지지 않으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셨다. 동학 농민의 민중운동을 70, 80년대 민중신학과 민주화운동의 전거로 삼으시며 역사적 맥을 잡으셨다. 김용복 선생님은 지구를 수십 바퀴 돌면서 세계의 많은 석학들과 시민운동가들, 목회자들의 현장 전문가들과 사상적 토론을 하면서, 미국을 제국(empire)으로 규정하고, 신자유주의의 문제들, 통일, 인간의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내세우며 생태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셨다.

필자가 2002년 영국서 정지석 박사(현, 국경선평화학교 대표)와 이야기 나누면서, 한국에 신학자들이 많음에도 영문학술지가 없어 세계에 알릴 것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귀국했을 때, 김용복 선생님을 찾아보니, 마침 선생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셨다. 그때 학술지 제목으로 주신 것이 '마당'(場, Madang)이었다. 시골 집 마당은 가족,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공간이고,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축제의 마당이 되어 조문객들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하며 장사를 지내는 것으로 해석하셨다. 신학이 다양한 학문과 만나며, '축제의 마당'(場)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다. 덧붙여 '카이로스'(kairos)를 강조하시며, 1초, 1분, 1시간이 흘러가는 객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Context)에서 특별한 시간을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3년이라는 카이로스 시간, 곧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을 매우 의미있

게 사셨음을 말씀하셨다. 어쩌면 김용복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현장들에서 수많은 카이로스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셨다고 본다. 2004년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소가 주관이 되어 마당 학술지(Mada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xtual Theology)가 나온 이래, 지금껏 한번도 거르지 않고, 출판되어(년 2회) 세계 각국의 도서관에 뿌려지고 있고 세계학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은 김용복 선생님의 밑거름이었고, 자랑이 아닐 수가 없다.



마당학술지 창간호

김용복 선생님은 편집장을, 권진관 교수, 채수일 총장, 이정배 교수, 정지석 박사 등이 초창기 편집 위원으로, 필자는 편집책임을 맡아 십여 년 넘게 역할을 하셨다. 지금껏 마당 학술지는 민중신학, 인권, 생명, 평화, 정의, 한반도평화, 생태, 여성, 제국, 신자유주의 등을 주제로 발간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WCC 부산총회가 열려 세계 각국에서 수백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그 기간에 매일 발행되는 영문 신문이 Madang가 된 것도 김용복 선생님의 주장이 관철되어 발행되었다. 곧, '마당'이라는 한글과 의미를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의도이었다.

김용복 선생님은 80년대 독재권력에 맞선 민주화운동 시절에 대학에서 해직되신 서남동, 서광선, 김찬국, 안병무, 현영학, 이석영, 한완상, 노정선 교수 등과 함께 민중신학을 만드는데 함께 하고, 현장에서 함께하며 고초를 겪으셨다. 2004년 한국기독교사교수협의회 회장도 역임하며 사회의 지성인으로서 목소리를 내셨다.

이제 김용복 선생님은 하늘동산 산자락에 꽃꽂이 하늘높이 자란 소나무 아래 흙으로 묻히셨으나, 선생님의 선비정신은 우리 후대에 영원하실 것을 기억하며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삶의 여정에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함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한국 땅에서 인생을 보내오신 김매련 선생님께도 존경을 드리오며, 김용복 선생님, 김매련 선생님 마음깊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 돌봄운동과 김용복 박사. 고 김용복 박사님을 추모하며

임 중 한 인하대 의과대학 학장, 회년과 상생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고 김용복 박사님이 소천하신지 2달이 되어갑니다. 투병하시는 동안 회복을 간구하기 위해 시작한 새벽 기도. 이제는 몇 달이 되어 그 시간에 저절로 눈이 떠져 새벽에 기도회를 가지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용복 박사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지를 새벽마다 기도로 간구하고 되새기게 됩니다. 김 박사님은 저의 삶의 영원한 멘토이십니다.

고 김용복 박사님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성서대학을 통해 만났고, 80년말 새문안교회에서 산돌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산돌교회에 다니면서 늘 김용복 박사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1992년 한일 장신대 총장으로 가셨을 때, 기독교청년의료회 고문으로 모셔 기독교청년의료회에서 박사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다.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는 주체적 실체이다’는 말이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더불어 살림살이, 삶, 즉 살고 살리면서 산다. 이 더불어 삶은 생명 망을 이루어 살기에 가능하다. 이 생명 망은 생명 주체들의 삶의 <상생 망>임으로 생명 주체들이 서로서로 엮어서 형성한다. 우리는 이것을 <생명공동체> 또는 <생명의 정원>이라고 흔히 부른다. 이 생명 망은 생명 주체가 잉태될 때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된다.”

김 박사님은 역사의 주체로서의 민중, 생명공동체를 강조하셨습니다. 김 박사님의 신학과 학문을 요약하자면 “민중과 생명”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나라. 후천 개벽의 시대는 각성된 시민들, 영적 대각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들

이 생명의 경제, 사회적 경제를 이루고 주권재민의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다가오는 시대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존엄하게 여겨지도록 시민사회(사회적경제)와 국가가 협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고 김용복 박사님은 “민중의 사회적 전기”라는 독창적인 민중신학 개념을 낸 대표적인 민중신학자 이셨고, 90년대 이후에 김 박사님은 생명공동체운동에 매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김 박사님이 기독교청년의료인회 고문으로 영적인 스승으로, 기독교청년의료인회 의료인들이 우리사회 현장에서 분절화되고 상업화된 의료에서 민중의 상처를 치료하는 생명 의료로 변화되도록 영향을 주셨습니다. 김 박사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의료분야에 협동조합(협동경제)을 도입하여 의료협동조합을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의료인들이 지역주민들과 협동하여 의료협동운동이라는 사회운동을 개발하게 하셨습니다. 김 박사님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생명공동체운동의 전개를 역설해주셨는데, 한국사회 현장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이를 발전시켜 나간 그룹이 바로 기독교청년의료인회입니다. 국내외 강연에서 기독교청년의료인회가 개척해낸 의료협동운동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셨으며, 생명공동체운동의 사례로 자랑스럽게 소개해주셨습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은 현재 30여개의 의료사협이 있으며, 10만 조합원이 조직되어있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리더 그룹입니다.

“인간생명체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인간은 생명주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생성된 생명 망을 지탱하기 위하여 영성적 실체(Spirituality)를 기반으로 한다. 이 생명체와 생명망은 문화적 기반, 사회적 기반, 생물학적 기반(인간 이외의 모든 생명체를 포괄하는 생태적 연관성), 물리적 기반(전지구적/전우주적 기반)을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명 망이 상생적이라는 명제를 중요시한다. 이런 <상생 망>이라야 생명 망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고 자본주의 승자독식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을수록,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평화와 생명운동을 주창하신 김용복 박사님의 비전과 기도가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김 박사님의 생명공동체의 사상을 우리사회를 개혁하는 동력으로 삼고, 나아가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아시아 각 나라에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민주화를 이루고 생명의 정원을 이루는데 큰 힘을 되길 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기독교가 이 역할을 해내면, 아시아를 포함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제 3세계에 기독교가 성장, 발전하는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고 김용복 박사님은 생태계의 위기와 더불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지배하는 산업화시대에 새로운 생명공동체를 만들도록 이끄시는 21세기 선지자이셨습니다.

이제는 선지자 김용복 박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교회 신앙공동체가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일, 약자를 돌보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해서 한국 근대화 기여~ 민족독립운동~ 민주화 운동~ 생명평화운동(돌봄 마을공동체운동)으로 이어지는 한국사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김 박사님. 사랑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힘을 주세요.

---

## 반핵평화운동과 김용복 박사. 김용복 박사님 서거에 든 생각

---

이 승 무 한일반핵평화연대 대표, 순환경제연구소 소장

나는 1980년대부터 김용복 박사님의 글을 읽었고 1990년대 시민운동의 시대에는 YMCA에서 박사님의 강연을 들었지만, 본격적으로 가까이에서 뵈게 된 것은 2012년인가 협동조합기본법이 생기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부터였다. 그때 나는 김용복 박사님이 대안교육운동, 특히 사회적 경제와 평화운동의 실천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대안적인 고등교육 과정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오래 전부터 노력해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 주로 기독교인들과 교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 연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나도 조합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일이 그렇게 된 데 대하여 책임이 있다. 김용복 박사님은 이 일을 위해 국제적으로 동분서주하면서 많은 노력을 쏟아 부으셨지만 박사님은 역시 큰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였고, 박사님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박사님의 뜻과 열정에 상응한 조직적, 행정적 뒷받침을 못했던 것 같다. 어쩌면 김용복 박사님이 민주화운동의 선배로서 사회생활에서 뒤처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후배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늘 기를 북돋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에 스승으로서 훈련이 필요한 후배와 제자들을 엄격하게 공부와 일을 가르치지 못했던데 그 원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2014년부터는 탈핵운동에 함께 했고, 핵발전소와 핵무기 모두를 반대한다는 반핵평화운동을 하는 조직을 한국과 일본의 시민이 함께 결성하면서 김용복 박사님은 그 조직체의 사상적인 내용을 공급하고 국제적인 차원의 교류를 제안하고 주선하는 역할을 맡으셨다. 김 박사님은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기독교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반핵평화운동의 입장을 가지고 진보기독교계와 평화운동을 연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셨다. 이러한 반핵평화운동도, 협동조합운동도, 대안교육운동도

모두 당신이 주창한 <생명학>이라는 커다란 사상체계 안에서 전개하는 것으로서 지리산 피아골에 위치한 생명학연구원에서는 많은 해외 학자와 활동가들을 초청해 ‘평화와 교육’, ‘상생경제’,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계속 열렸고, 나도 그곳을 몇 번 방문하여 경제 분야에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 적이 있다. 김용복 박사님은 많은 사람들을 조직하여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이것저것 재지 않고 주저 없이 그 일을 추진하고야 마는 운동가의 기질을 타고난 학자였다. 재정적인 뒷받침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벌여서 주위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든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 방식의 제일 큰 피해자는 아마 당신의 가족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평화운동이란 이름으로 <생명학>이란 학문의 이름으로 국제정치, 군사, 환경생태, 교육, 경제, 역사, 종교 내지 신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끌어들이어서 교류하고 이를 묶어서 생명을 파괴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았다. 그러다보니 융합과 합류(CONVERGENCE)를 늘 강조하셨고, 기조 강연에서는 늘 해당 주제를 광대한 세계적 지평에서 조망하여 존재하는 장애물들을 사소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고담준론은 듣는 사람들을 아연하게 만들고 놀라게 했다. 지리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날카로운 분석과 논쟁보다는 이 분야 저 분야가 뒤섞여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비빔밥 같은 결론이 내려지고 희망어린 미래에 대한 전망과 흥겨운 친교가 이어졌다. 역시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접근방식이라서 그런지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 냉철한 명제에 도달한다는 긴장은 없었고, 모든 것을 감싸 주는 사랑과 관용과 평화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나는 민중신학을 잘 모르지만, 민중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문학적인 열정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른 여러 학문분야 사람들에게서 상당히 깊이 있게 배우고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보이며, 김용복 박사님이 그런 길을 터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의 입장이 강하고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세운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지향이 강하지만 국가기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불신하는 입장으로서 사회주의에 대해 호감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불세비즘과는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휴머니즘과 아나키즘의 지향을 가진 기독교 내의 사상지향으로 보인다. 이는 원래 기독교에서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다. 그런 지향이 암울했던 시대에 한국 기독교 안에서 짝이 터서 이 땅 위의 민중문화와 민속신앙들을 재해석하며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나라로 도약하는 유토피아적인 꿈을 중요시하는 것 같다.

종교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다. 다른 인문사회과학의 학문들이 전문 분야의 아성을 지키면서 이론으로 사람을 왜소하게 만들고, 사상의 이름으로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겨온 것이 우리 역사의 사실이므로 이러한 휴머니스트적인 아나키즘의 입장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를 함께 통찰하려고 노력한다

는 것은 학문하는 사람이나 운동하는 사람에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쌓는 일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서구과학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전문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해 왔다는 것은 틀림없이 손해를 보는 일이었고, 그 주변에 순수하지 못한 모사꾼들, 한량들이 모여들게 하여 일을 그르치고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한 이유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족적을 남기셨으니 그것은 특정 학문을 전문적으로 파고들면서 엄격하고 냉혹한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인간을 위해 같은 시대를 같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민중, 제국과 국가체제로부터 파괴적인 폭력의 피해를 입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힘없는 다수의 서민들이 스스로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을 때라야 진짜 평화라는 입장에서 역사와 세계의 생명을 살리는 데 관련된 모든 일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실천하려는 태도야말로 김용복 박사님의 민중신학 내지 생명학이 이 나라의 후손들에게 남겨준 진짜 보물이 아닌가 생각한다.

# 목사님, 희년빛탕감상담소와 희년경제연구소를 열었습니다. 고 김용복 목사님을 추모하며

김 철 호 희년빛탕감상담소장, 목사

1997년 우리나라에 IMF 외환위기가 몰아쳤다.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들이 쥐꼬리만큼 퇴직금을 받아두고 평생직장에서 쫓겨났다.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이 호주머니 돈을 털고 빚을 얻어서 자영업자로 나섰으나 가혹한 지대착취와 영업경쟁 속에서 빚의 늪에 내팽개쳐졌다. 가족이 해체되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대열로 내몰렸다.

나는 그 무렵 건축노동을 하는 도시일용노동자로서 여럿이 함께 일하는 생활경제공동체를 이끌었는데, 나 역시도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고 말았다. 절망한 나는 신학교를 삶의 도피처로 삼았고 세월이 흘러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러면서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 빚에 허덕이는 이들의 참혹한 삶의 상황이 눈에 밝히게 되었고 2005년부터 빛탕감 무료상담을 시작했다. 그 때 내가 깨달은 빛탕감 무료상담 활동의 신앙근거는 성서의 '희년'이었고 현실 도구는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제도'였다.

그러나 희년 빛탕감 무료상담 활동은 교회와 교우들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로부터도 긍정적인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다.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도덕적 해이'라고 여길 뿐이다. 교회는 희년 빛탕감을 기독교 핵심신앙으로 선포하지 않았고 교우들은 희년 빛탕감을 기독교 신앙행동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주류언론들은 앞 다투어 21세기 빚꾸러기들의 참혹한 삶의 상황에 대한 자극적 보도들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도리어 21세기 빚꾸러기들의 삶을 도덕적 해이로 왜곡하고 부풀려서 대중들에게 전달했다. 21세기 빚꾸러기들의 삶의 고통과 절망에 대한 사회경제 구조적 폐해를 은폐함으로써 대중들의 눈과 귀 그리고 생각을 이간질 했다. 그럼으로써 21세기 금융시스템 불로소득 대박경제체제 지킴이 역할을 자임했다. 물론 21세기 기독교 신앙인들과 대중

들 역시도 우리시대의 빚꾸러기들의 참혹한 삶의 상황과 고통과 절망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시류에 휩쓸리고 21세기 금융시스템이 쳐놓은 불로소득 대박 덩어리에 사로잡혀서 빚꾸러기들을 향해 도덕적 해이자라고 돌팔매질을 해댔 뿐이었다.

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난 21세기 빚꾸러기들의 삶의 상황'을 증언하는 '10등급 국민'이라는 책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우리사회 곳곳에 파리를 틀고 앉은 맘몬자본, 마름권력들의 도덕적 해이라는 불호령 속에서 빚꾸러기들은 자기 삶의 고통과 절망을 감히 목구멍을 넘겨 토해내지 못했다. 설사 말을 꺼낸다 해도 우리사회의 맘몬자본, 마름권력들의 도덕적해이라는 여론조작에 묻혀 스러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내 김옥연 목사님과 함께 김용복 목사님에게 '21세기 빚꾸러기들의 삶의 고통과 절망에 대한 이해와 동의 그리고 연대'를 구하기로 했다. 이제 시간이 흘러 고 김용복 목사님을 추모하며 '목사님의 10등급 국민 추천사'를 다시 꺼내 읽는다.

“〈10등급 국민〉은 제가 꼭 읽고 배우고, 깊이 이해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실은 소중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 책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야기들로 여겨질 것입니다. 모든 민중과 국민을 섬기는 운동을 하는 동지들이 나누어 읽어야 할 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책은 모든 기독교 지식인, 기독교 성직자, 기독교 지도자들이 읽어야 할 귀한 이야기들입니다. 아니 이 책은 모든 경제학자, 기업가, 경영자들이 읽어야 할 글들이라고 믿습니다.

사회적 경제 협동운동은 국민의 기본생명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적 차원에서 전개하는 저항운동이요 해방운동입니다. 오늘 세계시장체제는 모든 민중과 국민에게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게 경제적 전쟁행위와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금융체제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악랄한 경제적 착취와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 〈10등급 국민〉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한 절규와 근원적인 염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살림을 위한 지혜가 창출될 것입니다.

이런 “10등급 국민” 이야기에서 〈사회적 경제 현장〉이 기본 생명권 운동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회적 경제현장은 국내외적으로 그리고 민족통일경제를 위하여 제정되고 선포되고 모두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예언자들은 〈10등급 국민〉에서 이 시대의 절규를 듣고 희년의 선언을 외치고 경제적 치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난해 봄 서울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내 김옥연 목사님과 함께 「희년 빛탕감 상담소 · 희년경제연구소」 활동을 생각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신대학교 석좌교수로 계신 김용복 목사님을 찾아뵙고 의견을 구했다. 목사님은 자기 일처럼 열정을 보이며 지지해 주셨다. 목사님은 21세기 빚꾸러기들의 고

통과 절망을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신학적 책임으로 설명하며 교회와 교우들이 회년헌금 등 회년신앙 운동에 참여할 방법들을 이야기 하셨다. 또한 성서가 한국교회와 교우들에게 선포하는 회년 빛탕감 의미를 설명하며 회년신앙행동이야말로 맘몬·자본세상 속에서 ‘비뚤어진 한국교회와 교우들의 신앙행태’를 바로잡는 빠른 길이라고 강조하셨다.

나는 이제 고 김용복 목사님의 민중신학, 평화신학, 생명축제, 회년신앙 정신을 회년빛탕감상담소·회년경제연구소 현장 활동 속으로 새롭게 소환하려고 한다. 21세기 한국교회와 교우들에게 남겨진 목사님의 생명축제, 회년신앙 정신을 우리시대 빛꾸러기들의 삶의 상황과 고통과 절망에 공감하고 소통하며 연대하는 ‘하늘은사’로 새겨내려고 한다. 목사님의 생명축제신학과 신앙사상을 회년 빛탕감 무료상담 활동 속에서 실천해 내려고 한다.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생명공동체의 모든 생명축제와 생명활동을 돈으로 계산하는 맘몬, 자본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의 참된 신앙 삶을 이끄는 길잡이로 증언하려고 한다. 고 김용복 목사님의 생명축제, 회년신앙 정신이야말로 가난하고 빛진 이들과 하나가 되는 ‘사회·경제 영성’을 실천하는 힘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 김용복 박사를 추모함. 40여년간의 우정을 회고하며<sup>5)</sup>

---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요즘 주변에서 귀천(歸天)행을 알리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조금 전에도 김용복 박사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들었다. 비보를 들으면서 내게 투영된 그에 대한 이미지는 그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미래를 예견하고 우리가 염두에 두지 못한 세계의 도래를 상상하면서 준비해 나갔던 선구자적인 모습이다. 그는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상상해 나갔던 분이었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그는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늘 미래를 살아갔던 분이었던 것이다. 그의 귀천 길을 주님이 인도하셨을 줄 믿고 감사하면서 이 글을 초한다.

김 박사와 처음 안면을 튼 것은 1979년, 아마도 그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지 얼마 안되었을 때다. 그 때 한국 교회 진보진영에서는 NCK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을 만들었는데, 이는 장기간의 박정희 유신치하에서 한국 교회가 에큐메니컬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설립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교파 간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기사연은 원장에 감리회의 조승혁 목사, 부원장에 장로회의 김용복 박사를 임명했고 김 박사는 주로 연구 분야를 맡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안다.

어느 날, 그 때만 해도 말끔하게 단장한 모습으로, 김용복 박사가 청파동의 내 연구실을 찾았다. 까만 양복에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그 때까지 그에게 유지되고 있던 서양식 예의를 갖추어 내방하였다. 아마도 그가 미국에서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가 아닌가 한다. 처음 만났을 때 보여주었던 그 말끔한 모습은, 그 뒤 늘 수수하게 보였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었으며, 좀처럼 다시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

5) 이만열 교수님의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ahnyol>)에서 옮김

자기소개를 끝낸 후 그는 몇 년 전부터 한국 기독교사와 관련된 내 논문을 읽어왔으며 자신이 부원장으로 있는 기사연이 내가 논문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그런 연구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사연이 한국 기독교사 혹은 한국 사회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나와 함께 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김 박사가 보았다는 내 논문은 1973년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간행한 『한국사론(韓國史論)』제 1집에 수록된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이었다. 이는 한국에 기독교가 수용되어 사회의식이 어떻게 형성 전개되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항일민족운동으로 전개되어갔는가, 말하자면 기독교사를 민족사적 관점에서 살피려고 한 내용이었다. 그 논문은 당시 한국 진보 기독교계에 자그마한 파장을 일으켰다고 들었다.

그에 앞서 나는 1970년 가을학기부터 대학 전임으로 갔다. 그 때까지 나는 한국 기독교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유가 나름대로 있었다. 당시 대학에서 종교사를 연구, 강의하는 스승 중에는 호교론(護敎論)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 이도 있었다. ‘손이 안으로 굽는’ 식의 그런 연구요 강의였다. 때문에 나도 한국의 기독교사를 연구하게 된다면 그런 관점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아예 선을 그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72년 ‘7.4 공동성명’에 이어 그 해 10월에는 소위 ‘10월 유신’이 선포되었다. 이 때 사회는 기독교 지성을 향해 이 사태에 무언가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나의 그 논문은 ‘10월 유신’에 대한 기독교인, 역사학도로서의 응답이었던 셈이다. 용기가 없어 해방 후의 역사를 다루면서 말하지 못하고 시간적으로 한참 떨어진 한말 격동기의 사실을 들어 유신시대를 비판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논문이 발표되었을 때 김 박사는 프린스턴에서 학위논문을 쓰고 있었다. 그는 어떤 경로를 통해 나의 그 논문을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뒷날 알았지만 이 때 그가 프린스턴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테마는 한국의 ‘동학혁명’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 뒤 내가 김 박사의 도움을 받아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방문교수로 가게 되었는데 그 때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는 김 박사의 학위논문을 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 그 논문은 저자의 허락없이 열람되지 않도록 조치해 놓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유신말기’의 상황에서 그 논문이 공개되었을 때의 파장을 고려하여 김 박사는 아예 그런 조치를 취해 놓았던 것이다.

김 박사의 내 연구실 방문 후 나는 기사연과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아쉬워한 것은 한국 기독교사 연구를 제대로 하자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에 보관되어 있는 한국 현지 보고서와 자료들을 제대로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그 때까지 한국 학자들은, 선교사들이 한국 현지의 상황을 그들의 본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 보고했는데 바로 이러한 한국 기독교사 관련 1차 자료들을 제대로 열람하지 못한 채 연구하고 있었다. 백락준 박사가 예일대학에서 학위논문(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 1910)을 미국에서 쓰면서 선교사들의 자

료를 참고한 정도였다. 그 때까지 한국 교회가 선교사 수용 100년을 맞아가는 데도 선교사 파송국에 있는 자료를 수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김 박사께 이런 고충을 말하니 김 박사는 날더러 이 교수가 직접 미국과 캐나다에 가서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그것을 자신이 주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곧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Dean으로 있는 West 박사에게 연락, 초청장을 받아 주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등장, 많은 해직교수를 양산함으로 그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다.

해직된 후 여러 곳에서 노력, 모처로부터 내게 한국 교회사 자료 수집을 위해 직접 미국에 가겠느냐는 연락이 왔다. 나는 가족이 함께 간다는 조건으로 해직교수로서는 처음으로 도미수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도 김용복 박사가 모교인 프린스턴에 연락해서 초청장과 기숙사를 허락받게 해 주었다. 이렇게 내게 한국 기독교사 연구의 새 장을 마련해준 이가 바로 김용복 박사이다. 이를 계기로 필자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지를 다니며 한국 기독교사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학도로서 내가 김 박사의 도움을 받은 것은 바로 한국 교회사 연구의 심화, 확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뒤 가끔 김 박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프린스턴 교정에서 만나기도 하고, 내가 귀국해서는 기사연에서 기획한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 박사는 그 뒤 전주의 한일장신대의 총장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지리산에 들어가 아시아생명평화운동의 새로운 구상을 하기도 했다. 그의 연보에 나타난 한국기독교학회 회장, 한국민중신학회 회장,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및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개혁교회연맹 등에서 활동한 것과 그의 저술들은 여기에 일일이 적지 않겠다. 김 박사는 민족의 평화통일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1988년 NCK 신학위원 및 통일전문위원으로 그해 2월 29일 선언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의 초안자의 한 분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만년에 오로지 생명평화운동에 전념하다시피 하여 여러 세미나를 주최하면서 동학 후배들과 뜻을 같이 했다. 필자에게는 새로운 제목으로 강의를 요청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신학적 및 인문학적 지향이 어떻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변화하는 세계에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변화를 수용하여 신학 및 인문학적 과제로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내곤 했다. 그의 육체는 노쇠해 갔으나 학문적인 열정은 식지 않았고, 생명과 평화를 위한 그의 지향은 끊임없이 재생산되었다. 그의 이 같은 인문학과 신학적 상상력은 끊임없이 후진들을 자극하고 양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가 이렇게 생명평화 위주의 신학적 토대를 굳건히 갖게 된 것은 아마도 연세대에서 철학을 전공한 것도 큰 밑받침이 되었을 것이고, 유창한 외국어 실력이 구미 여러 나라 석학들의 새로운 사상을 누구보다 먼저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아시아기독교협의회에 관여하면서 동경대학 출신의 두 엘리트, 사와 마사히코(澤正彦) 목사와 구라다 마사히코(藏田雅彦) 교수를, 일본 지성인의 한국을 향한 기독교적 사랑과 회개의 사도로 만든 것은 그의 넉넉한 인품이 남긴 열매였다고 본다.



# 우리시대의 예언자 김용복 박사님을 그리워하며....

남 부 원 아시아태평양YMCA연맹 사무총장

1979년 겨울로 기억됩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한 주일날에 기독교학생회(SCA) 친구인 이용철의 권유로 새문안교회 청년성서연구모임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거기서 일본의 신학자 사사쿠의 책 <예수의 행태>를 교재로 하여 2천년 전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도전적으로 강의하시는 김박사님의 열정어린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 아니 가슴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당시 제가 교회에서 배워왔던 신앙적 관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아주 전복적인 강의였지요. 그 이후 제가 접해온 김박사님의 다양한 강의와 실천지향적으로 쓰신 많은 글들, 그리고 1985년부터 기독교학생회 선후배들과 함께 시작하신 산돌교회에서의 수많은 설교들은 '북극성'처럼 제 또래의 기독교학생들에게 자기성찰적이고 역사참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늘 새롭게 반추시키는 도전장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구로동 산업공단에서의 산돌교회 설립과 산돌문화원 활동도, 당신의 치열한 기도와 깊은 신학적 성찰로부터 나온 - 민중의 사회전기를 화두로 한 '민중신학'이 관념으로 그치지 않고 민중의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여러 시도 가운데 하나였음을 기억합니다. 민중신학자로서, 생명신학자로서 그리고 치열한 에큐메니컬운동가로서, 예수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라 달려갈 길을 다 달린 당신의 삶을 기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당신은 언제나 한결같이 "꿈꾸는 청년"으로 사셨지요. 후배들과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세상의 변화를 앞서 예측해주시고,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늘 새로운 기독교운동의 일감과 과제를 제시해주셨지요. 온생명이 함께 어우러져 평화롭게 살아가는 대동세상, 정의와 사랑과 환대가 넘치는 그런 세상에 대한 꿈을 한시도 놓지 않으신, 아니 늘 새로운 희망과 비전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주조하여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셨지요.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나라 운동의 "동지"라 부르시면서 그 가슴 뛰는 도정에 끊임없이 초청해 주셨지요.

아시아태평양YMCA연맹이 매년 11월에 한달간 진행하는 중견간사학교(Advanced Studies Program)의 단골강사로 오셔서, 신자유주의 광풍의 한가운데 휩싸여있는 아시아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 신학함(Doing theology)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고 도전적으로 강의해주심으로 중견간사학교의 수준을 격상시켜주신 것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에 오신 때가 2018년 가을로 기억됩니다. 필리핀 두테르테 정권의 인권탄압과 정치적 살인이 고조되고 있을 때 필리핀 인권평화운동가들과의 연대와 저항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홍콩에 오셨지요. 아태Y연맹의 동료이자 김박사님 제자인 찬벵생(Chan Beng Seng) 국장과 제가 권유드린 YMCA호텔방을 마다하시고 6인용 벵크침대에서 좁고 불편한 잠자리를 함께 하시면서 연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지요. 모임이 끝난 마지막날 식사하는 자리에서 초췌하고 피곤한 몸을 누이지 않으시고 밤늦게까지 필리핀의 열악한 인권상황과 이를 있게 한 거대한 부정의의 시스템을 설명해주시고 다시금 에큐메니컬운동의 새로운 과제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지요. "우리시대의 징조는 아이러니하게도 2천년 전 예수시대의 구조와 닮아있다. 그러므로 그 시대처럼 새로운 예언자 운동이 필요하다. 우리의 소리가 작던 크던 상관없이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끼리의 강고한 네트워크를 결성하는 운동을 벌이자"라고!

그런데 저희는 "제가 발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합니다....제가 겨릿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야 합니다.....제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러 가야 합니다"(누가복음 14장)라고 핑계대면서 당신의 초청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노하지 않으시고 거듭거듭 새로운 비전과 사명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지요. 그 '잔치'에의 초청에 힘껏 달려가지 못한 저희들은 당신이 떠나간 빈 자리에 서서 무한한 "부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은 늘 저희들에게 얘기하셨지요. "세상의 근원적인 변화를 위한 지성의 투쟁으로서 쉬지 말고 공부에 정진하라"고. "학문공동체는 민공동체의 역사주체적 실현을 위한 과제를 위한 사역"이어야 한다고 하신 당신의 말씀은 지금도 저의 가슴을 울립니다.

김박사님! 저를 포함해 많은 후배들 가슴 속에 당신의 대동 세상에 대한 꿈과 염원을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일생을 통해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를 넘나드시면서 학문의 전당은 물론, 수많은 에큐메니컬 단체와 기관에서 하나님나라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씨앗들이 자라고 열매맺고 있음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또 그 씨앗들이 더 크고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몫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박사님이 평생 꾸어오신 "온생명이 어울어지는 대동세상"을 향한 꿈이 우리모두의 꿈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를 쉬지 않고 실천의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응원해주실 당신을 그리워하며...

# 박사님의 제자여서 행복했습니다 김용복 박사를 그리워하며

홍주형 한일장신대 제자, 부안 장신교회 목사

먼저는 김용복 박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분과 함께 한 시대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용복 박사에게 대한 뜻을 기리며 회고하는 에큐메니컬 동지들의 따뜻한 마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로서 그의 왕성한 활동은 많은 선후배 동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에 선생의 부음이 아직도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 글은 김용복 박사께서 1992년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당시 한일신학교)에 학장으로 부임하셨을 때 학생으로, 30년간 제자로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회고하며 나누고자 한다.

저는 김용복 박사께서 부임하셨을 때 신학교 4학년 학생이었고 총학생회장이었다. 지방에 있는 작은 신학교에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용복 박사가 오신다는 소식은 당시 학생들에게는 믿겨지지 않는 소식이었다. 책으로만 접할 수 있던 분을 우리 곁에 모시게 된 것이다.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말로 할 수 없었다.

신학교에 부임하셔서 학생들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셨던 선생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선생께서 학교에 부임하자 많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학교를 찾아오셨다. 그때마다 박사님은 총학생회로 전화를 걸어 학장실로 부르셨고 오신 분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시고 인사시켰다. 당시 영어로 인사정도 밖에 하지 못하던 나에게는 부담되는 자리였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여서 힘든 자리였지만 통역해 주시면서 함께하게 해 주셨다. 당시만 해도 총학생회장은 학교 지도부와 갈등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학생들을 학교의 주체로 인정해주지 않는 문화였기에 그의 모습은 파격적으로 느껴졌다. 그 내면에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박사님의 철학이 분명하였다.

학생들만 만나시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혜의 보따리를 푸시고 삶은 나누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김제 죽산에서 태어나서 일제 강점기의 힘든 시간들을 보낸 이야기,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선생들과 논쟁을 벌였던 이야기, 연세대 철학과에 입학했는데 입학금을 구하지 못할 때 졸업식 때 교장선생이 자신의 모자를 벗어 하객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돈을 모아주신 이야기, 연세대에 다니면서 4.19 혁명을 경험하셨던 이야기들을 들려 주셨다. 특별히 밥상공동체를 좋아하셔서 학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고 담소를 나누시는 일을 큰 기쁨으로 여기셨다.

학문적으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들을 가르쳐 주셨다. 그 당시 “기독교 경제사상사” 과목을 개설하시고 직접 강의를 하셨다. 바쁘신 중에도 후학들에게 연구하신 내용을 직접 타이핑하시고 복사하셔서 한 학기를 알차게 알려 주셨다. 어떠한 질문을 드려도 깊이 있는 답변으로 학생들을 집중 시켰다. 한 학기 수업을 마치자 기독교 잡지인 “기독교사상”과 “신학사상”에 우리가 수업한 내용이 정리되어 실린 것이다.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학문적 경험이었다. 이러한 일들은 김용복 박사에게 대한 존경심과 한일에서 신학을 하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학교에 대한 애교심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김용복 박사께서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제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신 분이셨다. 그래서 총학생회는 김용복 박사에게 “꿈꾸는 소년”이라는 애칭을 지었다. 박사께서는 그 애칭을 좋아하셨다. 그는 한일에 대한 많은 꿈을 이야기 해 주셨고 헌신적으로 준비 하셨다. 그 꿈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실현되어 감을 몸으로 느꼈다. 그 당시 지역에는 교단 신학대학원이 없던 시절이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이 곧 만들어질 것이고 전액 장학생으로 모집해서 공부를 시킬 거라 말씀하셨다. 이곳에 만들어지는 대학원이 세계적인 신학대학원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꿈꾸는 소년의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한국에 있는 어느 신학대학원도 전액 장학생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곳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5년 후 그의 꿈은 현실이 되었고 우수한 학생들이 한일신학대학원에서 전액 장학금 혜택을 누리며 공부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많은 꿈을 이루시고자 노력하셨고 헌신하셨다. 그의 꿈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가 꿈꾸고 씨앗을 뿌렸던 일들을 기억하고 일구어 가는 일은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몫이 되었다.

김용복 박사의 제자 사랑은 남달랐다.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의 일처럼 아파해 주셨고 도움을 주시고자 노력하셨다. 제자들이 강의나 진학 문제로 부탁을 드리면 거절하지 않으시고 직접 알아봐 주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일처럼 처리해 주셨다.

한 번은 유럽의 나라들을 돌아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사께서 기억해 두셨다가 일정을 잡아 주셔서 영국의 핀드혼공동체, 네덜란드 오이코크레딧, 스페인의 몬드라곤과 구겐하임 미술관 등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다. 여행하는 동안 박사께서 가지고 있던 여행 노아우를 알려 주셨고 나라마다 맛있는 음식들을 사주셨던 기억이 생생하다.

짧게나마 스승과 제자로서의 받았던 사랑을 적어 보았다. 나는 김용복 박사 제자인 것이 내 생애 자랑거리다. 그러나 미안함이 있다. 너무 받기만 하고 섬겨드리지 못한 것이다. 강인한 체력으로 세계를 누비시고 활동하셨기에 이렇게 가실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더욱 크다. 제자로서 이제 할 일은 김용복 박사 보다 정신의 크기가 작아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꿈꾸는 소년” 김용복 박사를 하늘나라로 보낸 마음은 안타깝고 허전하지만 그 분의 뜻을 이어가고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생명의 정원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인사드립니다. 박사님의 제자여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 김용복 박사님, 영원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sup>6)</sup>

---

박성원 경안대학원대학교 총장, 목사

김 박사님,

이렇게 부르면 금방이라도 저기 문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들어오실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김 박사님 영정 앞에 모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황망한데 남겨진 사모님이랑 가족들은 얼마나 허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김 박사님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김 박사님을 멘토로, 에큐메니컬 지도자로, 혁명적 신학자로, 그리고 정다운 에큐메니컬 친구로 존경해 왔던 수많은 동지들이 ‘큰 기둥을 잃어버린 듯한 허망함’에 잠겨 있습니다. 돌아가시지 말고 돌아오시면 안될까요?

김 박사님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적인 신학자셨습니다. 저의 선친, 박석규 목사님은 생전에 “한국 신학자 다 모아봐라, 김용복 박사 하나 당하는가!” 하셨는데 김 박사님은 정말 <신학천재>였습니다. 세계 신학자 다 모아도 당신의 신학의 깊이와 넓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천재>를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고 물어야 합니까?

당신의 그 지성의 샘물은 퍼내고 퍼내도 그 끝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민중의 사회전기”부터 최근 인공지능시대에 필요한 Cosmic Spiritual Communion 까지 주옥같은 개념들로 시대의 신학적 부름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스텔렌보쉬(Stellenbosch)에서 모스크바(Moscow)까지/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 벨파스트(Belfast)까지 세계 곳곳에서 당신은 민중신학, 평화신학, 고백신앙, 생명신학 씨앗들을 뿌리셨습니다.

당신은 권력에 굴하지 않는 정의의 사도였고, 평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평화 수호자였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복지사였습니다.

당신의 제국에 대한 비판은 검의 날처럼 예리했으나 민중을 향한 당신의 인품은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의 인품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고한 사상가임에도 당신의 마음은 너무 뜨거워 당신 옆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정(情) 난로였습니다.

세계교회는 당신을 그토록 귀하게 여겼는데 정작 우리 교단은 당신을 귀하게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교단을 향한 당신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중들이 제국에 의해 생명을 도륙당하고 있는 지금 당신의 평화 메시지가 더욱 아쉽습니다.

김 박사님,

아직도 이 땅이 죽음의 계곡인데 그 무거운 짐을 우리의 우둔하고 연약한 어깨에 맡기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세계관, 이 생명의 세계, 우지무(Uzimu)에서 또 다른 생명 세계, 우지마(Uzima)로 옮기시네요.

김 박사님,

잘 가십시오. 이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기에서 영원히 사시면서 우리에게 평화와 생명의 지혜를 보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거기에서 다시 만났을 때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Fiesta de la Vida! 생명의 축제를 여시지요.

김 박사님,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존경합니다.

---

6) 예장 에큐메니컬위원회가 주관한 추모예배에서의 조사(2022.4.8.오전 10시, 연대 세브란스 장례식장)

# 꿈꾸는 영원한 소년, 故 김용복 목사<sup>7)</sup>

배 현 주 WCC 중앙위원

저는 김 박사님 제자 세대의 일원입니다. 김 박사님은 전설적인 업적에 걸 맞는 전설적인 체력을 지니신 어른이셨습니다. 이전에 비해 좀 여위시기는 하셨지만 최근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저희 곁을 떠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10월말까지, 영등포산업선교회가 기획한 조지송 목사님 평전에 대해서, 회년운동에 대해서, 또한 팔레스타인 동지들의 WCC 총회 참여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변함이 없는 열정으로 관심을 보이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회의와 대화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김 박사님을 가까이에서 뵈기 시작한 때는 1985년입니다.<sup>8)</sup> 산돌교회 목회를 시작하실 때, 저는 기독교학생운동 선배님들의 권유로 산돌교회 교육전도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7년의 세월 동안 저는 김 박사님과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 동행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동의하고 반대하는 것은 이차적인 일이다. 중요한 것은 위대한 영혼과 접촉하는 일이다.” T. S. 엘리엇이 시몬느베이유를 두고 한 말입니다만, 우리 시대 위대한 영혼이신 김 박사님과 만남에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느낍니다.

한국과 세계 에큐메니컬운동 네트워크 곳곳에서 김 박사님께서 뿌리신 씨앗의 결과물들을 확인할 때마다, 김 박사님 활동의 범위와 영향력에 대해 경외심을 느끼고는 했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뿌리신 씨

앗은 불씨를 닦았습니다. 예수는 세상에 불을 지피러 왔다고 하셨는데, 김 박사님이야말로 예수운동의 불씨를 우리나라와 지구촌에 던지고자 했던 분이십니다. 지구촌의 정치와 군사, 경제와 금융 분야의 수많은 엘리트들이 바벨탑을 쌓고, 힘과 지능을 오용해서, 오늘의 파국으로 인류를 몰아오는 세월 동안, 김 박사님은 세계의 민중을 위한 생명의 맞불을 놓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셨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피에르 부르디외) 오늘의 지배 시스템에 맞서기 위해서는 학자들과 투사들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김 박사님이야말로, 학자의 면모와 투사의 면모가 한 인격 안에 결합된 전형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어제는 ‘영원한 청년’ 고 서광선 박사님의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안재웅 목사님께서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꿈꾸는 영원한 소년’ 김 박사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느낍니다. 김 박사님 카톡방 문구가 “시대의 시운을 분별하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한반도처럼 분단하고 싶어 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핵무장에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45% 감소해야 하는 객관적 현실에 대해 냉철하고 효율적인 시나리오와 행동이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유례없는 전지구적 위기 속에서, 역사는 다시금 퇴보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격랑의 시대를 헤쳐오신 선생님들께서는 분단과 죽음의 세력에 저항하며 한반도와 세계에 생명의 맞불을 지피고자 하셨습니다. 반전과 반핵(탈핵), 생명과 평화, 정의와 사랑,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는 운동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계시는 선생님들을 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 2시에 WCC 커뮤니케이션 국장이 김 박사님 부고 기사를 보내주었습니다. 한국의 평화·통일 운동과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김 박사님의 다중적·선구적 공헌에 감사를 표하며 김 박사님을 기리는 WCC의 부고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의 서두에는 평화의 소녀상에 조각된 소녀의 손을 따뜻하게 그리고 힘차게 부여잡고 계신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문득 삼일운동에 관한 박사 논문을 드디어 출판하시고 주변 동지들에게 보내신 작년 편지의 일부가 오버랩 되었습니다. “일제의 탄압은 저의 부모가 이른 저의 보금자리를 산산이 파괴하였습니다. 저의 부친은 만주 무순탄광에 강제노역으로 끌려가셨다가 1944년 1월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고, 과부가 되신 저희 모친은 저를 위한 생명의 품이 되셨으며 저의 교육을 위하여 평생 행상으로 버팀목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미국 프린스턴에서 6년간 수학을 하는 동안 기도로 응원하여 주셨습니다.” 김 박사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에 변함없이 수난의 민중, 생명의 터전인 민중이 자리잡고 있음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님께서 역사의 광풍 속에서도 평생 곳곳이 소신을 지키실 수 있도록, 인생의 크나큰 버팀목이 되셨던 김매련 선생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쪼록 수고 많으셨던 김 박사님께서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온 유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7) 예장 에큐메니컬위원회가 주관한 추모예배에서의 조사(2022.4.8.오전 10시, 연대 세브란스 장례식장)

8) 4월 10일 수목장에 다녀온 후, 김 박사님과 오랜 인연을 생각하며 이메일과 카톡을 정리하다가, 김 박사님을 처음 뵈는 광나루 신대원 신입생이었던 1984년이었던 생각이 뒤늦게 떠올랐다. 예장 통합 전국여전도회연합회가 김 박사님을 국내선교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심훈의 “상록수”의 주인공인 최용신 스타일의 농촌선교에 대한 구상을 할 때였다. 이미 낭독한 추도사를 수정하지 않고, 망각의 두꺼운 지층을 뚫고 올라온 기억 한 조각을 이 원고에 추가한다.

---

## 민중생명신학자 김용복 박사를 추모하며<sup>9)</sup>

---

권진관 성공회대 신학과 은퇴교수, 죽재서남동목사기념사업회 이사장

며칠 사이에 민중신학계의 두 어른이 돌아가셨다. 서광선 선생이 한 달 보름 전쯤 돌아가시더니, 김용복 선생이 4월 7일, 향년 83 세로 우리를 떠나셨다. 이 두 분은 신학계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큰 별이었다. 김용복 박사는 연세대 철학과와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온 전도가 밝은 인재로서, 제도권 상아탑의 실력있는 학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지만, 그는 보장된 안락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민주화운동, 민중운동, 평화통일운동, 국내와 세계 에큐메니컬운동, 생태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적극적으로 학문과 실천을 연결시켜 이러한 운동에 보탬을 주었다. 이로써 그는 실천적인 학자의 장르를 개척한 것이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실천적 연구 활동을 펼쳤다. 그는 서남동, 안병무, 현영학, 서광선 등과 함께 한국의 민중신학을 개척하였고 이를 전세계에 알린 전도사였다. 민중이라는 말이 영어로 Minjung으로 표기하게 된 것도 그의 공로였다.

늦게나마 깨달은 것은 그가 걸은 길, 그의 삶과 결단이 옳았다는 것이다. 그는 실천과 학문의 연결고리로서 처음에는 민중,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생명이라는 화두를 설정했다. 민중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면서 인간 역사보다는 자연의 역사를, 부정과 혁명의 변증법(dialectic)보다는 수렴통합(convergence)을 강조하게 되었지만, 그러한 전환을 통해서 그는 많은 글을 쏟아낼 수 있는 글의 문을 열었다. 즉, 그의 테제는 “민중이 역사의 주체”에서 “생명이 우주의 주체”로 승화 발전했던 것이다. 민중으로부터 생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역사와 언어(담론과 이야기)의 역할이 약화 혹은 배제되기도 했지만, 그러

나 이렇게 해서 자신의 새로운 말들(담론)을 쏟아내는 태세를 갖춘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는 매우 현명하였다.

2021년 11월에 ‘죽재 서남동의 민중신학과 민주화운동 재조명’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학술회의를 할 때 서광선 선생은 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용복 선생은 오시지 못하고 원고만 보내서 필자가 대독했다. 그 당시 이미 선생은 몸이 아파서 인하대 병원서 검사를 받는 중이었다. 선생이 보내준 원고는 그 내용이 신선했지만, 문법이나 철자가 엉망이었다. 그때 웬일인가 싶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선생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최후의 글을 쓰셨던 것이었다. 여기에서도 그의 언어는 생명에 관한 언어였다. 사태들을 생명의 관점으로 보고 생명의 보존, 해방, 창조의 언어로 재구성했다. 역사의 주체로서의 민중 담론으로부터 우주의 주체로서의 생명으로 그 담론 구조를 철저하게 바꾸고 세웠던 것이다. 그는 생명학 서설을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쓴 후, 신학적 종교적 성찰을 쓸 계획을 가졌었다. 유고들을 모으면 책이 몇 권은 될 것이다.

선생은 기독교 지성인이 걸어가야 할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상아탑이나 연구실이 연구의 현장이 아니라, 연구의 현장은 생명의 현장이라고 믿었다.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 끊임없이 모임을 만들었고, 주도했다. 요즘과 같은 비대면 시대에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제적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활발히 했다. 그는 한국의 지성인이 한국어에 고착되어 있는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모임이 협동조합형태로 만들어져서 자본주의 시장 경쟁 구조 속에서 대안의 결사체가 될 것을 꿈꾸었다.

사람들이 김용복 선생을 일컬어 꿈꾸는 영원한 소년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의 꿈은 결실을 맺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다. 30년 역사를 가진 이 단체는 선생의 꿈의 결실 중 하나였다. 이처럼 꿈이 결실을 맺고 있는데, 그리고 아직도 민중신학은 갈 길이 먼데 선생은 이렇게 떠나셨다. 스승이었지만, 늘 친구처럼 대해 주셨던 선생을 보내는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선생이 깔아놓은 그 초석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때인 것 같다.

---

9) 고 김용복 목사 장례위원회 고별예배(2022.4.9. 연대 세브란스 장례식장) 설교문

---

##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의 선물, 고 김용복 박사<sup>10)</sup>

---

금 주 섭 세계선교협의회 CWM 총무

꿈꾸는 소년, 30년 전 당신께서 한일장신대학교 총장으로 섬기실 때 총학생회 학우들이 지어드린 선생님의 별호입니다. 늘 새로운 비전을 말씀하시고 소년처럼 순진해서 이해득실을 따질 줄 모른다고 학생들이 지은 당돌한 호칭이었지만 선생님은 이 별명을 참 좋아 하셨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스승님께 많은 사랑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선생님께서 민중의 사회적 전기를 들려주시며 동학혁명군이 결집하였던 백산, 남부군의 피아골, 브레이브 하트의 글렌코, 아루샤의 메루산맥 그리고 갈릴리 언덕을 함께 거닐었던 추억이 가장 선명한 제 선교와 신학의 성장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국제적인 분이 보세이가, 에딘버러대학이, 버클리가 불려도 절대 한국 민중을, 분단의 현장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비타협적인 분이 또 어떻게 그렇게 다정하고 공감의 깊고 신사적이신지요?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는 어떻게 그렇게 벽창호이신지요? 기독교와 교회를 넘어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종교와 지혜들을 통섭하셔서 교회로부터 핍박받으시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참 깊은 신앙과 영성의 넓이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과 신학 운동을 통한 변혁을 위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민중신학과 에큐메니컬운동에 헌신하는 보람도 있었지만 참 많은 좌절의 시간도 있었습니

다. 그러나 언제나 먼저 보듬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그분이었습니다. 잠시 딴 길로 방황하신 에큐메니컬 대선배님을 비판하니까 그분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펄펄 쏟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에큐메니컬운동의 선배 그리고 동지 여러분, 꿈꾸는 소년, 김용복 박사님은 한반도 민중과 세계 에큐메니컬운동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의 선물이었습니다. 식민지의 설움과 분단의 아픔, 독재의 잔인함과 차별의 설움을 민중 해방을 위한 신학적 창조성과 헌신으로 승화하셨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적 상황에 대한 신학적 노고는 제3세계 신학의 등불이었습니다. 혁명적 신학자로, 세계 에큐메니컬운동의 지도자로, 세계 민중의 벗으로 살아오신 그분의 삶과 가르침은 세계 곳곳에서 수 천, 수만의 제자들을 길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많은 세대들에게 실천하는 신앙과 변혁적 에큐메니즘에 많은 영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영원한 꿈꾸는 소년, 김용복 박사님의 삶과 신학에 세계선교협의회(CWM)을 대표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작별인사를 올립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그분을 주님 품으로 돌려 드립니다. 스승님, 그곳에서 다시 뵈을 때까지 소년처럼 천진난만하게 웃으시며 즐거이 춤추고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

10) 예장 에큐메니컬위원회가 주관한 추모예배에서의 조사(2022.4.8.오전 10시, 연대 세브란스 장례식장)

---

## 학자와 실천가로 멋있게 사신 고(故) 김용복 박사님을 기억하며

---

황 남 덕 동아시아평화센터·후쿠오카 센터장, 세이난학원대학신학부 교수

요즈음 우리가 잘 사용하는 생명평화, 지정학적 경계를 넘어 민(民)이 중심이 되는 평화운동 등의 단어와 문장은 고(故) 김용복 박사님께서 평소에 즐겨 사용하신 말씀이다. 그 이전에는 민중 자신이 스스로 말하는 삶의 이야기를 『민중의 사회전기』라고 명명하시면서 민중신학의 한 주제를 형성하시기도 했다. 이렇듯 김 박사님은 우리에게 이론적 영향을 많이 주셨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론과 실천을 분리하지 않으시고 사셨던 모습이 가장 큰 영향이 아닌가 싶다.

김 박사님은 한일장신대학교의 총장 시절, 후학을 양성하시면서 세계교회의 에큐메니컬 운동과 신학에 공헌하셨다. 총장 시절 이후에는 민중신학의 확고한 이론과 신념으로 생명운동을 현장에서 펼치셨다. 한일반핵평화연대의 일원으로 8월의 무더위를 무릅쓰고 합천에 가서서 원폭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핵 없는 세상을 함께 꿈꾸었고 일본의 평화활동가들과는 아시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구상을 제시해 주셨다. 한국YMCA 전국연맹의 생명평화 운동에도 함께 하였고 동아시아평화센터·후쿠오카가 온라인으로 주최한 월레강좌에도 강사로 참여하셨다. 민중신학을 이론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하신 에큐메니컬 신학자요, 활동가로서 사신 것이다.

이제 김 박사님이 생전에 힘쓰셨던 민(民)이 중심이 되는 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 전 지구적 생명운동을 국경을 넘어 펼치는 일과 세계교회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생명평화운동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일 등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며 자신의 논리를 차분하게 전개하셨던 김 박사님, 어느 젊은이들 못지 않게 활발하게 현장에서 활동하셨던 김 박사님은 학자와 실천가로 멋지게 사신 분으로 늘 기억에 남을 것이다.

---

## 박사님 사랑합니다.<sup>11)</sup>

---

김 승 환 원주 생명교회 목사

평소 존경하고 정신적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생각하던 김용복 박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예기치 않았던 허리 부상, 또 매인 일 때문에 빈소에도 가뵙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에 김 박사님을 추모하는 한 마디라도 올리고 싶다.

박사님과의 인연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어서, 학생 청년 시절에 내 사상적 지향의 상당 부분이 박사님으로 말미암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기독교아시아연구원>에서 원장이신 그분을 모시고 일하는 영광을 누렸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박사님이 나와 아내 김용애가 결혼할 때 베풀어주신 환대였다.

당시 우리는 박사님이 구로구 독산동에 개척하신 <산돌교회>에 출석하는 중 박사님을 찾아뵙고 결혼주례를 부탁하였는데, 박사님은 기쁘게 응락해주시되, 아내와 당신이 같은 광산 김씨 같은 항렬이라고 기뻐하시면서, 언제 날 잡아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저녁을 대접하겠다는 약속 장소로 잡은 곳이 뜻밖에도 5성급 호텔인 워커힐이었다. 아마도 그곳 중식당에서 코스 요리로 우리를 대접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가 지금 '아마도'라고 말하는 것은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나나 아내가 여전히 촌티를 벗어나지 못한 어리벉벉 그 자체여서, 그저 박사님이 사주는 대로 감지덕지 먹는 데만 골몰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렇게 어리벉벉한 우리를, 소위 '민중과 함께하는 교회'를 섬긴다는 목사가, 무슨 돈을 어디서 얼마

---

11) 김승환 목사의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0991797819>)에서 옮김

나 번다고 그렇게 파격적인 낭비를 하면서 환대해주셨을까? 그때는 그 깊은 사랑을 잘 몰랐지만, 세월 지나고 보니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큰 사랑의 환대였다.

문득,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긴 여인이 떠오른다. 내가 받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가 그분을 찾아뵙고 우리가 그분을 먼저 청하여 모시고 그분을 환대했어야 옳지 않았을까?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제물을 주님께 바치리  
오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그러나 아직 나는 어리고, 어느 만큼 깨닫기까지 환대는 오롯이 박사님의 몫일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보면 값비싼 향유 옥합 주 위해 깨뜨려 주님 발 씻긴 그 여인의 환대 역시, 기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측량할 수 없는 환대의 은혜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작은 보답일 터이다. 사랑이 내리사랑이듯, 환대 또한 내리환대일 터이다.

아, 그런데,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님, 김용복 박사님은 따뜻한 진지 한 끼 대접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은 채, 아니, 나는 아직 그럴 가룩한 정성조차 제대로 가져보지 못했는데 우리 곁을 떠나셨다. 그 사랑,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여야 할까? 나는 누구를 청하여 워커힐 중식당에 가서 코스요리를 시켜주고, 기죽지 말라고 격려하고 ‘그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한 존재’임을 일깨워주기 위해 내리환대의 파격적인 거룩한 낭비를 쏟아 부을 것인가?

그 큰 사랑 너무 크시기에, 떠났어도 떠나지 않은 인자하신 얼굴과 목소리를 생각하며 내 마음 속 님의 존영에 꽃송이 올려드리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지켜갈 결심을 바치면서 어눌하기만한 입술 열어 이렇게나마 뒤늦은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박사님, 사랑합니다. 많이많이 사랑합니다. 하여 이렇게 보내드리지만, 보내드려도 보내드리지 않는 제 마음 아실 것이오니, 앞으로도 저 빼놓지 말고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더 많이 배우고, 그 가르침 두고두고 새기며 따르겠습니다.♡♡♡

## 고 김용복 박사님 장례식장에서<sup>12)</sup>

홍인식 <에큐메니안> 대표

평생 예언자로 민중으로 꿈꾸는 영원한 청년으로 사신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별세 소식을 듣는 순간 지리산 피아골에서 자주 보였던 선생님의 모습이 생각나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 땅과 교회는 예언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눈물이 납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고 김용복 박사님, 선생님 영정 앞에서 다시 옷깃을 여밉니다. 다시 일어나 가던 길에서 발걸음을 다시 힘차게 옮기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선생님 고 서광선 박사님을 추모하기 위해 갑니다. 선생님들이 가셨습니다. 한 시대가 갑니다.

문득 지리산 피아골에서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고성기 목사가 생각납니다. 고 김용복 박사님을 선생님이 모시고 꿈을 꾸던 젊은 목사였는데 .... 고성기 목사가 그리워집니다.

천국에서 그리운 선생님 김용복 선생님과 만났겠지요. 그리고 거기서도 함께 또 꿈을 꾸겠지요... 그리운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나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겠지요.

12) 홍인식 박사님(전 NCCK 인권센터 이사장, 전 순천중앙교회 담임목사)의 페이스북에서 [https://www.facebook.com/insikhong\(2022.4.8\)](https://www.facebook.com/insikhong(2022.4.8))



# 세계교회협의회(WCC) 애도의 메시지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깊은 슬픔을 느끼며 세계교회협의회(WCC)를 대표해 고 김용복 목사님의 서거에 애도를 표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WCC 회원교회 공동체는 그의 유족과 대한예수교 장로회(P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은 헌신적인 에큐메니스트로서 에큐메니컬 운동에 지칠 줄 모르고 충실히 봉사하셨습니다. 한국의 저명한 민중신학자 중 한 명인 김 박사님의 에큐메니컬 교육에 대한 기여는 젊은 학생들을 위한 신학연구소를 여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지난 수십 년간 박사님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는 WCC의 개발위원회(CCPD)의 부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1990년 서울에서 열린 “정의, 평화, 그리고 창조세계의 보전(JPIC)” 세계대회를 조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88선언의 초안 작성자 중 한 사람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그의 공헌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삶과 증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용복 박사님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평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충직하고 사랑받는 종 고 김용복 목사님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영혼이 평안히 잠들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희망에서 위로와 자신감을 찾기를 바랍니다.

총무대행 요안 사우카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o: Mrs Marion Kim,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With deep sadness, I write to express condolences on behalf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at the passing of Rev. Prof. Dr Yong~ Bock Kim. The fellowship of WCC member churches grieves together with his bereaved family,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and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Dr Kim was a committed ecumenist who served the ecumenical movement tirelessly and faithfully. As one of the prominent minjung theologians in Korea, Dr Kim's contribution to ecumenical education was crucial in developing the idea of holding theological institutes for young students.

The WCC had the privilege of working very closely with him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He served as vice~ moderator of the WCC's Commission for the Churches'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He also played a key role in organizing the WCC's convocation on “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 in 1990 in Seoul.

As one of the drafters of the NCCK's 88 Declaration, we also deeply appreciate his contribution to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e thank God for the life and witness of Rev. Prof. Dr Yong~ Bock Kim as he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peace process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May our common Lord Jesus Christ, the Lord of life and resurrection, give rest to his faithful and beloved servant Rev. Prof. Dr Yong~ Bock Kim.

May his soul rest in peace, and may we all find comfort and confidence in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to eternal life.

Yours in Christ,  
**Rev. P rof. Dr Ioan Sauc**  
Acting General Secretary

# 세계개혁교회커뮤니온(WCRC)

## 애도의 메시지

### 주 안에 사랑하는 김매련 여사님과 류영모 총회장님께

김용복 목사님의 서거 소식을 접하게 되어 매우 애통합니다. 그는 가장 억압받는 이들의 염원과 희망을 분명하게 표현한 신학자이자, 수많은 에큐메니컬 운동의 여정을 함께 한 멘토, 그의 겸손과 정신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 친구로 감사히 기억될 것입니다.

개혁 신앙에서 배출된 신학자로서 아시아 신학, 특히 민중신학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친교(코이노니아)와 그것이 한국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적인 맥락에서 개혁신학을 새롭게 그려냈습니다. 그의 사역은 아시아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래로부터 행동하는 신학을 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은 억압받는 자들의 관점을 이끌어내었고, 아시아 신학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격려했습니다.

그의 신학적 비전은 사람들의 투쟁에 대한 헌신으로 특징지어졌고 나타났는데, 그 자신도 동참했던 투쟁이었습니다. 그는 헌신적인 신학자에게 '감옥은 제2의 고향이다!'라는 사실을 자주 말했습니다. 그것이 인권, 존엄성, 그리고 충만한 생명에 대한 그의 깊은 헌신이었습니다.

이 신학적 비전은 또한 그 당시 세계개혁교회연맹(WARC)로 알려졌던 세계개혁교회커뮤니온(WCRC)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개혁교회연맹) 신학부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개혁교회 공동체에 많은 통찰력과 비전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세계 에큐메니컬 가족과 특히 우리 세계개혁교회커뮤니온(WCRC)에 큰 손실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애도를 표하며 앞으로도 용기 있게 일하여 그의 비전과 열정, 헌신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공동 총무단 **한스 레싱 / 필립 비노드 피콕 / 필 테니스**

Dear Ms. Marion Kim, Rev. Young Mo Roo, Beloved in Christ,

It is with great sorrow that we received the news of the passing of the Rev. Dr. Kim Yong-Bock. He will be gratefully remembered as a theologian who articulated the aspirations and hopes of the most oppressed, a mentor who journeyed along with so many in the ecumenical movement, and a friend who made the world a better place through his humility and his spirit.

An outstanding theologian who drew from the Reformed faith he was a pioneer of Asian theology and particularly Minjung theology. He reimagined Reformed theology in the Korean context speaking of Koinoni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ople. His work served to inspire so many people across Asia and the world. His passion from doing theology from below, raising up the perspectives of the oppressed, re-invented Asian theology and encouraged a deeper engagement with God's people.

His theological vision was marked by and emerged from a commitment to the struggles of people. A struggle that he himself participated in. He often spoke of the fact that for the committed theologian 'jail was a second home!'. Such was his deep commitment for human rights, dignity, and life in its fullness.

This theological vision was also brought to the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or the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as it was then known as. He served as the moderator for the Theology programme. During this time, he brought much insight and vision to the work of the Reformed Communion.

His passing is a great loss to the global ecumenical family and for us in the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in particular. We offer our prayers and condolences and will continue to work courageously, so that his vision, passion, and commitment will be continued.

With deepest sympathies,

**Hanns Lessing / Philip Vinod Peacock / Phil Tanis**

Collective General Secretariat

---

## Rev. Dr. Kim Yong-Bock - A Tribute

---

###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the Philippines(NCCP)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the Philippines (NCCP) mourns with the ecumenical movement worldwide over the passing over of the Rev. Dr. Kim Yong-Bock, an eminent Asian theologian of depth and significance. He has pioneered the Minjung Theology, which together with the Dalit theology of India and the Theology of Struggle here in the Philippines, formed a reading and appreciation of theology that seriously took its context seriously as the ground and basis upon which doing theology must be done.

His accompaniment and solidarity with us in the Philippine struggle for human rights, justice, peace, and the struggle and fight for democracy in the light of Martial Law and one~ man rule are forever etched in our heart and in our minds. We are forever grateful to his friendship and wise counsel as well as his incisive theological reflection and analysis.

I had the pleasure of inter~ acting with him when we were having a theological consultation that worked on the theme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ssembly at Busan, Korea. And prior to an online meeting for the Peace for Life Board late last year, Bishop Rex Reyes, former NCCP General Secretary and I, had conversation with him on the COVID pandemic. He critiqued the injustice seen in the gaps of accessibility between rich and poor nations; as well as the huge economic profit of the big pharmaceuticals. Very much characteristic of him, during the conversation, he shifted to ask us of how our advocacies for justice and human rights in the Philippines is, especially among the indigenous peoples.

In the final decade of his life, his theological focus was directed at what he described as “con-

viviality of life,” the “OIKONOMIA CONVIVENCIA” which ties together the ecumenical agenda of 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even as the world struggles against the hegemonic control of the Empire.

The NCCP has lost a great friend of the Philippine ecumenical movement in the Rev. Dr. Kim Yong-Bock but his theological thoughts and articulations will be a light that shines on our path to full human and ecological transformation reflective of the “new heaven and new earth” we long and struggle for.

For the NCCP:

**Bishop Reuel Norman O. Marigza**

General Secretary

---

## A Global Ecumenical Giant has Slept.

---

**Agnes Abuom** WCC /CC Moderator

To the family, the PCK, ecumenical friends in South Korea accept our condolences. Today we gather in sadness because of the departure of our fellow ecumenical pilgrim on whom the sun has set.

The Rev. Dr. Prof. Kim Yong-Bock was a global pilgrim. He worked tirelessly for just peace. His vocation was to secure total life lived in dignity. He cared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based on wholesome inclusivity. Prof. Kim Yong-Bock mentored many in the fellowship. ... Through the WCC, Advisory Group on Economic Matters, professor walked me the ropes. The same for peace issues! A committed son of the ecumenical movement and ecumenism in South Korea, Asia and the worldwide fellowship of churches. He trained and exposed many young people not least from Kenya. A genuine, honest, selfless and visionary ecumenist. You have laid down your tools our dear icon, We had no time to say goodbye. Your works will remain our memorial of you! Your contribution to the various WCC committees will be forever remembered as contained in the councils annals. For me and colleagues in Africa you leave many historical marks. We pray to continue what you left and even step up the efforts. Go well my big brother and hope to meet up yonder!!! Forever in our hearts.

---

## Memories with Dr. Kim Yong-Bock

---

**Philip Mathew** WCC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 위원장, India

Dr Kim Yong-Bock was an important resource person at the Asian Ecumenical Course (AEC) organized by the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CCA) in Seoul in 1985. As an AEC participant, I felt Dr Yong~ bock's presence and presentations at the AEC very enriching and inspiring. That was the first time I met him. I found him to be a very kind and composed person. He was also very unassuming inspite of being a renowned Minjung theologian and scholar.

After the AEC, I had the opportunity of meeting him again at different Ecumenical events. What attracted me was his simplicity and compassion.

He was also very concerned about others. I remember the warm welcome and hospitality he gave me when I went to see him at his office in Seoul in 2006. He showed lot of interest in knowing what I was doing and my plans, he went to the airport to catch his return flight home.

I hoped that we will cross our paths again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But, that was not to be. The news of his passing on came as a big shock. I will always remember him as a great teacher and guide who inspired hundreds of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e contributions he has made to Minjung Theology will remain alive for many generations to come.

---

## In Memory of Dr. Kim Yong-Bock, A Great Supporter of Palestine

---

**Nidal Abu Zuluf** Director, The Joint Advocacy Initiative, Palestine

It is very much relieving to be a friend of someone who can help you see the way forward and think in constructive way about life, future and about the way forward; a person who played the role of a mentor for many and made every effort to bring people together to resist the empire and its dominance.

For me, Dr. Kim Yong-Bock was a great ecumenical theologian who was deeply involved in his people's concerns and made many efforts to work for justice for Korea and who showed much dedication to work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r. Kim knew why people everywhere suffered or still suffering. He has his way of making the analysis of the empire which is the main reason behind global political instability and the oppression and injustices everywhere. He was clear in calling for the end of the yoke of this empire through bringing peoples together.

in 2007, I was honored and privileged to start working closely with Dr. Kim through "Peace for Life" organization during my participation in the Peoples Forums organized in Palestine and in Colombia, to advocate for justice and end of oppression in these two countries.

Dr. Kim was a great supporter of Palestine. He had the Palestinian people and Quest in his heart, and it was always a key topic in all the global discussions he had within the ecumenical family and in Peoples' gatherings.

In 2017 he insisted to bring the South African and the Palestinian experience of resistance to Japan and Korea. I was lucky to be the Palestinian representative in that tour we had in Japan and Korea addressing the issue of the nuclear power plants. In that tour I felt that we are all in need to develop a global strategy to resist all those who profit from violating human rights. He promoted

and worked for such a strategy.

Dr. Kim was an active member in the Inter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 of the Global Kairos for justice Coalition representing Asia and the Pacific. His input was meaningful and helped show the future direction of this Coalition. He also served in the theological group of this Coalition

I met Dr. Kim many times in Palestine, Korea, Japan and Colombia in many conferences in person and online, and every time we met, I learned more and more from him and from his wisdom and experience. I can say that he was a real leader for me

I would say that Dr. Kim introduced me to Korea and helped me learn about the Korean people and Korean history and to find what is in common between Palestine and Korea. On many occasions, I had the opportunity to meet many Korean delegations including the delegation from Hanshin University led by him and Mr. Yunhee Lee when they celebrated the partnership developed with Bethlehem University in 2018, that I proudly was involved in

Dr. Kim was a committed human being and very genuine with a great sense of humor. I and my family enjoyed meeting him in Palestine. He was also a good supporter of my daughter Bana when she was doing her post-graduate studies in Korea. She always expresses her great appreciation for that

I will miss you Dr. Kim whenever we gather to talk about justice and whenever I think of the Korean people and Korea that I love. But I will definitely see you and will feel your presence whenever I see your students, and any friends from Korea and whoever we talk about justice and peace.

I will be holding your vision in my mind and fight for it in all my engagements, so we might "live life in its fullness" as you always repeated

May you rest in power and in eternal peace.

---

Dr. Kim Yong-Bock

## - The radical prophet, teacher, and mentor

---

**Ranjan Solomon** A Palestine justice activist and a human rights activist, India

My encounter with Dr Kim Yong-Bock began with readings on Minjung Theology when I had begun my work with the Asia Pacific Alliance of YMCAs. It was a moment in the life of the Asian YMCAs when YMCA horizons were shifting from youth welfare activities into new paradigms of work with a justice perspective. During our multiple training and study programmes that we began to understand how and why theology must be studi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ppressed and the excluded.

The emergence of Minjung theology coincided with the launch and growth of liberation theology under the dictatorships in Latin America. Minjung theology followed a similar strand in many ways. But it also challenged classical liberation theology because theological pioneers such as Dr Kim Yong-Bock wanted liberation theology to be situated not only within the framework of justice perspectives but also within the cultural traditions of Asia. For Dr Kim Yong-Bock, a religion that excluded the socio - economic - political - cultural context as one amalgamated body of life-giving that could advance justice, risked being an empty space. Clearly Dr Kim Yong-Bock sought a theology that was indigenous to Korea.

Minjung theology emerged in the 1970s from the experience of South Korean Christians in the struggle for social justice. Dr Kim Yong-Bock charted the course of Minjung theology as a people's theology, and, "a development of the political hermeneutics of the Gospel in terms of the Korean reality." Political theology, thus, took its root in Asia and progressed within Asia. In the Philippines, people wrote on 'Peasant Theology' "challenged and inspired by the hypothesis of Minjung

Theology. Dr. Kim Yong-Bock and a group that he emerged as the rallying base for challenged the theological imagination of a generation of theologians that followed- not just in Korea but within the Asian region. That search for a critical expansion for new expressions of theological exploration has intensely continued since the 1970s. Dr. Kim Yong-Bock in his gentle, yet, effusive manner, carried the torch for a liberative kind of theology, and lit the way for generations that followed.

The emergence of Dalit theology also coincided with the ideas that shaped and influenced Minjung Theology. I recall an important initiative in 2009 titled "Dalit Minjung theological dialogue: on being a new community and ecclesia of justice & peace; in the globalized local context of dalits & Minjung theological and Biblical perspective on the mandate, motives and movement of Christian mission." Dr. Kim Yong-Bock's theological explorations moved even beyond theological margins. His keen political insights, saw him pioneer multiple organizations one of which was the 'Peace for Life'. He played a leading role in creating the People's Forum on Peace for Life, a faith-based movement and forum for peace and justice, engaged in building interfaith solidarity and mobilizing the power of spirituality against the life-threatening forces of global hegemony. The People's Forum on Peace for Life was composed of people of faith of the global South - Asia-Pacific, Middle East, Afric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along with its partners from North America and Europe, coming together as Peace for Life, an interfaith movement resisting empire, state terrorism and militarized globalization, and promoting life-enhancing alternatives.

Clearly, Dr. Kim Yong-Bock was rooted in the struggles of the Korean people but his wisdom and breadth of the love for global justice took to the wider Asia-Pacific region and to the Global South in particular. He was one of the champions of the ongoing struggle for justice, freedom, and liberation of the Palestinians.

He was also instrumental in founding and guiding the Global Kairos Asia Pacific Palestine Solidarity (GKAPPS) and was its Chair. Under his leadership, GKAPPS explored a number of political issues in the Asia-Pacific region while reflecting on them from a theological perspective. He then called GKAPPS to work together as Asian and Pacific theologians for a four day conference around the theme: "Embracing solidarities through sharing stories of struggle against Empire". He left us before the event but the event contained a remarkable tribute to his life and work. His vi-

sion pervaded the event as a whole and one knows his presence would have added dimensions to the process. The conference defined its goals as the search for the unity of a multi religious group from around 21 countries who would rally religious communities and civil society movement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around the Globe to act decisively to address the brutal and horrific situations of Nakba that the Palestinians have been facing for more than seven decades. In a way, GKAPPS will always be driven by his vision for a distinct Asia-Pacific.

Two central ideas gripped Dr Kim Yong's mind and political-theological processes. The notion of Conviviality was one of these. This, to him, is the ability of individuals to interact creatively and autonomously with others and their environment to satisfy their collective aspirations. The other was the idea was that GKAPPS should be a continuous growing 'circle of prophets'. By this he was suggesting that people who care and about a just world and who challenge domination by empire must act to represent the notions of totality, wholeness, original perfection, the Self, the infinite, eternity, timelessness, all cyclic movement, God. In other words, as he once defined it to me, 'God is a circle whose centre is everywhere and whose circumference is nowhere'. Dr. Kim Yong-Bock has passed on to another world that needed him too. He is still with us in his thoughts, ideas, and challenges. He will live forever.

## 김용복 박사님의 타계를 애도하며

사와 마사유키 목사, 동아시아평화센터 후쿠오카 이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12장24절)

주님의 수난을 생각하게 되는 계절에 존경하는 김용복 박사님의 타계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2019년 동아시아평화센터 후쿠오카가 출범할 당시, 선생님께서는 단체의 비전과 함께 대한예수교 장로회 과건의 에큐메니컬 평화선교사 황남덕 목사라는 이곳에서 사용될 그릇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센터의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지금,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 것은 선생님의 기도와 비전이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지고, 남겨진 우리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金容福博士の死去を悼んで

「はっきり言っておく。一粒の麦は、地に落ちて死ななければ、一粒のままである。だが、死ねば、多くの実を結ぶ」  
ヨハネ福音書 12章 24節

主の受難を覚えるこのときに、尊敬する金容福博士の死去の知らせを受けて心から哀悼の意を表します。

2019年に東アジア平和センター・福岡が発足するにあたり、先生は、そのビジョンと、大韓イエス教長老会派遣のエキュメニカル平和宣教師であるファンナムドク先生という、そこで用いられる器を備えてくださいました。同センターの活動がいよいよ本格化し始めようとする今、先生が世を去られたのは、先生の祈りとビジョンが一粒の麦となって地に落ち、残された私たちにおいて豊かな実を結ぶためであったと信じます。神様に栄光がありますように。

東アジア平和センター・福岡を代表して 理事 澤 正幸 牧師

# 김용복 박사님을 회상하며

기무라 코이치 한일반핵평화연대 공동대표, 목사

2016년 10월25일, 김용복 박사는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세이난학원대학에서 ‘아시아 민중신학의 오늘의 전개: 공생을 위한 평화에 관한 공통의 전망을 목표로-어떻게 여러 신앙/신조의 집합일치(convergence)가 아래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은 ‘생명의 이야기-narrative-Zoography’를 말씀하시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저의 출생지는 서와 동서 문명 충돌의 역사적 컨텍스트에 있어 민중에 뿌리를 둔 메시아적 불교운동, 즉 소승불교의 문화를 뿌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곳은 동학농민혁명과 근대 민중의 해방을 위한 저항운동의 중요한 근거지이자 민족자결과 독립의 발상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땅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제 치하를 견뎌냈고, 나아가 한국전쟁과 냉전의 격전지이기도 했으며, 오늘날 세계화의 상황 속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분열국가로 고착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지식인의 거인이신 김용복 박사님을 잃었습니다. 박사의 지식은 항상 미국과 러시아의 핵 패권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세계를 향했고, 그 시선은 합천의 피폭자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민중의 신학’을 토대로 사회적 생명학(Zoography, 생명의 이야기)을 확립한 박사는 “핵 패권, 이것이 반핵평화운동의 중심 문제입니다.”라고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Zoography’의 이야기이며, 모든 생물은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명의 지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 생명의 생물학적 이해, 환원주의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생명이야기는 생명사의 해석학적 틀로 확립되어야 한다.”

이처럼, 역사를 독특한 사회생물학적 해석학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상을 얼마나 이해하고 자신의 사상으로 만들었는가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복 박사의 신학적 생명사상은 언제나 우리의 행보에 대한 물음이자 도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 金容福博士を偲んで

木村公一 牧師, 日韓反核平和連帯 共同代表

2016年10月25日、金容福博士は、日本の福岡にある西南学院大学で「アジアにおける民衆神学の今日的展開: 共生のための平和に関する共通の展望に向けて—いかにして諸信仰/信条の集合一致 (convergence)が下からの平和を造りだすことができるか—」と題される講演をしてくださいました。冒頭で次のような「いのちの(na)物語り(rative)」(Zoography)を語ってご自分を紹介されました。

私の出生地は、西と東の文明的な衝突の歴史的コンテキストにおいて民衆に根ざしたメシア的仏教運動、すなわち、小乗仏教の文化をルーツになっています。それは東学農民革命と近代における民衆の解放のための抵抗運動の牙城であり、民族自決と独立の発祥の地でもありました。その地は、第二次世界大戦時の日帝支配にも耐え、さらに朝鮮戦争や冷戦の激戦地でもあり、今日の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の状況の中で、今に至るまで分裂国家が固定化され続けています。

私たちは、東アジアの「知の巨人」金容福博士を失いました。博士の知は、常に米口の核覇権によって支配されている世界に向けられ、その眼差しは、ハプチョンの被爆者たちに注がれていました。

「民衆の神学」を土台として、社会的生命学 (Zoography=いのちの物語り)を打ち立てた博士は、「核覇権、これが反核平和運動の中心問題です」と、繰り返し私たちに語っておられました。

生命は「ゾーグラフィア」の物語であり、すべての生き物はいのちの物語です。私たちはこれを「ゾーソフィア(生命の知恵)」と呼ぶことにしました。私たちは、生命の全体的な理解に基づいて、現代の生命の生物学的理解の還元主義を克服しようとしています。したがって、生命の物語は、生命史の解釈学的枠組みとして確立されるべきである。

として、歴史をユニークな『社会生物学的解釈学』として捉えたのでした。私たちがこの思想をどれだけ理解し、自らの思想にできたかは、今後の課題であると思います。金容福博士の神学的生命思想は、つねに私たちの歩みへの問いかけであり、挑戦であり続けるでしょう。先生、さようなら。Ω



---

## My Steadfast Mentor and Friend

---

**John Y. Jones** 다그 함마숄드 재단 사무총장

It is so sad to know that my dear friend through so many years now is left only to our prayers and God's mercy. He is in my thoughts and prayers constantly.

You know, of course, that Kim Yong-Bock has been my steadfast mentor and friend since we met through the WCC's Peace for Life~ work in the 90ties and invited me annually, ever since, to come to South Korea as part of our joint engagemen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orld wide. Je Jju, Gwangju, Hwacheon are zenits in my life. But I have hardly had any solidarity or anti~ imperialist engagements the last 20 years, that has not been influenced and inspired directly or indirectly by Kim Yong-Bock. He is not only a thinker and a man of God, a true disciple, he is first of all a doer. Kim Yong~ Bock makes good things happen. He moves mountains.

At the Dag Hammarskjöld Peace Park at Voksenåsen "Time for Peace"~ belfry in Oslo, we will have a physical expression of Kim Yong-Bock's life~ long and world wide care for and pursuit of World Peace.

To me, however, Kim Yong-Bock is first of all a genuine friend.

Please bring these words to his dear wife and children.

With warm regards

---

## In memory of Reverend Kim Yong-Bock

---

**Franca Guglielmetti** President of CADIAI Cooperative

**Rita Ghedini** President of Legacoop Bologna

**Lara Furieri** Responsible for Educational Area of Cadiiai

**Angelo Fioritti** Former 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Mental Health AUSL Bologna

**Alceste Santuari** Department of Sociology and Economic Law University of Bologna

Dear Friends of the International Jubilee Foundation, we have learned the sad news of the passing of Reverend Kim Young~ Bok, whom we were privileged to meet and appreciate during our 2019 visit to Seoul.

His figure has left a deep mark in our hearts. His enlightening, austere and serene presence conveyed to us a message of confidence in the capacity of men to cooperate for the liberation of oppression, with a special focus on those living in states of deprivation of suffering.

With simple words he managed to transfer us the deeper meaning of the Minjung theological vision, a precious gift that we will keep forever.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condolences to his wife, Mrs Marion Kim, to his family, to the Korean churches, and to all those who share the mourning of his passing.

---

In memory of Reverend  
**Kim Yong-Bock**

---

**Franca Guglielmetti** President of CADIAI Cooperative

It is with great sadness that we learn of Professor Kim's death. Having known him was a great gift for all of us, and we were able to appreciate his passion, his humanitarian vision inspired by peaceful coexistence and harmony among people and in the world.

He left his mark on all of us, and for this reason we wish to express our gratitude at this time, and to share our condolences for his passing with his entire community.

With affection, on behalf of the whole CADIAI Cooperative,

Remembering a teacher, mentor, friend  
**- Rev. Dr. Kim Yong-Bock**

**Hope Antone and Chan Beng Seng** Asia and Pacific Alliance of YMCAs

*Hope Antone and Chan Beng Seng recall their memorable encounters as participants of various programs where the Rev. Dr. Kim Yong-Bock served as a resource person, then as students at the Third World Church Leadership Center (TWCLC) in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in Seoul, Korea.*

*Hope Antone's first encounter with Dr. Kim Yong-Bock was when she was sent by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the Philippines to participate in the 1985 Asian Ecumenical Course (AEC) of the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CCA) in Seoul, Korea. As 1985 was the CCA Assembly year, the AEC participants from various member churches and NCCs were also invited as observers of the assembly*

Dr. Kim Yong-Bock was among the Minjung theologians who served as resource persons at the AEC. Hope's exposure to Minjung theology inspired her to pursue her MTh studies at the TWCLC. When she returned to Korea for studies in 1986, Dr. Kim Yong-Bock was the director of the TWCLC.

The TWCLC offered a unique graduate theological program that brought minjung theology into dialogue with other fields and theologies. Dr. Kim invited other minjung theologians within Korea to teach some courses. He also invited renowned theologians and biblical scholars from other parts of the world. Hope remembered attending all classes and talks by the New Testament scholar and Interpreter's Bible editor, Bruce Metzger.

Hope learned from Dr. Kim that minjung theology was an attempt at doing contextual theology in Korea.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eparation of familie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the ideological fear of the people, were part of the "han" (deep sadness, sorrow, bitterness, grief and regret) that surfaced in minjung theology. Dr. Kim's challenge to the TWCLC students was this: As scholars and theologians from Asia, the Pacific, and Africa, it was (and is) our responsibility to identify with the minjung (the oppressed) in our respective communities, and together work with them for

the transformation of our societies.

Hope had many more opportunities to learn from and work with Dr. Kim Yong-Bock when she served on the staff of the CCA. Dr. Kim Yong-Bock was a resource person in many programs of the CCA and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In those different occasions, Dr. Kim Yong-Bock shared his vision and passion for an ever transforming world, characterized by a life of conviviality not only for humanity but for all creation. Throughout his life, Dr. Kim Yong-Bock demonstrated what it is to be rooted locally, yet working globally; immersed in domestic issues but committed to cosmic concerns. Hope is grateful for having learned from a great ecumenist such as Dr. Kim Yong-Bock.

\*\*\*\*\*

Chan Beng Seng first met Dr. Kim Yong-Bock in 1984 when he attended the Asia Youth Assembly (AYA) of the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in New Delhi, India. This was held back-to-back the one-month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program of the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Asia-Pacific Region. Fresh out of theological college in Singapore, Beng Seng found the HRD and AYA, where Dr. Kim was the assembly keynote speaker, a life changing experience that helped set the direction of his ecumenical journey in the years that followed.

Two years later in 1986, with the support of WSCF and CCA, Beng Seng enrolled for the MTh program at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in Seoul where Dr. Kim was the director of the Third World Church Leadership Center. At the TWCLC, Dr Kim curated a very unique MTh program assembling an impressive team of renowned biblical and theological scholars from Korea and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Beng Seng was very fortunate to learn from these scholars.

As the Youth Secretary of the CCA, Beng Seng developed the one-month “Reading the Bible Through Asian Eyes” workshops for seminary students in Asia, together with Dr. Kim Yong-Bock and Dr. Dhyanchand Carr. These two theologians were resource persons at several of these workshops and Dr. Kim hosted one of them when he was the President of the Hanil Theological Seminary. Dr. Kim said, “The journey of many ecumenical leaders began with workshops such as these”.

One unique attribute of Dr. Kim was his ability to articulate and link theologically many seemingly secular social issues. He also had the penchant to create new words to express these connections, e.g., his latest reflections on oikozoe.

Dr. Kim was also very involved with the people’s movement through the Urban Rural Mission. He was the first research director of the Documentation for Action Groups in Asia that was based in Japan at that time.

Beng Seng’s encounters with Dr. Kim continued over the years through many ecumenical meetings and conferences. Their last in-person encounter was in Hong Kong when he came as a resource person for the Advanced Studies Program of the Asia Pacific Alliance of YMCAs in 2018. Beng Seng is grateful to have worked and collaborated with Dr. Kim on several projects over the years.



# 생명운동 :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모색<sup>13)</sup>

김 용 복

흔히 “생명운동”은 환경운동, 생태운동, 생명윤리 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시민사회운동으로 일컬어져 왔다. 그러나 생명운동은 보다 포괄적으로 統率的, 통합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명운동은 생명에 대한 다양한 위협을 동시에 그리고 다 함께 극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0세기에 우주의 생명은 총체적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고 21세기에 와서 이 위기는 더 심각하여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체의 생명보전을 위하여 문명을 일으켰다. 문명사는 인간의 生命歷史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생명역사, 생명문명사는 인간의 생명이 우주의 생명체에 긴밀히 연관되고 의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체중심적인 문명의 전개에 따라 우주의 생명체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생명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문명을 주도하는 주범이 되어 버렸다. 역설적인 것은 인간이 자체의 생명을 보전하고 풍요롭게 하는 노력이 오히려 인간 자체의 생명까지도 총체적으로 위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新天新地)에 생명의 정원 살림을 새롭게 일구는 일을 위하여 새 생명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면 “새 문명의 기틀”을 구상하고 이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여 생명을 살리는 새 우주의 비전을 꿈꾸고 이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 최근 역사적 운동사를 돌아본다.

인류는 문명사를 오래토록 존속시켜 왔다. 이 문명사는 흥망성쇠를 이어 왔고 문명사이 충돌과 융

합을 내포하였다. 그러나 근세에 와서 인류문명사는 서양문명과 동양문명 그리고 다른 문명과의 침투, 충돌 그리고 대결, 나아가서는 서로 융합하는 것을 경험하였다.<sup>14)</sup> 서양문명은 충돌과 대결의 과정에서 동서양의 문명사적 지평은 수평적으로 융합되고 역사적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우주 모든 생명체가 생명의 위협을 함께 직면하고 있다.

1. 조선 말기 우리 민족은 동학운동을 전개하였다.<sup>15)</sup> 종교사상적 융합을 토대로 새 종교창조운동이었다. 동시에 조선의 사회경제와 정치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서구문명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한 “후천개벽”의 농민운동, 민중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민족의 종교적, 사상적, 문화적 지혜를 전수 받으면서 조선말기의 농민운동과 개혁적 지식인운동을 한데 아울렀다. 이것은 통전적 운동이었다.

2. 우리 민족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소용돌이 속에서 민족의 생존과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민족운동을 태동시켰다. 우리 민족운동은 주변 강대국 (중, 일, 러, 서양(영미) 제국의 식민지 확보와 지배의 야욕을 직시하면서 민족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척사, 개화, 의병운동 등의 민족운동을 일으키고, 제국의 식민세력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민족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민족독립운동은 3.1 기미독립운동에서 민족사의 축을 전환하는 변혁운동의 비전을 확보하였다. 동학, 불교, 유교, 민중종교, 기독교 신앙인들이 공히 민족사회의 새 비전을 추구하면서 “조선조의 회복”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아~ 안전에 신천지가 전개하는 도다”라고 천명하였다. 이것은 세계 제 일차대전 직후 역사변혁을 추구하는 세계사적인 기운에 순응하는 것이었다. 이 운동은 정치사적으로는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신사 내지는 정치문화사적으로는 “새로운 민족정치공동체”를 꿈꾸었던 운동이었다.<sup>16)</sup>

3. 1917년 소련에서 볼셰빅 사회주의 계급사회혁명이 일어났다. 이것은 서방 자본주의 산업혁명에 대한 대 반격이었다. 이 계급혁명운동은 우리 민족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 독립운동은 민족운동의 중추에 사회혁명을 도입하였다. 3.1 운동 이후 우리 민족독립운동은 음으로 양으로 새로운 사회적 비전을 내포하게 되었다. 이것은 1930년 전후에 강력하게 표출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월남, 중국, 동부유럽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강력하게 작용하였다.

14) Arnold Toynbee, The World and the West.

15) 19세기 중국에서는 태평천국농민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우리조선의 동학운동과 비슷한 점이 많다. 일본에서는 명치유신이라는 위어서부터 아래로의 혁명적 사건이 벌어 졌다. 동학운동은 적어도 아시아적 축을 가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16) 3.1운동은 세계 제 1차 대전이후 유럽(아이랜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인도 등 세계적인 차원에서 민족자결과 세계평화라는 비전이 표출된 세계사적인 궤도를 가지고 있다.

13) 김용복, 한국생명학대학원장, 2004년 11월 12일~ 14일, 세계생명평화포럼

4. 3.1 운동 이후 일제는 문화적 동화정책으로 민족의 의식을 식민지화하고 민족의 혼을 앗아가려고 하였다. 민족의 문화, 예술은 외형적으로는 일제에 의하여 장악되었던 것처럼 보이나, 우리민족은 이러한 맥락에서 민족교육, 민족문화예술운동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런 문화적 동화정책은 세계의 모든 식민지에서 전개되었다. 민족문화적 저항운동은 우리 민족문화사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다.

5. 우리 민족은 사회경제적 정의를 축으로 하는 공산주의사회는 북쪽에 형성되었고, 남쪽에는 자본주의사회가 구성되는 민족분단의 비극적 역사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민족은 민족의 통일운동을 전개한다. 우리 민족은 1930년 전후에 싹트는 이념적 통합운동에 이어 세계이차대전 직후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한 통일운동을 가슴에 품는다. 그러나 전후 세계지정학적, 이념적 양극화는 민족의 “하나 되려는 꿈과 의지”를 압살한다. 그러나 이 꿈과 의지는 아직도 우리민족 역사와 민족사회 안에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문화운동은 모든 식민화된 국가들에서 전개되는 문화적 저항운동이었으며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과 창조성을 확보하는 운동이었다.

6. 우리민족은 경제의 산업화(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도모한다. 서구 근대의 과학기술혁명을 전제한다. 이것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전개되는 근대화(Modernization)운동이었다. 이 근대화는 식민지에서 독립된 국가들이 자주 독립을 위한 근대국가건설, 근대산업경제건설을 위한 혁명적 과제이었다. 그러나 우리 남한에서는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 전쟁을 경험하였고, 이 연속으로 미국의 후견 아래 군사주의 독재에 의한 산업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한 꿈을 가슴에 파묻고 살아야 했다.

이에 대응하여 인민/시민의 주권을 위한 인권, 민주화운동을 하였다. 이것은 정치적 민주화(인권)와 사회정의(민중의 사회적 권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운동이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7. 인권/사회운동의 한계는 70년대 여성운동이 노출시켰다. 60년대에 일어났던 인종차별 철폐운동과 더불어 여성운동은 인권과 사회운동은 성의 정의(Gender Justice)를 내포하지 않는 한 진정한 해방을 이룰 수 없다는 자각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인권, 여성민중의 사회적 권리, 가부장체제와 문화의 철폐는 우리운동의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 운동은 아마도 .사회계급 철폐운동과 더불어 가장 보편적인 운동의 지평일 것이다.

8. 1970년대 초 아시아의 국가들이 산업화의 꿈을 부풀리고 있을 때 세계경제는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자연자원(석유 등)의 고갈과 생태계의 파괴라는 문제를 인식하면서 부터이다. 여기서 산업화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이 상황에 대응하여 생태계의 파괴와 산업경제의 지속불가능성을 우려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한때 개발도상국가들과 그 시민들은 이 상황을 서방 선진국가들의 업살이고 개발도상국을 압박하는 핑계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늘 생태계의 문제는 인류와 생명체들의 존속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이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다.

9. 그러나 우리는 절박한 문제를 민족통일과 평화에서 보았다. 우리민족은 민족통일과 전쟁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통일과 평화를 실현하지 않고는 인권도 사회정의도 실현할 수 없다는 자각 아래에서 민족통일과 한반도 평화운동에 몰입하게 되었다. 이것이 1980년대 90년대 운동의 맥이었다. 이 운동은 냉전체제를 극복하려는 세계적 평화운동과 맥을 같이 하였다. 분단된 독일에서 강력한 평화운동이 일어났고,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냉전체제의 극단적 대립을 완화하려는 공존체제(Co~ Existence)에로의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는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다. 오늘 우리의 통일과 평화운동은 새로운 차원에서 조명되고 새롭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10. 오늘 우리는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총체적 지구화(Globalization)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70년대 세계경제는 석유자원의 폭등으로 인한 금융자본의 형성으로 말미암아 투기 자본화(Speculation of Capital)한다. 또 냉전체제 해체 이후 세계는 하나의 지구시장체제를 통합구축하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지구화의 과정은 과학기술화된 세계계자본의 추동뿐만 아니라 일극체제 속에서 지정학적 헤게모니를 비롯하여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The Empire)의 출현을 경험하고 있다. 이 제국은 지구시장의 안보라는 명분으로 절대적인 군사제패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적 상황에서 지금까지 운동사에서 경험되었던 것들이 총체적으로 합류되어 경험되고 있다. 인류는 이 지구체제 아래에서 그 생명을 총체적으로 위협받을 뿐 아니라 우주의 생명체 전체가 파괴와 전멸의 위협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 상황은 인간 생명뿐 아니라 우주의 생명을 총체적으로 보전하고 살릴 수 있는 “새 생명문명예로의 전환”을 요청하게 된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오늘의 시민운동을 재조명할 필요를 절실히 느낀다.

11. 오늘의 시민운동은 지구화의 과정에 대응하는 동시다발적인 직접참여와 지구적 연대운동이다. 지구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고전적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새로운 차원에서 시민운동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시민운동은 지금까지의 민족운동, 사회운동, 민

중운동, 문화운동과는 달리 지구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정치과정과 시장과정을 넘나들면서 전개되는 참여운동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시민운동이 혁신성과 변혁성을 내포하면서 고전적 운동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나 시민운동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시민이다. 또 시민운동은 시민 사회 운동적 성격을 가지고 정부와 시장의 테두리를 넘나들면서 비판적 기능, 대안적 개혁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지구적 차원에서는 국가의 경계도 넘나들면서 연대하기도 하면서 시민운동을 전개한다.

시민사회운동은 각 나라의 시민들이 전개하지만 국가의 테두리를 넘나든다. 왜냐하면 지구화과정에서 국가의 경계선이 느슨하여지거나 개방되었다. 지구시장체제는 지구적 자유무역체제(초국적 기업의 활동 등), 지구적 교통, 지구적 미디어와 통신, 지구적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의 형성 등으로 국가 간의 경계를 “철폐”하기 시작하고 국가주권의 약화 내지는 와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주권은 기존 국가체제 안에서는 제대로 매개되지 못하고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오늘의 시민운동은 국가적, 국제적 정치과정(Governance)을 개혁하고 지구시장의 과정을 개혁하면서 문제를 풀어간다. 그래서 시민운동을 시민사회운동, 또는 비정부조직(Non-governmental Organization=NGO)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비영리성도 포함되어 시장에서 독립됨을 내포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사회구조적 기반보다는 각종의 문제 중심으로 전개하는 운동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전통적 운동의 문제들을 도외시 할 수 없다. 다만 시민운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서 유연하고 포괄적이며 개혁적인 접근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 1) 오늘의 시민운동은 지극히 구체적인 “살림살이” 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지역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 운동은 지역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 여기서 시민의 생활주권 ~ 살림살이의 주권 ~ 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의 시민운동은 다양한 문제들을 다룬다. 시민운동은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구체적인 문제와 정책적 대안문제에서 운동을 출발한다.
- 2) 오늘의 시민운동은 혁명과 변혁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개혁을 출발점으로 하여 운동을 전개한다. 시민운동은 정치나 시장을 비판하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혁정책을 변호하기도 하고 정치적 주체와 시장적 주체와 조정하기도 한다. 이것이 시민운동이 정치의 장과 시장마당에 직접참여(Direct Participat~ ion)하는 것이다.
- 3) 따라서 시민운동은 원론적인 입장과 주장보다는 조정과 조율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여 문제를 실

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시도한다.

- 4) 시민운동은 다양한 연대망을 지역적 차원, 사회적 차원, 지구적 차원에서 자유자재로 형성한다. 전통적인 민족적, 민중적, 인종적, 성적 연대를 뛰어 넘어 다중적 연대를 형성한다. 시민운동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연대운동을 통하여 그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공동의 직접행동을 하며 대안적 정책을 제청하고 후원하기도 한다.
- 5) 시민운동은 정보의 공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하여 시민의 여론을 힘의 바탕으로 하여 개혁을 이룬다. 시민운동은 모든 문제를 공론화하여 일반 시민의 참여와 지지를 유도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보다 좋은 정책을 추구하도록 한다.

오늘 시민운동은 지구화의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확대하여 기존 정치과정이나 시장과정에서 확보되지 못하는 민주적인 과정을 장외에서 창출하여 기존 권력과정과 시장과정을 더 광범위한 참여를 통하여 민주화하고 시민의 전문적 지혜를 동원하여 생활민주주의를 심화한다. 동시에 국가를 초월하여 다가오는 지정학적 문제, 지구시장의 압력, 문화적 문제 등을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은 아직 그 사회문화적 기반이 취약하고 파편적 성격과 지속적 성격이 약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운동은 밑에서부터 참여하고 광범위하게 연대하지만 생명운동의 통전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12. 시민운동의 새 지평을 열자. 이것은 통전적 운동이다. 생명운동을 모든 새 운동의 軸으로 설정하지는 제안이다. 전통적 전형적 운동도 생명을 살리자는 운동이고 시민운동도 생명을 살리자는 운동이다. 역사적 운동과 시민운동의 합류를 통하여 운동의 새 지평을 열자는 것이다. 생명운동은 “생명의 심층”에서 합류하는 통전운동, 생명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운동이다.

생명운동은 지금까지의 다양한 고전적 운동의 합류이다. 다양한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다. 여기서 새로운 생명의 지평에 다양한 지평을 합류하면서 새 생명 織造의 거미줄(Web)을 형성한다. 고전적 운동의 구조적 차원과 시민운동의 구체적 차원을 생명운동의 차원에서 합류하지는 제안이다. 고전적 운동은 운동과 운동사이에 위계질서는 있어도 포괄적 연대는 어려웠다. 시민운동은 구체성과 포괄적 연대성은 있어도 구조적 기반이 취약하였다. 우리는 이 양자를 생명운동의 기틀에서 융합하

자는 것이다.

- 1) 생명운동의 바탕을 찾는다. : 우리는 먼저 아시아의 종교운동, 사상운동, 문화운동사에서 아시아 생명운동사의 줄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생명의 “태극” 또는 근원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生命學의 일차적인 과제이다. 이 生命學은 생명운동의 바탕을 제공하여 줄 것이다.
- 2) 생명운동의 統全의 主體 : 생명(체)는 주체라는 기본적인 명제에서 생명운동의 주체가 논의될 수 있다. 민족운동은 민족이 운동의 주체요, 민중운동은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 인식되었다. 여성운동은 여성이 운동의 주체요, 인종차별운동은 피압박 인종이 운동의 주체로 인식 되었다. 생명체는 운동의 포괄적인 주체이다.  
우주의 생명체들은 스스로 사는 주체이다. 여기에서 인간은 공동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과 생명체의 주체의 균열을 극복하고 공동동역의 주체로 통전된다. 생명체는 통전적 주체, 서로 연결되고 연계된 지역적, 사회적, 지구적 주체, 우주적 주체; 생명은 시공을 창조적으로 아우르는 주체이다. 생명운동은 모든 생명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지평을 융합하면서 새 지평을 여는 운동이다. 고전적 운동도, 시민운동도 생명운동에 합류하여 통전성(統全性)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 3) 생명의 統全의 道(지혜)를 탐구한다. : 생명학은 새 생명을 위한 지혜를 문명의 축적과 교류를 통한 다양한 합류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탐구한다. 문명사(역사적)적 蓄積은 문명의 連續과 斷切의 흐름을 融合하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문명교류(地理的 相互作用)적 경험의 축적을 포함한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하여 생명운동은 새 문명을 지향한다. 고금 동서양의 문명의 새로운 운동적 합류는 생명운동의 새로운 문명적 차원을 창출하기 위한 정신적 융합을 요청한다. 새 문명을 일구는 사상, 종교, 예술적 지평을 합류하는 지평을 연다. 새 문명을 일구는 생명의 정치경제를 구상한다. 새 문명을 일구는 과학기술체제를 개축한다. 이것이 생명학의 과제이다.  
생명학은 동양/서양 농경사회의 이론(文化와 思想)的/實踐的 智慧의 기반을 포괄하면서 그 제약을 초월하면서 통합한다. 근대과학기술사회적 기반을 포용하고 그 제약을 극복하면서 융합한다. 생명학은 電子/情報 社會的 基盤과 生命/생태적 基盤을 통합한다.
- 4) 생명학 구도형성에 있어서 <생명의 場>을 새롭게 조망한다. : 생명학은 우주(OIKOS)적 지평에서

생명의 자리를 마련한다. 시간/역사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지평을 융합한다. 공간/지리적으로는 동과 서, 남과 북의 지정학적 공간을 융합한다. 시공을 다차원적으로 융합하면서 생명의 새장(통합적 시공)을 마련한다. 생명학의 天地理學적 장은 易學的 時空間觀과 軌를 같이 할 것이다.

- 5) 生命의 生涯(歷史的 展開)=Zoography : 생명은 삶의 주체이다. 이 주체는 생명과 죽음의 순환을 수용하면서 삶의 궤도를 이행한다. 생명체의 생애는 우주공동체적 기반을 통합하여야 한다. 생명의 생애를 추구하는 생명학은 인간계와 생물계를 생물학적 차원, 생태적인 차원에서만 통합하지 않고 宇宙(집우 집주)라는 생명의 집에서 인문학적으로 통합하고 융합한다. 생명학의 파라다임은 “우주적 인문학”이다.  
동시에 생명학은 생명의 정신적 주체성과 문화 예술적 창조성을 추구한다. 우주의 생명성과 문화 예술적 창조성의 융화를 분별한다. 이것은 우주적 신비성(종교적 주체성 즉 신앙)의 지평을 연다. 생명은 삶의 예술을 창조하는 주체이다. 생명은 아름답다는 생명의 존재와 삶을 포괄하는 최후의 술어이다. 생명이 아름답다는 것은 아름다움은 생명의 본질로서 自現(스스로 나타내는)하는 것이다. “꽃이 향기롭고 아름답다”는 표현과 같은 것이다. 생명은 아름답고 향기롭다. 이것이 생명의 생애를 말하여 준다.
- 6) 생명학은 생명통전의 내용과 방법을 추구한다. : 생명운동은 생명이 스스로의 살림살이를 저해하는 것을 극복하고 그 살림살이가 건강하고 풍요롭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생명학은 우주라는 場에서 생명(天地人)을 중심축(極)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을 統全 한다. 우주적 생명의 다양성을 통전한다. 우주생명의 다중적 부문과 차원을 융합/통일한다.  
생명학의 과제는 일차적으로 죽임의 세력을 극복하는 것이다. 인간문명에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폭력성의 극복을 의미한다. 오늘 계급적 폭력, 산업화, 근대화(과학기술혁명), 전쟁(지정학적 폭력, 인종적 폭력(차별), 성폭력(가부장적 차별), 생태계의 파괴, 지구화, 정치적 폭력(전체체제, 전체주의, 개인주의), 문화적 폭력, 우주적/소우주적 대자연 대 생물 폭력이 지구화과정에서 그리고 제국의 헤게모니 형성 과정에서 합류되고 있다. 이러한 합류되고 있는 폭력의 소용돌이를 극복하고 생명을 통합하는 일은 생명의 통전적 주체(몸으로서의 주체, 감성적 주체, 의식적 정신적 주체, 문화 예술적 주체, 윤리적 영성적 주체의 통전)를 일으켜 세워 생명력을 발동하고 삶을 꾸리며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 ① 생명정치 (Life Democracy=Zoecracy)

생명운동은 운동의 주체를 확보하는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정치의 과제이다. 생명이 통전적 주체라면 생명의 주권은 통전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인권, 사회적 권리에 환경권을 보태는 형식의 주권확립이 아니고 포괄적이고 주체적이며 생명의 살림살이를 통전적으로 꾸릴 수 있는 주권이어야 할 것이다.<sup>17)</sup> 생명정치가 수립하여야 할 최고의 주체성은 예술적이고 신비적인 차원이다. 생명의 통전적 주체의 정점은 예술적 신비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표현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는 예술이라고 하였나보다.

생명의 주권은 개별적으로 파편화되어서 이해하여 왔지만 이것은 공생적으로 또는 상생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주권의 통전성은 개별주의적 경향과 집단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참여적인 공생성(Common Participation)>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생명의 주권확립은 기존의 경계선 즉 인격적,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 차별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생명의 주체는 공생/상생적으로 이해되며 모든 다른 생명체와 공히 참여하는 데서 진정한 생명공동체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이냐를 밝히는 것이 생명학의 과제이다. 우리는 생명정치를 위한 현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 ② 생명의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of Life)

생명의 경제제민(생명)은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공생/상생하는 경제일 뿐 아니라 살림살이의 주체가 생명체임을 인정하는 <생명주체적 경제>이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생명체를 탈취하고 파괴하는 경제는 공생/상생체제를 파괴하여 인간생명자체가 파괴되는 행위임이 극명하여 지는 것이다.

오늘의 지구시장은 과학기술체제로 생명체를 상업화하고, 생명체를 조작하고, 탈취하고, 파괴하는 산업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산업경제의 무한한 성장과 무제약적인 자본축적과 이윤극대화는 生命

圈 전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경제정의는 생명공동체의 기본 조건이다. 생명체의 주권이 인정되는 생명의 정치경제체제(Zoeconomy)를 대안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 ③ 생명의 지정학(Geo~ politics of Life)

인간은 왕국, 제국, 국가, 지구적 제국체제를 만들고 군사력으로 자기 집단의 생존을 위하여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군사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있다. 인간의 문명은 생존을 위한 안보체제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sup>18)</sup> 인간이 스스로 자체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생/상생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지구 제국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생명권전체를 공멸시킬 수 있는 무기 체제를 가지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패권을 행사하고 확장하고 구축하여 가고 있다. 평화는 생명의 기본 조건이다. 생명과 평화의 질서를 위한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가 구축되어 모든 생명체의 공동 안보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④ 생명공동체의 정의

생명의 질서는 공생/상생의 정의로운 질서이다. 이 질서는 생명체의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살피는 질서이다. 생명질서에서 인간사회는 정의의 질서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우주의 생명질서가 포괄적인 사회질서가 된다. 동양에서는 유교는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하여 인간사회질서는 우주질서에 편입되어 있다. 그러나 서양의 근대철학은 자연생명체의 질서와 인간사회질서를 구분하였다. 인간과 자연생명체는 적대적 생존경쟁이었으며 동시에 모든 생명에는 개체적 생존을 위하여 생존경쟁을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 다윈의 생명진화질서는 인간 사회에 적용되었다. 이 질서는 상생/공생의 질서가 아니라 생명개체와 인간개체의 적자생존적 약육강식의 질서였다. 이 질서는 오늘 지구시장에서 신자유주의적인 무한경쟁의 질서로 전개되고 있다.

근대 사회철학은 계급투쟁, 인종갈등, 성적 차별과 억압 등 모순과 갈등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사회철학은 근본적으로 생명은 생명과의 갈등을 통해서 진화하고 진보한다는 생명질서관을 내포한다. 이런 사회철학은 무한경쟁의 시장질서에서 폭력의 강도가 심화되고 복잡화되어 인간과 다른 생명체의 파괴를 전제하고 있다. 동양에서 생명질서는 공생/상생질서요, 화합과 화해의 질서이다. 이것은 우주의 생명질서에 토대한 정의의 질서요 평화의 질서이며 생명의 질서이다. 유교에서 말하는 大同의 生命秩序는

17) The Living beings are subjects of their life. All living beings are subjects; and they have rights of life. In human society, they have convivial rights together with humans. What is relationship between life rights and human rights? In human society, the humans determined their rights. But in the cosmos, the household of life all living beings have equal and convivial rights. Vandana Shiva's concept of Earth Democracy should be discussed. In the Vicarious Democracy of the Earth Democracy, humans represent living beings. Rights of living beings are beneficial to humans as well as to living beings. Jeremy Rfitkin's concept of biosphere politics is to extend the political rights to the biosphere and the environment of life. Dussell's concept of the rights of living beings is understood as an extens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social rights of the people. Kim: All these concepts expand the rights to the cosmos as the household of life for all living beings.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rights, social rights and rights of living beings?

18) McNeil, The Rise of the West, University of Chicago, 1963.



弱者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의의 질서이다. 생명학은 社會安全의 기반이 정의와 화평에 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아마도 생명여성학은 생명의 우주적 질서, 사회적 질서, 문화적 짜임, 종교적 근원을 가장 훌륭하게 통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명학은 생명여성학에서 몸, 사회, 우주의 생명적 통전을 발견하게 된다.

### ⑤ 생명문화 창조

생명은 창조적이다. 생명주체의 정점은 예술적이라고 말하였다. 생명은 아름답고 이를 자현하는 예술적 주체이다. 문화는 생명이 우주 속에서 공명하면서 창조적으로 활동한 표현이다. 창조하지 않는 생명은 죽는다. 따라서 생명은 문화의 샘이요 문화의 원천이다. 문화는 생명의 예술이다. 생명의 고통과 생기와 아름다움과 향기가 문화적 공간에 퍼지는 것이다.

오늘 지구화의 과정에서 인간의 문화는 상품화되고 시장화되고 자본화되었다. 생명의 문화활동, 예술 활동은 시장에 의하여 장악되었다. 지구화과정에서 민족/종족문화들은 상품화되고 고유문화의 정체성은 와해되고, 문화적 가치는 해체되고, 삶의 예술은 억압되고 심미적인 표현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문화는 사막화, 황폐화 된다. 그 생명력이 고갈되고 있다. 이처럼 생명의 예술적인 주체가 억압되고 상실됨으로 생명의 창조성이 파괴된다.

문화예술은 생명의 축제이다. 생명의 축제(Feast of Life)는 문화예술이다. 여기서 생명의 감성과 영성이 표출된다. 생명의 생기, 생명의 아름다움, 생명의 신비는 문화로 표현되어 생명의 깊이를 형성한다. 생명의 주체는 삶의 美를 창조하며 우주에 아름다움을 채운다.

또 생명문화는 생명의 정신적 유산, 생명의 지혜를 보유하고 있다. 생명에 대한 사상과 철학은 이 문화적 유산과 지혜에 속한다. 이것은 생명체의 깊고 높은 살림살이의 체험에서 축적 된 것이다. 생명공동체는 이 유산과 지혜를 나눈다.

### ⑥ 생명과 종교

생명의 근원은 신비스럽다. 생명의 주체도 신비스럽다. 생명의 종말도 신비스럽다. 생명의 신비스러운 차원은 종교적 언어로 표현하고 종교예술(예식)로 표현한다. 모든 종교는 생명의 신비에 관한 언어와 예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巫敎, 仙道, 道教, 佛敎, 基督教은 고전적인 생명의 종교이며, 東學, 증산교, 원불교 등 새로운 민족, 민중종교들도 생명의 종교들이다. 이 신앙들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심오한 진리와 새 생명에의 도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이 종교들은 오늘 지구화의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유착되고 시장의 세력과 유착되며 과거 지

배질서의 시너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새로운 생명운동을 위하여 이 종교들은 그 원천적인 생명력, 즉 생명의 원천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종교 신앙들은 생명의 “태극”적 축에서 합류하고 융합하여 신비적인 생명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 ⑦ 우주적 생명질서

생명운동은 인간생명의 자연환경, 생태계를 보전하는 운동으로 협소하게 이해되었다. 따라서 이런 차원의 생명운동은 생물학, 생화학, 지질학, 환경학, 생태학 등의 과학적 이론에 의하여 이해되고 규명되었다. 이런 생명운동은 자연의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물학적 유전자조작 등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

이런 문제는 오늘 지구화 즉 근대 산업문명의 발전이 가져다주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자연 자원의 고갈, 환경의 오염, 자연의 파괴, 유전자 조작에 따른 생물학적 오염은 인간이 우주질서를 공생, 상생하는 생명체로 인식하지 않고 산업화의 자원으로, 시장의 소비재로, 과학기술체제가 객관화하고 정복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취급하는 결과라는 인식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생명학은 우주질서를 공생하는 생명체의 통전적 질서로 회복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맺는 말

우리는 생명은 통전적 주체라는 명제를 생명학과 생명운동의 기본으로 삼았다. 그리고 생명의 살림살이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으나 생명의 통전적 생애와 운동으로 융합되고 통합되어야 함을 말하려 하였다. 이것은 생명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형성하고 생명의 새 場 (집=우주)을 마련하며, 새 생명의 문명에로의 문을 두드리는 몸짓을 하려하였다.

우리는 생명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인간생명체라는 주체로서 논하게 되었고 우주의 생명체들과 공생, 상생을 전제하면서 논의하는 방법을 아직 터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논의는 현실적으로 근대적 학문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배경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아마도 예술과 종교에로의 길이 생명질서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 관문을 열어줄지 모르겠다는 실감과 희망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생명문화(예술과 신앙)운동은 여러 차원의 생명운동을 아우를 수 있고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場으로 안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여 본다.

# 生命學方法論 序說： 生命學(The Integral Study of Life: Zoesophia)을 추구하며<sup>19)</sup>

김 용 복

生命學의 새로운 試圖는 現代科學的 生命研究의 限界를 규명하고 統合적으로 학문과 研究의 틀 (Study and Learning Paradigm)을 形成하려는 것이다. 이 학문과 연구의 틀은 生命의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 生命의 지혜는 죽음을 극복하는 지혜이다. 이는 통전적인 지혜의 탐구이다.

현대 과학의 두 가지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그 첫째는 축소환원주의요, 그 또 하나는 자본의 시너라는 것이다. 생명학은 현대 과학의 분석적이고 축소주의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생명학은 生命의 상호연관성과 統合성을 강조할 것이다. 현대 과학은 生命과 삶을 専門분야별로 분리하여 연구하였고 자연과학적 연구에 집중하였다. 생명학은 현대 학문의 片面성을 극복하고 통전적 연구(Integral Study)의 전거를 마련하려 한다. 片面화된 연구와 학습을 통전적으로 수렴통합하는, 다양한 지혜를 통합하는 학문적 시도인 것이다.

## 生命學 이해

① 생명학(生命學)은 우주에 살아 있는 것에 대한 統合적인 성찰을 비롯하여 인간의 삶과 살림살이

에 대한 성찰을 내포한다. 시적으로 표현하면 우주는 生命의 등지이고 生命은 우주의 동력이다. 따라서 生命學(生命學)은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한 인문학적인 차원과 자연학적인 차원을 統合한다. 生命學(生命學)은 한자(漢字)로 생(生)자와 명(命)자를 내포하고 있다. 이 개념은 자연과 역사를 총 망라하여 살아있는 것의 역동적 움직임을 포괄한다. 따라서 生命學(生命學)은 인문학적인 접근을 출발로 하여 자연학적인 차원을 내포하는 學問이다. 生命學(生命學)은 방법론적으로 인문학(人文學)과 사회과학적 출발점을 가지고 자연과학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生命學(生命學)이 統合적 접근을 시도한다 함은 단순한 専門분야 간의 단순한 연관관계의 形成을 말하지 않는다. 生命學(生命學)의 역동적이고 열린 틀(Paradigm) 안에서 각 専門분야는 變化를 경험하고 새로운 위치와 관계를 항상 새롭게 발견하고 또 形成하여 나간다. 각 専門분야는 生命學(生命學)의 출발점과 초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専門분야 안에서는 完結구조를 가질 수 없고 항상 다른 분야들과 새롭게 열린 연관성을 形成하여 나간다. 따라서 어느 専門분야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學問적 “헤게모니”를 가질 수 없다.

② 生命學은 인간중심주의적인 문명을 지양하고 우주적 生命의 문명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시좌를 제공하려 한다. 宇宙에 살아있는 生命에 대하여 研究하고 배우는 學問이다. 現代學問의 體系는 우주적 次元과 分離하여 人間을 중심으로 生命을 取扱하였다. 그러나 生命은 人間의 生命과 宇宙의 生命이 區分될 수 없다. 生命은 統合的 實體이다.

③ 生命學은 자연과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문사회학적 生命觀을 부각시킬 것이다. 生命學은 종교, 철학, 예술, 문화적 차원에서 生命을 연구할 것이며 사회, 정치, 경제학적 차원에서 生命을 연구하고 이를 生命과학적 차원과 상호연관성을 추구하고 統合적 生命觀을 形成하여갈 것이다.

④ 生命學(生命學)은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지 않고 生命學(生命學) 안에서 이 양자를 統合한다. 生命學(生命學)은 열려있는 성찰의 과정이고 지속적으로 統合적이고 따라서 모든 片面적임과 축소주의적인 성찰과 배타적인 전문화 과정을 지양한다. 生命學(生命學)은 모든 분야별 성찰과 연구를 단순하게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성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각 분야별 성찰과 연구를 새롭게 變化한다.

生命學(生命學)은 생물학과 혼동되기 쉽다. 그러나 생물학은 生命學(生命學)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축소주의적인 성격이 生命學(生命學)의 테두리 안에서 극복되지 않으면 안된다. 생물학뿐만 아니라 현대적 學問의 각 専門분야는 고립주의적이고 축소주의적이며 분석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심각한

19) 김용복 박사의 미발표 <生命學方法論 序說>의 1장. 生命學방법론 서설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장 生命學전기, 3장 生命學경제학, 4장 生命學평화의 지정학, 5장 生命學과 과학기술체제, 6장 生命學정치학, 7장 生命學사회학, 8장 生命學과 민중, 9장 生命學종교학, 10장 生命學의 수렴통합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를 안고 있다. 생명학(生命學)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學問적 접근을 시도한다.

생명학은 우주적 생태계(Ecology), 생물계(biosphere: Macro/micro Spheres), 의료계(Health system), 식품체계(Food system), 지정학적 체계(Geo~ politics),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종교문화체계(Religio~ cultural system) 등을 상호연관성을 통하여 종합하려 한다.

⑤ 생명학은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한 대응을 기본적 전제로 한다. 생명학은 生과 死의 의미 있는 연관성을 추구한다. 생명학은 죽음의 요인을 규명한다. 자연적 죽음뿐 아니라 인위적 생명파괴에 대한 연구에 집중한다. 생명은 항상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 의하여 위협을 당하여 왔다. 인간의 역사와 사회는 인간의 생명을 존속하려는 노력이었다. 인간은 전통적으로 자연적 재해로부터의 생명보전, 사회경제적 모순과 갈등으로부터의 해방, 지정학적 폭력의 극복을 통하여 그 생명을 보전하려 하여왔다. 현대 인간은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을 제압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현대 문명이 발전하면서 생명은 인간문명에 내재하는 요인으로부터 근원적인 위협을 받게 되었다.

⑥ 생명학은 생명을 풍만(fullness and eternity)하게 하는 실천을 목표로 한다. 생명학은 생명과 삶 의 의미와 목적을 연구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길을 연구한다. 생명학은 종교, 철학사상적 토대를 구축하고 생명의 정신적, 영적 주체성을 기본 시각으로 하여 접근하려 한다. 생명학(生命學)의 지평은 항상 새롭게 전개되는 역동적이고 열려있는 지평이다. 이것은 모든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한 성찰을 포함하고 이를 극복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생명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문제 중심적 발상과 대응이 필요하다.

- ~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
- ~ 기아와 빈곤(Hunger and Poverty)
- ~ 질병(Disease)
- ~ 사회적 폭력(Social violence)
- ~ 정치적 억압(Political oppression)
- ~ 종교문화적 피폐와 부조리(Religious cultural anomaly)
- ~ 전쟁(핵전쟁, 생화학전 등을 포함) (Wars)
- ~ 생태계의 오염과 파괴(Ecological destruction and pollution)
- ~ 분자생물학적 조작(Micro~ biological Manipulation)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과 생명파괴의 연구는 다양한 방법과 여러 측면을 종합하는 <생명의 정치경제의 틀(Paradigm of Political Economy of Life)>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학에서 생명의 희생은 종합적 전기(The Story of Life)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는 인식론적 축소주의, 분석주의를 극복하고 축적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이루어 질 것이다.

### 학문적 문제의식

① 종교학과 철학은 생명학(生命學)의 기본 학문이다. : 모든 종교나 철학은 생명학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 모든 종교와 철학은 각기 다양한 접근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최상의 생명의 경지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적 문명은 생명의 종교적 철학적 차원을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취급하여 왔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기독교학을 기본 출발점과 초점으로 하여 생명학(生命學)을 전개 발전시킬 것이다. 그러나 모든 종교와 철학을 수용하고 모든 전문분야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형성할 것이다.

② 생명학(生命學)은 모든 인문학의 풍요로움에 열린 종합성을 추구한다. : 모든 예술분야에서는 생명학(生命學)의 꽃을 종합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생명은 단순히 물리적이거나 생물학적이거나 심지어는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만 성찰 될 수 없다. 생명은 심미적, 정신적, 종교적 차원에서 그 꽃이 피어야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③ 생명학(生命學)은 생명과정과 생명운동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추구를 중요시한다. : 생명학(生命學)은 생명역사를 우주사, 문명사, 민족사의 연관 속에서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적 시간의 개념을 극복하고 생명 고유의 시간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은 생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연관하는 개념이다. 성경의 카이로스의 개념이 하나의 열쇠가 될 것이다.

④ 생명학(生命學)은 지정학적 접근을 중요시한다. : 생명은 지정학적인 자리를 가지게 된다. 생명학(生命學)은 우주의 변화, 사회의 변동에 따른 지정학적인 생명의 조건을 규명할 것이다. 봉건시대, 근대국가시대(전쟁과 평화), 우주지구시대(위성시대)의 지정학이 종합적으로 연관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학(生命學)에서 생명의 지역적 천착성과 우주적 맥락을 연계하는 學問적 연구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⑤ 생명학(生命學)은 각 분야의 총합적 직조망(Matrix)을 중요시한다. : 생명학(生命學)은 인간사회 중심적인 사회구조론을 극복하고 열리고 역동적인 직조망(matrix, network or webwork)의 새로운 틀 안에서 각 분야별, 문제별, 부문별 관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생명학(生命學)은 총합적 직조망을 형성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를 출발점과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 각 분야별 學問의 관계를 열린 총합적 직조망의 맥락에서 새롭게 구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學問의 분야별 배타주의, 고립주의, 축소주의를 극복하고 생명이라는 역동적이고 열린 실체에 교향악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⑥ 생명학은 거시적/미시적 우주학을 총합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 생명의 자리는 우주다. 미시적~거시적 맥락이 총합적 연관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는 생명의 총체적인 자리이기 때문이다. 태양과 분자는 생명에 있어서 양극적인 지정학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동시에 태양은 종교적 뿌리를 생명공동체에 주고 심오한 종교적 가치인 사랑은 인간의 생명을 지탱하는 혼과 같은 것이다. 우주는 생명의 자궁(子宮)이며 동시에 사랑의 거처라는 표현은 생명의 우주론적인 차원을 명시하여 준다.

### 학문적 패러다임(Academic Paradigm)

생명학(生命學)은 다음분야를 일차 출발점과 초점으로 형성하고 그 직조망(Webwork of Convivial Life)을 구상할 수 있다. 총합적 연구방법은 전문분야별 접근을 지양하고 문제 중심적인 출발점을 설정하고 연관분야를 연계하면서 통합적으로 전개한다. 생명학(Zoesophia)은 다음 5가지 명제를 그 학문적 패러다임(Academic Paradigm)으로 하고 생명에 대한 지혜를 추구한다.

① 생명의 주체성 : 모든 생명체는 주체다. 생명체의 주체적 실체를 부인하고 억압하고 파괴하는 체제에 저항하고 이를 변혁한다. 생명체는 인식론적으로 객체화되어 조작되고 객관화되는 것을 거부한다.

② 생명의 상생성 : 모든 생명체는 상호의존하고 공존하며 정의로운 관계를 토대로 모든 억압과 착취의 갈등과 모순을 극복하고 모든 분리와 차별 소외를 극복하여 평화로운 상생관계를 이룩한다.

③ 생명의 통전성 : 모든 생명체는 파편화되고 축소환원되며 분할되는 것을 거부하고 역동적인 전일성(Wholeness)을 유지하고 이를 성숙시키고 심화한다.

④ 생명의 역동적 통합성 : 모든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포용하며 모든 닫힌 장벽을 헐고 경계를 철폐하여 상호 수렴통합(Convergence)의 길은 열어 새로운 통전적 지평을 열어간다.

⑤ 생명의 창조성 : 모든 생명체는 새로운 존재로의 창조적 초월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이 생물학적인 진화이건, 사회과학적 혁명과 변혁이건 그리고 우주적 “개벽”이건 창조력을 보유한 생명력이다.

이 생명학의 틀(Paradigm of Zeosophia)을 토대로 생명체에 대한 지혜를 탐구할 것이다. 이 패러다임은 생명학 연구로 하여금 전 방위적인 수렴통합의 행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 동서남북의 모든 다양한 생명지혜를 역동적으로 수렴통합하여 생명공동체의 미래적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 생명 살림살이의 지혜

## - 생명경제학<sup>20)</sup>

김 용 복

생명학은 생명을 살리는 학문이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파괴하는 모든 세력을 분석하고 그 구조를 파악하여 이를 극복하고 생명살생 현실을 극복하려는 학문을 추구한다. 따라서 생명의 경제학을 생명체의 살림살이의 지혜를 탐구하고 이에 따른 상생의 경영을 논하려 하는 것이다.

생명체의 살림살이는 개체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경제>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연구하는 것을 경제학이라고 할 것이다. 경제는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기에 經世濟民이라고 불렀다. 이를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경제는 우주적으로 보면 우주안의 모든 생명체의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를 생명체의 집이라고 한다면 우주의 살림살이일 것이다. 영어의 Economy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OIKOS(집)와 NOMOS(법칙)의 조합어로서 집의 법칙이다. 곧 살림살이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면 서양과 동양의 경제에 대한 인식은 비슷하였다. 결국 경제란 생명체들의 살림살이를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의 핵심은 생명체가 우주 속에서 살고 살리는 것을 말하고 이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경제학일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경제는 생명의 경제이고 경제학은 생명경제학이다. 이 생명의 경제학은 생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경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경제는 근본적인 경제요, 핵심적인 경제요, 본질적인 경제이다. 이것은 대안 경제가 아니다.

경제는 깊은 윤리적 기반을 가진다. 생명경제는 단순히 부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며 생명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윤리적 요체이고, 이것이 경제 그 자체이다. 경제학은 생명체의 살림살이를 위한 지혜탐구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경제학은 상생의 경제학이며 생명의 집인 우주와 지구를 생명의 등지로 보전하고 보살피며 보호하는 것이다. 생명경제는 생명살림살이의 지혜이다.

우리는 오늘의 경제가 생명을 살리는 경제인가 아닌가를 따져야 할 것이다. 생명이 경제활동의 중심이며 경제활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경제체제가 기아의 현실을 확대하고 가난을 심화한다면 그것은 상생과 경제제민의 경제가 아닐 것이다.

생명은 주체이다. 생명체는 살림살이의 주체이다.

생명체는 영과 몸을 가진 주체로서 삶을 경영한다. 삶은 체제도 기관도 아니다.

살아있는 주체적 실체이다.

생명은 스스로 낳는다.

생명은 스스로 양육하고 성장한다. 생명은 스스로 교육, 훈련한다.

생명은 스스로 느끼고 결단하고 판단하는 감성과 의식의 주체이다. 생명은 스스로 치유한다.

생명체는 살림살이를 위하여 자연적, 인간적,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변화시킨다.

이것이 생명의 살림살이이다. 이것이 생명의 경제에서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살림살이를 위하여 몇 가지 기초 조건이 있어야 한다.

모든 생명체는 먹거리가 충분하여야 한다.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를 양육하고 스스로를 교육함으로 교육환경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생명체는 개체의 몸의 안위를 위하여 의류 같은 것이 필요하다.

모든 생명체는 건강을 보전하여야 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스스로 치유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종교적 생활을 통하여 미와 의미와 영적 갈망을 충족한다.

생명체는 반드시 다른 모든 생명체와의 항구적으로 상생한다.

생명체는 반드시 상생적임으로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생명적 관계를 지탱하여야 한다.

위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생명이 삶을 영위한다. 이것이 살림살이요 경제이며 생명경제일 것이다. 이런 조건들은 생명체가 생명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경제요 이를

20) 김용복 박사의 미발표 <生命學方法論 序說>의 3장 도입부.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이 개최한 생명경제/상생경제세미나 (2011년 10월 22일 14:00~20:00) 제안문으로도 사용되었다.

탐구하는 것이 생명경제학이다.

그러나 오늘의 지배적 지구경제체제와 경제학은 생명체의 살림살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경제체제의 목표가 아니다. 더구나 상생경제하고 볼 수 없다. 지구적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대안은?

죽임의 제국문명은 성경에 지속적으로 재현되었다. 고대 에집트 제국문명, 알렉산더대제가 지배하던 그리스 제국문명, 시저가 지배하던 로마 제국문명 등이 바빌론 문명과 종을 같이 하는 생명파괴의 체제요 문명이다. 이러한 제국문명은 정치사회학적으로 전 우주를 통치하는 전능한 권력체제를 형성한다. 대개 이러한 문명들은 치수문명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제국들이 홍수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무한한 토목 과학기술을 개발하였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무한한 노동력을 일으켰고 치수를 위한 대형 토목공사를 프로젝트화 하였으며 이를 통제하고 경영하기 위하여 제왕의 권력을 절대화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국은 인간의 생명을 지배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절대권력 체제를 형성하였다. 이런 절대 권력 체제를 잉태한 것이 곧 제국문명이다.

인류역사 이래 이런 역사는 지속되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산업문명(Industrial Civilization)이다. 산업사회가 되기 전에는 농경사회였다. 농경사회는 기본적으로 자연을 존중하고 모든 생명이 자연과 공생하였다. 時空을 비롯하여 생명과 삶이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엮여졌다.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이 자연과의 공생관계에서 결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되면서 인간의 현대적 이성 즉 현대 과학과 기술이 인위적으로 자연과 생명을 인위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게 되었다. 나아가서 어떠한 자연과 생명의 현상이라도 인간의 합리적 이성에 의하여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편타당한 진리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적 합리성은 과학과 기술로 전개되었고 과학과 기술은 자연과 생명을 분석하고 통제하며 제어하고 지배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요약하여 말하면 인간과 자연의 생명은 현대화학과학 기술의 지배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 과학과 기술의 범주를 벗어나면 그것은 진리나 실용의 영역밖으로 축출되었다. 이런 현대적 논리의 근원적인 한계는 축소주의에 있다. 자연과 생명의 총체적인 측면이 무시되고 이들은 분리, 분석되어 과학 기술적 범주에 종속되게 된다. 이러한 명제 아래에서 자연이나 사회나 인간이 이해되고 통제되었다. 이런 논리의 증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 현대 과학이며 현대 과학적 사고이다. 이런 과학적 사고는 근원적으로 생명 및 생명학적 사고와 배치된다.

이러한 조직논리에 의하여 형성된 서구 산업사회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형성하고 그 핵심적인 요소가 근대적 시장이었다. 물론 산업사회 이전에도 시장은 인간의 살림살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것은 간접적으로 자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산업사회에 와서는 과학과 기술이 생산과 분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것은 자연을 <착취>하고 인간을 착취하는 생산양식과 시장경제

적 유통양식을 창출하게 되었다. 여기에 결부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철학은 인간의 무한한 탐욕(Greed)을 정당화하게 되었다.

이런 서구 산업사회의 세계적 전개과정이 세계적 산업문명을 형성하게 되었다. 서구 산업사회는 비 산업사회를 시장의 확대, 그리고 식민통치를 통하여, 현대화 개발전략을 통하여 그리고 군사적인 지배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었고 오늘의 지구화라는 산업문명의 세계화라는 역사적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결과론적으로 오늘 서구 산업문명의 세계화와 지구시장 경제체제가 가져다 준 결과를 지구화의 틀 안에서 이해하여 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생명계를 총체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지구시장체제(Regime of global Market)이다. 20세기 후반에 와서 산업경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체제를 막론하고 무한한 성장의 궤도를 질주하였다. 특별히 현대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자본주의적 현대화 산업 전략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한 성장이었다. 그 결과 자연자원의 고갈, 생태계의 오염과 파괴라는 인류사상 초유의 위기가 도래하였다. 생명 환경의 오염을 비롯하여 지구의 온난화 등 생태계의 파괴는 통제할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지구상의 생명을 총체적으로 전멸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왔다. 현금의 산업경제 체제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동시에 세계 산업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권력은 다국적 기업으로서 그 통제가 불가능하고 이를 지원하는 서방국가들이나 국제기구들도 그들을 통제하기란 불가능한 형편이다. 소위 개발 도상에 있는 국가들도 이런 지구적 산업경제체제로 통합되고 있는 것이다. 인류와 지구상의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그 생명이 전면적인 파괴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인류와 지구는 인간의 욕심(Greed)과 인위적 수단과 방법(과학기술주의 체제= Technocracy)에 의하여 그 생명의 총체적 전멸(Total Destruction)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더구나 1차, 2차 세계대전을 가져왔다. 20세기에 와서 두 차례 세계전쟁을 경험하면서 인류는 가공할 만한 무기 즉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였다. 이것이 최초로 인간이 생명을 전멸할 수 있는 인위적 위기를 만들어 낸 사건이었다. 2차 세계대전은 산업문명의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핵에너지를 개발하였고 이 핵무기는 전면전(Total War)이라는 전략과 함께 인류와 지구의 전멸을 위협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어떤 이들은 냉전체제의 해체(?)로 이런 위협이 사라지거나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체는 그 반대가 현실이다. 세계의 지정학적 구도가 양극체제로 분할되었을 때는 소위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에 의하여 상호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나 현재와 같이 하나의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는 단일적 지정학적 구도에서는 어떠한 통제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형성된 것이다. 나아가서 장거리 MD 체제의 무한한 발전, 전자기술에 의한 전술적 전략적 우주공간의 통제는 지구상에 생명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여기에도가 오늘 지구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지

구적 정치권력(Pax Imperium)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체는 독재패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군사적 지정학적 군사체제를 토대로 하여 체계모니적인 패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의 전쟁은 전멸전 (Omni~ cidal War)이라고 칭하였다.

세 번째로 생명계를 위협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생명공학적 통제와 조작(Biotech Control and Manipulation)이다. 오늘 초국적 생명산업체들은 생명공학기술을 고도로 발전시켜 식량을 공급하고 의료기술과 물자(약품)를 공급하여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그리고 그들은 인류를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모든 질병과 결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환상적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생명공학과 생명산업이 인류의 생명뿐 아니라 생명계 전체를 오염시키고 파괴하며 기형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생명산업과 그 아래에서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는 생명공학은 철저히 세계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전체주의적 통제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일찍이 미국에서 시작된 유전자 조작에 의한 우생학(Eugenics)은 나치독일에 의하여 실험되었고 이것은 정치 이데올로기로 변화되어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비극을 낳았다. 생명, 특히 인간의 생명을 조작하려면 인간 위에 있는 절대권력을 상징하게 마련이다.

생명의 유전자공학 조작은 갖가지 생물체에 적용되어 왔다. 이런 조작의 결과는 예측불허의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양심적인 과학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모라토리움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공학의 연구는 생명산업체와 국가기관에 의하여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통제됨으로 책임있게 제어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본주의 시장과 지정학적 고려가 최우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유전자공학은 생화학적 무기와 전략개발과 직결되어 있다. 핵무기만 하더라도 생명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종말론적인 위력을 가진 것이다. 그런데 생화학적 무기는 유전자공학과 같은 기술로 생명을 훨씬 더 처참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가령 인간을 멸종시킬 수 있는 균 전쟁(Germ Warfare)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오늘의 무기체계는 장거리 유도탄에 생화학무기를 장착하여 적진에 투하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생명계에 주는 타격은 핵무기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의 위기는 세계적인 것임과 동시에 우리민족이 살고 있는 한반도에 사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더욱 실존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주변에는 미국을 축으로 하면서 강대국 간의 군사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 한반도의 경제 성장전략은 위험 수위를 훨씬 넘는 공해와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토양은 갖가지 오염물질을 비롯하여 화학 비료, 화학약품에 의하여 그 독소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식량,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량

이 어떤 것인가를 과학적으로 철저히 조사한다면 놀랄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감히 짐작할 수 있다. 화학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은 얼마며 유전자공학적 조작이 된 것은 얼마일까? 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보살핀다는 의료체계는 어떤 것일까? 초국적 식량회사, 초국적 제약회사는 과연 우리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가? 이들은 분명히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를 빙자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다는 판단에 이르면 우리는 죽음의 문명 속에서 살고 있음이 분명하여 진다. 이러한 문명적 상황은 오늘 전개되고 있는 지구화의 과정에서 더욱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지구시장으로 나타나고 지구시장은 경제적 전체주의((Economic Totalitarianism)를 전개시키고 있다. 이것은 지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치경제는 인류사회에 기아 그리고 빈곤과 질병 즉 죽음을 강요하는 체제이고 지구의 생명계를 파괴하는 체제라는 것을 말한다.

지구시장의 전체주의는 금융투기를 통하여 절대금권을 휘두르고 있으며, 지구를 무한 경쟁사회로 몰아 부치면서 통제할 수 없는 폭력의 소용돌이를 사회마다 야기시키며, 문화를 상품화하여 문화의 사막화 과정을 전개하면서 인간의 정신적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 오늘의 전체주의적 지구 시장은 죽이는 문화를 재생산하고 있다. 오늘의 지구적 시장은 문화를 피폐하게 할뿐만 아니라 소위 문화전쟁(Cultural War)을 유발시켜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력을 고갈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지구적 상황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죽음과 죽음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여 본다. 오늘 인류의 문명은 고도로 발달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아직도 생명계는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니고 健在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논한 생명에 대한 전멸적이고 총체적이며 전체주의적인 위협은 확실히 존재하고 그것은 더욱 심각하여 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생명체를 살리는 새로운 생명경제를 모색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재 경제체제의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생명체의 지속적인 번영을 구상하는 것이다.

- 1) 모든 생명체는 주체적 실체이다. 모든 생명은 주체이다. 생명의 자생적 주체는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실체이다. 생명에 대한 이러한 성격규정은 생명을 객관적으로 축소, 환원(Reduction)하여 객체화(Objectification)하는 생명체 이해를 극복하려고 한다. <생명주체론>은 생명체를 객체화하고 파편화(Fragmentation)하여 조작(Manipulation)하는 근대과학기술체제(Technocracy)에 대한 대응의 기반이 될 것이다. 현대 산업문명의 우주관, 생명관은 근본적인 문제이다. 생명과 사물을 객관화하기 때문이다. 생명은 개체생명의 차원, 지역공동체적 차원, 지구적, 우주적 차원

에서 주체이다. 이것이 생명주체론이다. 생명체는 살림살이 즉 생명경제의 주체이다.

2) 생명체는 自生하고, 自養하며 自育하고 스스로 成長한다. 생명주체론은 생명공동체의 자생적 이고 자립적인 대안경제의 기점이 될 것이다. 이것을 생명경제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의 자생적 자립적 살림살이를 칭하는 것이다. 생명을 말함에 있어서 삶, 살림과 같은 개념과 연결하여야 할 것이다.

생명경제체제는 단순히 유기농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기농이나 자연농은 생명농의 한 패러다임이고 탁월한 출발점이다. 나아가서 지역공동체의 자생, 자립경제를 산업경제에 대한 보편적 대안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을 생명적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경제의 대안으로서의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생명경제론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생명의 경제, 상생의 경제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3) 생명체는 스스로 치유(治癒)한다. 생명주체론은 생명체가 질병에 의하여, 상처받아서 그 생명에 위협을 받을 때 스스로 그 몸을 치유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자생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생명 건강론과 의료의 대안적 길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전통의료, 대체의료, 동양의학 전통과 현대의학을 생명주체론에 근거하여 통합하는 대안 건강의료체제를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모든 생명체는 주체적 행동체(Sovereign Agency)이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권의 근거를 발견한다. 이것이 또 생명정치(生命政治)의 기반이다. 생명정치는 모든 생명체의 참여와 연대의 상생과 공생의 정치이다. 이것은 제레미 리프킨의 생명권 정치보다 적극적이며 통전적인 개념이다. 생명정치는 개체의 생명권, 지역공동체의 생명권, 지구공동체, 우주공동체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정치이다.

5) 모든 생명체는 독립적인 고유한 몸(個體)을 형성한다. 몸은 주체의 존재양식이다. 생명은 몸은 우주적 차원(천지의 생명공동체), 지역적 차원(지역 생명공동체), 개체적 차원(개체의 몸)으로 형성된다.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는 생명체의 부분을 <생명>이라고 할 수 없다. 모든 생명체는 우주와 “일체”를 형성하여 우주환경과 교호작용을 하며 적응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실체이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직조망(Network or Web)을 형성하며 다른 생명체와 상생/공생한다. 모든 생명체는 우주, 생태, 사회, 문화적으로 함께 사는 집합생명체(Corporate Body)를 형성한다. 생명체와 비 생명체를 분리할 수 없고 유기적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생명의 상생공생질서는 생명체간의 적자생존적, 약육강식적 폭력질서를 극복하고 생명안보(Life Security)를 보장하는 협동, 연대질서를 의미한다. 생명주체론은 ‘생명체는 자생적으로 상생적이고 공생적이다’고 인식한다.

6)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交信하고 自盛하고 自應, 自省하며, 自由하다. 그럼으로 모든 생명체는 새 생명을 지향하는 창조적 존재이다. 통전적 집합생명체는 자연과학적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문화적, 종교적으로도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생명문화운동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정원의 잔치(Conviviality of Life)라고 불릴 수 있다. 여기에서 생명의 아름다움, 생명의 신비, 생명의 성스러움을 이룬다. 생명은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므로 성스러운 것이다.

7) 생명은 모든 생명체의 바른 관계 즉 상생과 공생의 관계인 정의와 평화를 기본 질서로 한다. 지 정확하게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생명의 질서라는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이것이 전쟁을 평화의 수단으로 보는 원인이다. 생명의 정원, 우주적, 지구적, 지역적 정원을 위하여 모든 생명체는 공동생명안보, 공동 “생명충만”을 위한 참여하고 연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생명평화운동이다. 여기서 모든 생명체가 동참하는 太平의 비전을 보게 된다. 이것을 우리의 조상들은 太平聖代라고 불렀다.

8) 이것은 우주사를 생명사로 보는 시각을 유발한다. 인간역사(Human History)도 자연역사(Natural History)도 생명사이다. 인간역사와 자연역사는 분리할 수 없다. 생명사는 모든 생명체의 삶과 살림의 총체적 역사일 것이다. 이것을 나는 생명전기(Zeography=Story of Living of All Living Beings)라고 말하고 싶다.

생명경제, 상생경영은 총체적 생명질서 안에서 논하고 분리하여 따로 논할 수 없다. 그러나 생명체의 살림살이를 경제/경영적 측면에서 논하여 총체적인 살림살이의 관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생명경제는 지구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생명적 과정을 극복하고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생명은 모든 생명체의 삶과 실림을 포괄하는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이다. 생명경제란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리고 살아가는 “살림살이”로 규정할 수 있다. 성경에서는 생명의 집을 경영(Oikonomia=Oikos+Nomos)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經世濟民이라고 하여 經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을 가진다. 현대적인 표현을 쓴다면 政治經濟를 의미한다. 생명체의 삶과 상생질서가 경제질서의 근간이라면 근대경제학은 이를 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생명경제의 탐구는 근대적 경제교과서가 아니라 생명의 지혜탐구에서 출발한다.



# 새문명이 지향하는 생명평화운동<sup>21)</sup>

김 용 복

2020년 한반도의 생명체들은 전 세계와 함께 이 생명망의 안전위협을 심각하게 받았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것이 유포되면서 이 위협이 극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또 건강이 약한 이들은 사망하게 되었다.

이 현실에 대하여 정부와 보건의료체제는 그리고 개인 시민들과 가족들은 보건의료적 시각에서 대응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태는 한반도의 생명체의 생명 망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은 인간공동체 <사회적 안전망>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인간의 신체적 약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생명체의 <사회경제적 생명 망>인 가정의 건강체계가 사회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가정이라는 생명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의, 식, 주, 보건, 교육, 생태환경>의 기본적 삶의 틀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안전망의 와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미흡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문제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생물학적인 보건의료적 생명망의 안전과 사회경제적 안전망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음을 말하여 준다.

기본적인 생명망을 파괴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간 생명 공동체를 위협하는 현실은 우리에게 오늘 지구의 총체적인 생명 안전, 생명망의 안전을 생각하게 한다. 이런 시좌에서 지구적으로 근대 역사, 아니

최근의 역사적 추이에 대한 성찰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한반도의 생명 ㅂ를 보더라도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의하여 군사적 한반도 침공(청일전쟁/러일전쟁), 식민지화에 의한 정치적 억압과 학살, 사회경제적 폭력, 문화적 폭력에 의한 기본 생명안전망의 파괴가 자행되었다. 이 과정은 일제가 2차 중일전쟁(1937년)을 시작으로 하여 일제의 태평양전쟁 수행에 의하여 정치적 안전, 사회경제적 안전, 문화적 폭력, 일제의 전쟁을 위한 총동원 체제에 의한 생명안전망의 와해 그리고 1945년 8월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에(인간생명만 70만 명 희생) 의한 핵무기시대의 출발된 역사는 지구생명망 안전에 심각한 역적 과정이 전개되었다.

1945년 일본이 패배한 이후 한반도는 강대국의 패권경제에 의한 군사적 점령과 분단의 구조에 매인다. 이는 거대한 살생으로 이어지는 3년 한국전쟁이 지속되고 이은 70여 년동안 살생적 군사체제대립의 냉전체제가 지속되고 이는 핵전쟁체제로 구성되었으며 이것은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의 불씨를 지속시키고 있다. 한반도 중심의 핵무기체제의 대립은 강도 높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것이 신냉전적 패권전쟁의 흐름은 제 3차 세계대전으로의 추이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지구는 심각한 생태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생태계는 산업경제의 무한한 확대에 의하여 생명안전망, 생태적 안전망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특히 생명체계는 자본이 지배하는 <과학기술체제>에 의하여 조작되어 생태계의 생명망이 근원적으로 왜곡되고 있다. 이 생명체의 조작은 군사적 생화학 무기로도 개발되어 생명망의 왜곡뿐 아니라 생명망이 생명파괴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과정은 생명망이 생명파괴의 생명 살생망으로 변이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명망의 안전을 해치는 생물 네트워크로 변이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생명체는 주체이다.’는 명제는 물리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적 실체가 긍정되어야 한다. 생명체는 개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공동체로서 존재하기 위하여 생명망을 구축하고 이 생명망은 상생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생명체의 상생망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이것은 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생명체가 주체라는 명제는 생명체가 영적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생명체는 주체임으로 상생적 생명망은 주체와 주체의 결합, 신비로운 결합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이해된다.

인간생명체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인간은 생명주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생성된 생명망을 지탱하기 위하여 영성적 실체(Spirituality)를 기반으로 한다. 이 생명체와 생명망은 문화적 기반, 사회적 기반, 생물학적 기반(인간이외의 모든 생명체를 포괄하는 생태적 연관성), 물리적 기반(전지구적/전우주적 기반)을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명망이 상생적이라는 명제를 중요시한다. 이런 <상생 망>이라야 생명망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1) [생명학서지生命智慧書誌] 신년사(2021. 1. 1.) 중에서

지구상의 생명중심의 문명은 상생적 생명망의 미래를 위하여 생명망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제를 다루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의 명제를 논해야 할 것이다.

- ① 우선 상생적 생명망의 형성과 그 발전의 기반과 역사를 논하여야 할 것이다.
- ② 지구상의 생명과괴 즉 생명망의 안전을 저해하는 세력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질병과 자연재해, 권력(왕권, 국가권력, 제국에 의한 살생(전쟁과 폭력), 탐욕적 경제체제, 사회적 폭력, 문화적 폭력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 ③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한 저항의 생명력 즉, 상생적 생명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저항의 생명력은 생명체가 생명망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운동에 의하여 형성될 것이다. 이 경험의 역사가 상생적 생명망 보전의 지혜를 제공할 것이다.
- ④ 생명체의 생명망의 미래 비전 즉, 생명주체의 확고한 기반형성, 생명망의 통전적 비전과 형성을 넘어 생명공동체의 오메가인 생명의 풍류와 향연을 선취하여야 할 것이다.
- ⑤ 인류 역사만 보더라도 결정적 시기(Axial Age)에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형성되었다. 우리는 이 역사와 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토대로 하여 생명역사의 미래적 진로를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새문명이 지향하는 생명운동, 평화운동, 상생운동, 생명문화운동일 것이다. 이제 한반도에서 평화상생운동의 여명을 받는 우리 민족이 전 세계의 살생 위협을 겪고 있는 민족들과 결합하고 융합하여 우주의 상생평화의 깃발을 들어야 할 것이다.

평화상생의 잔치에 모든 민족들을 초대하고 온 우주 생명체들과 생명마을을 재창출하면서 모든 생명 생명체를 살리고 상생의 삶을 누리는 풍류를 선취하자는 것이다.

## 새로운 지구제국의 출현과 상생페다고지, 평화행동<sup>22)</sup>

김 용 복

### 한국 역사적 시각

한반도의 민중/인민은 동아시아 지역을 터전으로 살아온 민족 근대사에서 열강의 패권 전쟁과 식민통치와 민족분단 그리고 한국전쟁, 나아가 세계적 냉전체제의 희생양이 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19세기 중반부터 새로운 영적 각성을 심화하면서 세기말 동학 농민 혁명운동을 촉발하였고 의병항쟁, 일본 제국주의 지배에서의 해방을 위한 동아시아와 전 세계를 누비며 독립운동 전개해왔다. 그리고 이 민족 독립 해방 운동의 핵을 이루었던 1919년 3.1운동을 일으켜 생명과 평화를 누리기 위한 줄기찬 역사적 행보를 전개해왔다. 우리는 이 한반도에 살아온 민족의 수난과 고통을 영적으로 분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또 우리 민족은 1937년의 중일전쟁에서부터 1945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천황제국의 전쟁 수행체제에 총동원되는 희생을 경험하였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한반도의 비극적 민족 분단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한국전쟁, 세계적 냉전 체제 속에서 극심한 지정학적 패권의 희생을 경험해왔다. 우리는 이 역사를 민족의 생명 전기(Zoography)의 틀 속에서 새로운 역사 해석을 구상한다. 그 요체는 민족 수난사(Thanatography: 피살생사)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민족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줄기찬 삶의 행진의 심오한 생명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고 이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 해석을 영적 해석학으로 전개하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과제를 위해서는 근대 민족사학을 토대로 하여야 하겠지만, 이를 초

22) <신학사상(2019년)>에 실린 '21세기 한반도 평화 상생의 배움터는 어떤 미래를 선취할 것인가?' 제하의 김용복 박사님 글을 일부 내용을 줄여 '새로운 지구제국의 출현과 상생페다고지, 평화행동'으로 다시 실었다.

월하여 민족사의 심층에 흐르는 생명의 영적 동력을 분별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제안하는 영적 역사 해석학은 조선 말기 동학 농민 혁명의 동력으로 표출되었던 생명과 평화의 동력은 어떤 것이었으며 민족 독립을 위한 의병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독립운동, 그리고 기미 3.1독립운동의 총합적 영적 동력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분별하고,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여 민족 대동 통일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려고 한반도 내부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단의 수난을 겪으면서 전개했던 반도 내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분단 세력에 저항했던 민족 통일 운동, 평화 운동의 동력과 그 좌표를 분별하려는 것이다.<sup>23)</sup>

### 1.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새 지구 제국(Global Empire)의 출현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현 시대의 징조를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새 제국의 출현이다. 구체적으로 이 새 제국은 미 제국(American Empire)이다. 이 제국이 새로운 제국임은 지금까지의 제국과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금도 형성, 전개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이 제국은 한반도에서 19세기 말부터 지정학적 패권 정치에 개입하여 왔고, 2차 세계대전에 직접 가담하였으며, 2차 세계 대전 후 민족 분단과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냉전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를 이에 편입시킨 것이다. 이 제국의 실체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인류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제국을 다양하게 경험해왔다. 서아시아에서 이집트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오스만 제국 등을 경험하였고, 중앙아시아에서 몽고제국, 중국에서는 진(晉) 제국을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 천황제국을 경험했다. 근대에 와서는 대영 제국을 비롯한 서양 제국들의 잠입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 제국들은 지구의 끝까지 지배하려고 하였지만 이를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금 미 제국은 총체적인 지구적 제국(Global Empire)이다.

미 제국의 전 지구적 성격은 20세기 말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더 분명해졌다. 냉전체제에서는 양극 대립적 권력 관계를 이루었으나 양극국체제(Bi~ polar Regime)의 해체는 일극 체제(Mono~ polar Regime)의 출현을 허용하였다. 이것이 미 제국의 전 지구적 성격이다. 미국의 지정학적인 세계 지배는 미국을 전 지구적 제국으로 구축하고 있다. 911 사태 이후 이 경향은 노골화되었다. 미국은 소위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을 선포하였다. 이 전쟁은 항시적 전쟁(Permanent War)이며, 전 지구적 전쟁(Global War)이며, 동시에 전멸 전쟁(Omnicidal War)이며, 총력 전쟁(Total War)이다. 이 전쟁은 미국

23) 1988년에 천명한 한국교회의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 선언"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으로부터 전 지구적인 군사적 패권을 장악할 목표를 설정하게 한다.<sup>24)</sup> 미국은 원자탄과 같은 가공할 첨단 무기, 대량 학살 무기를 생산하였으며 고도의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최첨단 무기와 전략/전술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천문학적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지구 시장과 유착된 미국의 지정학적인 제국은 지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과학기술체제(Technocracy)와 융합되어 있다. 지구 시장은 초국적 기업, 초국적 자본과 같은 에이전트(Agent)가 과학기술체제를 토대로 지구의 끝까지 지배하고 있다.<sup>25)</sup> 지구 시장과 지구 지배 과정(Global Governance)에 정치적 감시(Political Surveillance)와 과학 기술 체제적 군사 질서(Technocratic Military Order)는 지구적 언론(Global Media)에 의하여 누벼지고 있는데, 이 또한 지구적 과학 기술 체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지구 제국의 특색은 최첨단 과학 기술 체위 융합(Convergence: MIMAC=Military, Industrial, Media and Academic Complex)을 그 내면 구성으로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구 제국의 현실은 새로운 것이고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여 보지 못한 것이다. 미 제국의 형성은 세계화된 지구 자본 체제(Global Capital Regime) 즉 지구 시장 체제와 결부되어 있다. 미 제국은 이러한 지구 시장 체제를 지속시키고 있다. 더구나 이 제국의 핵심적 조직 원리는 현금 진행되고 있는 초인간적 첨단 과학기술적 융합 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제국은 지구뿐 아니라 전 우주를 장악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 1) 지구 제국의 내면 역사

미국이라는 지구 제국은 그 기원과 내면동력이 독특하다. 근대서구에서 이루어진 신 국민국가(Nation State) 형태를 가지고 태어났다. 유럽의 근대국가권력이 시장을 확대하려고 신대륙을 점령하고 세계를 식민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근대국가로서의 미국이 탄생하였다. 미국은 토착민에 의하여 세워지지 않았다. 미국은 토착 원주민을 정복(Conquest)하는 체제로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주 토착민은 학살과 지배의 대상이었다. 이 과정은 인종 말살적(Racial Genocide)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학살적 정복(Genocidal Conquest)은 구약성경의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설화로 정당화되었고 이것은 기독교적 선민의식으로 무장하였기에 학살이라도 제약 없이 결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종교 이데올로기는 오늘도 미국의 몸체(Body Politics)에 깊이 내재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적 기독교 정치시온주

24) The nature of war has been radically transformed into limitless war in time and space under the geo~ politics of global empire. But the omnipotent power of empire can never obtain "total security." Its absolute power through modern military technocracy—omnicidal weapons systems and the claim of omnipotent power—constitutes a tyranny over all living beings. (Manila Declaration, 2005)

25) Barnet & Muhler, Global Reach, 1972(?)

의(American Christian Zionism)의 형태를 조성하였다.<sup>26)</sup> 미주원주민 공동체(Native American Communities)는 미제국의 이런 성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면적 정치 종교 콤플렉스는 미국이 미주의 땅(Land)을 탈취하고 정복하는 일을 정당화하였고 이것은 원주민의 문화를 말살하였고 그들의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데 이르렀다. 이 콤플렉스는 미국이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수입하여 동물 취급하였던 일이나, 아시아 인종들을 차별하는 일에서도 노출되었다. 이것은 아시아에 있어서 제 2차 세계 전쟁 즉 태평양전쟁, 한국전쟁과 월남 전쟁을 하면서도 내면적으로 작동하였다. 이 이야기는 미주 원주민을 정복하는 카우보이(Cowboy against Indians)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런 미국은 새로 조립된 근대국가(Modern Nation State)로 태어났다. 프랑스와 영국의 자유주의적 결합을 배경으로 하여 미국의 헌법이 형성되었다. 특히 미국은 형식적으로 종교적 기반을 정체에서 제거하고 탈 종교적 근대국가를 건립이었다. 형식적으로는 탈종교적 근대국가는 근대(Modernity)를 지상의 가치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것이 미국 헌법의 정교분리이다. 미국 헌법은 토머스 홉스의 근대 정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인과 개인의 자유를 지상의 가치로 정하고, 사유재산제도를 신주처럼 모시며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레비아탄(Leviathan)이라는 마왕과 같은 권력 체제를 형성하는 기본법이었다. 이것은 미합중국의 사회 계약의 내용이며, 미국의 정치사의 기원이다. 나아가 미국은 근대자연 과학과 기술로 자연을 정복하는 과학 발전의 지상 천국을 이루었다. 이것이 오늘 미국을 구성하는 3대 요소이다. 무한한 자유를 숭상하는 개인주의, 무한한 소유를 보장하는 사유 재산 제도, 과학 연구를 무한히 할 수 있는 연구와 학문의 자유 등이다.

이제 미국은 지구적 “마왕”(Global Leviathan)으로 군림하는 새 차원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을 새로운 지구 제국으로 규명하는 내역이다. 이 지구 제국은 전 지구를 사유 재산 체제로 개편하고 자본의 사유 재산 체제를 지구화하며, 이를 위하여 소위 자유주의 질서(Liberal Order)를 지구 통치 질서로 수립하고 경제적 자유 시장 체제를 무한히 확대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지구적 구사 질서를 형성하고 지정학적 헤게모니를 구축한다. 이런 마왕의 체제는 첨단과학 기술체제(Technocracy)로 그 직조(Texture)를 구성하고 통합하며 융합한다. 특히 신자유주의는 자연인 개인이 아니라 기업 법인의 자유를 무한히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전통적인 사회 정의와 사회 복지를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애덤 스미스적인 교리이다.

이 지구 제국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새롭게 시도되어야 한다. 이는 전통적 전제체제(Traditional

Despotism) 이론이나 레닌의 계급주의적인 제국 이론(Imperialism)으로는 지구 제국의 새로운 차원을 포착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자들도 미 제국(American Empire)은 과거의 제국과 다르다. 이것은 미국이 세계를 이롭게 하는 제국이라는 정치적 메시아 콤플렉스(Political Messianic Complex)를 표현한 것이지만 우리가 지적한 대로 “지구적 마왕”으로서의 미국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고 아직도 생성되고 있으며 완전히 지구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

반복하여 요약하면 오늘 형성되고 있는 지구 제국은 ① 지구 자본주의 체제를 완성하여 지구 살림살이를 풍요롭게 한다는 명분으로 자본의 무한한 탐욕을 충족하려 하고 있다. ② 또 이것은 최첨단 군사력으로 지구적 군사 질서를 장악하고 지구적 지정학적 패권을 구축하고 있다. ③ 세계 정치 질서를 자유주의라는 미명의 지배하는 질서를 이루어 가고 있다. ④ 이 지구 제국은 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극도의 적자생존론적인 갈등, 즉 계급 간, 인종 간, 젠더 간, 민족 간, 강자와 약자 간의 갈등을 격화하고 폭력화하는 사회적 “폭력의 늪”을 형성하고 있다. ⑤ 이 지구 제국은 과학기술 문명으로 세계 민족들의 문화를 와해하고 파괴하여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가치, 문화적 심미성, 문화 정신을 근원적으로 장악하여 시장화하고 그 근간을 붕괴시키고 있다. ⑥ 이 지구 자본은 세계 종교 특히 기독교와 밀착되어 있고 mammon의 신으로 신을 대치한다. ⑦ 이 지구 제국은 그 과학 기술 체제로 모든 생명체의 전 우주적인 지배(Macro-cosmic Control)를 도모하고 있으며, 대 우주적 생태계(Macro~cosmic Ecology)를 점령하고 파괴하여 가고 있다. 이처럼 지구 제국은 총체적 지배를 도모하고 있다. ⑧ 지구 제국은 첨단 과학 기술 체제를 통하여 초 인간적 세계(World of Transhumanism)에 진입하고 있다. 인간보다 우수한 존재를 인위적으로 “창조”하여 인간의 결합을 극복하며 “새로운 초인간적 질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sup>27)</sup> 그리하여 우리는 이를 3두 마왕(3 Headed Leviathan)이라는 은유를 가지고 명명한다.

## 2. 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생명 평화 운동과 지구제국에 대한 대응

오늘의 제국체제에 대한 대응도 로마제국(Pax Romana)에 대응한 예수의 생명 평화 운동을 근간으로 하고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sup>28)</sup> 기독교 에큐메니컬 운동은 <지구 제국>이라는 화두를 이 시대의 시운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의제로 삼기 시작하였다. 아시아에서는 2002년 마닐라에서 지구화와 테러

27) National Science Foundation, Convergence of Technologies: Human Improvement, 2002

28) 예수의 생명전기와 생명담론

1) 생명 담론으로서의 신학은 현대 서구 신학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모든 학문과 접속하고 통섭하는 통전적 담론이어야 할 것이다. 신학이 모든 학문에 군림하기 보다는 모든 학문 분야에 봉사하는 생명의 지혜이어야 한다. 특히 과학적 서술과 윤리적 담론의 분

26) Richard Niebuhr, Kingdom of God in America, Harper & Row, 1937

에 대한 전쟁(Globalization and War on Terror) Ninan Koshy, (War on Terror, CCA, 2002)는 주제 강사로 <제국론>을 제안하였고 이운동의 주역을 담당한다.

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지구 제국>을 에큐메니컬 운동의 이론과 실천의 틀(Primary Point of Reference)로 정하였다. 그리고 생명 평화를 위한 논단(People's Forum on Peace for Life)이라는 운동체를 제안하였고, 이 운동은 지구적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제안은 2004년 세계개혁교회연맹(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Accra 총회에서 수용하여 에큐메니컬 선교의 기본 틀로 <지구 제국론>을 정하였다. 이 과정은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에서 토론되다가 세계의 의식이 있는 신학자들에 의하여 제안되고 WARC가 후원하여 지구 제국에 대한 마닐라 선언(Manila Declaration, 2006)을 선포한다.<sup>29)</sup>

지구 제국에 대응하는 새로운 담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운동은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한국을 이으면서 새로운 담론을 시도하고 있다. 2007년 대한민국 강원도 화천군에서 3년 동안 진행되어 완성된 생명 평화 헌장(People's Charter on Peace for Life)이 선포된다. 남미에서도 아르헨티나의 Nestor Miguez 교수<sup>30)</sup>를 중심으로 지정학적인 담론이 새롭게 전개되면서 지구 제국론이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신학자들과 지식인들이 2002년부터 <제국론>에 대한 새로운 토론을 시작하였다. 유

니언 신학교(Uni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성서와 제국(New Testament and Empire), 드류 대학교(Drew University)에서 제국(Empire)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다. WARC의 제안을 받아 캐나다의 United Church of Canada는 <제국론>을 2006년 총회 주제로 삼고 중요한 선교적 결정을 하였다. 이런 운동은 소위 제국의 뱃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국의 억압을 직접 경험하면서 논하는 <지구 제국론>이 제 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상호 수렴 통합되어 보다 보편적인 담론으로 발전될 것이다. 지구 제국에 대한 대응은 지구 제국의 희생자인 가난한 사람들, 전쟁으로 희생당하는 사람들(여성과 어린이들),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지구 시장의 노예가 되어 그 굴레에 사로잡힌 사람들(노동자, 농민, 소비자)의 체험과 생태계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가는 모든 생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생명체들은 새로운 생명 질서를 꿈꾸고 있으며, 지구 제국의 횡포에 저항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구 제국>에 대응하는 담론은 세계 종교들이 함유한 생명의 지혜를 수렴 통합하고, 지구 제국에서 희생당해온 민족들의 문화적 지혜를 새롭게 재홍하며 온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의 삶의 지혜를 배워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 담론을 <생명 담론>에서 구하려고 하였고 기독교 신학자로서는 갈릴리 예수를 생명의 지혜로 전위하여 모든 생명 지혜를 수렴 통합하면서 예수의 생명 이야기(Zoography)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수는 로마제국에 저항하였고 이전의 제국에 대한 저항 전통을 수렴 통합하면서 새 지평으로서 생명 담론을 전개하였다. 예수의 생명 담론은 지혜의 담론이며 부활의 담론으로서 로마제국의 지배이념을 극복하며, 나아가서 유대교의 종교 이데올로기에서 해방된 탈 유대교적인 담론이었다.

그러나 이제 영적 역사 해석의 담론은 일반적 담론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담론은 <생명 담론>으로 전개되어 지구 제국에 전면적인 대응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지구 제국에 대응하려는 생명/평화 담론은 1) 상생적 생명 질서를 위한 비전의 창출, 2) 지구 위의 태평의 비전, 3) 모든 생명체가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참여의 살림살이, 4) 모든 생명체가 상부상조하고는 공동체 질서, 5) 모든 공동체가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향연의 비전, 6) 몸과 맘이 개체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주적으로 온전하고 건강한 생명력 보전의 비전, 7) 생명의 지혜를 보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삶을 보장하는 담론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생명 담론을 동학운동, 3.1운동, 70년대의 운동의 담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우리의 주변 강대국의 제국적 실체를 꿰뚫어 보고 그들에게 내재하여 있는 생명 담론을 추출하며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생명 운동과 대화하며 특히 지구 제국의 타깃이 되어 있는 이슬람권 내부에서 창조되는 새 생명 담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세계선교협의회(Council for World Mission)에서 이어받아 DARE(Discerning and Radical Engagement)프로그램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

열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동양의 생명우주관은 윤리적/철학적 통일을 가지고 있다.  
 2) 생명 담론으로서의 신학은 모든 종교적 감옥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종교가 신앙의 산실이기 는 하지만 생명담론의 실천은 생명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생명 해방 운동 실천의 현장에서 생명에 관한 모든 담론과 교호작용하고 통전 수렴 통합한다.  
 3) 신학은 생명 담론의 통전을 위하여 (1) 민중 신학, (2) 여성신학, (3) 종교 신학 (4) 생태신학을 통전하여야 하며 이를 상호 수렴 통합의 길을 통하여 통전적 생명 담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이미 여성신학에서 상당 수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민중 신학은 동학과 3.1운동에서 종교사상의 합일적 수렴통합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서남동에게서 민중신학과 생태 신학의 수렴통합을 예시 받고 있다.  
 4) 통전적 생명 담론의 수렴 통합의 과정은 다양하고 역동적이다. 주역의 논리가 좋은 은유이다. 주어진 시운에 따라 음양, 오행, 개효가 수렴 통합되는 것처럼, 생명의 카이로스(시운)에 따라 다양하고 역동적인 수렴 통합이 이루어져 모든 생명체의 상생 질서를 형성한다. 이것이 생명 해방 운동의 오메가 포인트 즉 모든 생명체가 동거하는 상생 질서의 거점이요 종점이다.  
 5) 생명 담론은 주체적이고 자주적이다. 생명이 주체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생명은 고유한 시공의 방위를 가지고 있고 이 방위는 역동적으로 변한다. 따라서 한국의 생명 담론(신학)은 그 자체의 맥락과 시공의 방위를 구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좌표에서 서구의 신학적 유산을 변혁하고 조정하고 걸러서 수렴 통합한다. 서구 신학과 대화가 이 과정의 한 방편이 되는 것이다.  
 6) 신학적 지향의 전환을 위하여 생명 중심의 새 담론으로서의 신학을 제청하였다. 예수의 생명 전기와 생명 담론으로서의 신학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감옥에서 해방된 생명의 예수를 재발견하고 이 이야기를 오늘의 시공적 방위에서 전개하는 것이다. 이는 온 세상에 생명의 충만함을 위한 것이다.( Convergence of all living beings for fullness of life.) 이것이 한국 신학의 제 3의 물결 즉 생명 중심의 신학 즉 생명 생태 신학, 생명 평화 신학, 생명 경제 신학, 생명 정치 신학, 생명 여성 신학, 생명 해방 신학, 생명 문화 신학, 생명 종교 신학의 통전적 수렴 통합의 길이 될 것이다. —

29) An Ecumenical Faith Stance Against Global Empire: For a Liberated Earth Community일

30) 그의 요한계시록 주석은 중요하다. 장신

### 3. 생명 평화 연구/교육의 새 패러다임

#### 3.1. 민족의 생명학적 전기는 평화학의 열개이다.

민족의 생명 전기: 민족의 일생은 전쟁과 전쟁구조에서 이루어졌다.

- ① 우리 민족은 해오름을 맞이하는 생명공동체로서 지는 해의 황홀함을 만끽하는 지구마을의 동쪽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살림살이를 일구는 동네의 겨레이다는 자각이 정초를 이룬다.
- ② 한반도 민족사에 대한 영적 성찰(해석학): 전쟁과 평화를 축으로 하면서
- ③ 겨레가 체험한 전쟁사의 3차원 즉 (가) 전통적 대륙세력 침공의 영향, (나) 19세기 후반부터 경험한 지구 강대국가의 패권 경쟁과 이어지는 일본주의 제국의 신민 통치 폭력, (다) 세계 2차대전 종결과 외국 정의 점령과 민족분단 그리고 이어진 한국전쟁과 냉전적 한반도 분단체제의 수난의 맥락에서 새로운 겨레의 미래를 어떻게 창출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고 고민한다.
- ④ 분명한 우리 겨레의 평화와 상생의 비전은 분명히 민중적이다. 민중의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평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반도발 평화 비전의 고유함과 보편성이 교차할 것이다. 이것은 제국들의 평화와 다르기 때문이다.

기미년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이다.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하여 민족운동이 하나 되자 —김규식. 김구의 독립 운동체 상해 임시정부와 국내의 독립운동들을 한반도를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한반도, 우리 민족, 세계의 분단 체제를 근원적으로 거부하고 저항하는 이루어지는 평화 상생 운동이 아닌가?

#### 3.2 왜 상생 평화 Pedagogy인가?

민족사의 생명 전기(살생 희생의 역사)는 상생 평화를 생태적으로 열망하고 회구하게 되어 있다. 민족사의 삶(살림살이의 지혜)는 이 생명 전기의 필연적, 유기적 소산이다. 단군 설화의 선도(仙道), 풍류 전통은 이런 지혜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며 유교, 불교, 도교 등은 민족의 생명 전기 속에서 변혁/융합되어 재구성되었다. 유교의 대동 태평성대의 사상이나 불교의 미륵 정토사상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것이 되었다.

이런 사상들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융합 재구성되어 민족 얼의 창조적 영성을 형성하였는데 그 일환이 19세기 중반 동학/천도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융합과정은 실학 유교 운동 등 개화사상의 근간을 이루었고, 서구 계몽주의 사상과 합류하면서 기독교와 접하고 20세기 중반에는 민족 독립 평화 생명 운동의 주류를 형성한 3.1 운동과 그 정신적, 사상적, 실천적 대 계기를 국내외적으로 이루었다.

2019년은 이 민족의 민본적 거사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시운이 도래하였다. 때마침 남북이 세계적

분단과 갈등과 전쟁과 폭력의 상처를 치유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룰 시운을 맞게 되었다. 민족적 소임, 동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평화 상생을 위한 소임을 자각하게 된다. 이 사건을 통해서 민족사를 해석하면 왜 우리 민족이 평화와 상생의 세계적, 우주적 개혁을 위해 그 시대적 소임을 감당하여야 하는가를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사는 서 고대 아시아에서 주변 강대 제국들에게 술한 시련을 당하던 팔레스타인 민족들의 공동체에서 예수 운동, 정의를 위한 예언자적 운동, 화해를 위한 회복과 치유의 운동 변혁 운동이 메시아적 평화 생명 운동으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밝혀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의 답을 제시해 준다.

한국 기독교는 서양 선교사들과 그 선교단체들에 의하여 한반도에 전파되었음에도, 여전히 서구 제국적 틀거리를 완전히 벗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족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신앙적 본질이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기독교 신앙과 영성의 한국 역사화라는 종교 혁명적 면모를 보여 주기 시작하였다.

#### 3.3. 평화 상생 페다고지의 영성적 기반

한국 기독교 공동체의 역사적 영성은 일본주의 제국 식민지 정권과 그 정책에 근원적으로 저항하는 예언자적 정의의 영성, 전쟁과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족과 그 생명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의 영성, 그리고 모든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평화의 영성, 그리하여 평화의 동산에서 살고 살리는 삶의 희열을 체험하면서 생명의 잔치로 진입하려는 희망과 열정을 충만히 주는 메시아 운동의 영성, 곧 다시 태어나는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영성이 민족의 수난사, 분단사의 한복판에 그루터기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 3.4. 평화 상생 페다고지의 지평

- ① 통전적 생명 교육이어야 한다. : 기독교 영성은 생명의 총체적인 살림살이에 학문적으로, 실천적으로, 생명영성이 화육하여 구현되어야 한다. 근대 학문의 탈 신앙화는 학문을 금권 탐욕과 권력 구조의 시녀로 변질시켰다. 기독교 신앙은 동시에 기독교 종단의 아성을 넘어 삶의 전 영역을 그 사역의 현장으로 삼아야 한다. 이 명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생명 동산의 살림살이에서 생명 동반의 주체로 창조하시는 역사는 명제이다. 그리고 이 생명 주체를 살리기 위해 예수는 십자가를 수난을 겪었으며, 죽임의 세력에 대한 저항을 통해 승리하고 부활하셨다. 모든 생명체는 살림살이, 즉 평화 일구기와 상생의 주체인 것이다.
- ② 상생 평화 페다고지는 근원적으로 모든 경제적 폭력 저항하고 상생 살림살이를 일군다. 오늘 신자유주의 세계시장 체제에 종속된 생명 희생을 극복하는 상생 경제를 창출한다. 이것이 상생 평

화경제이다. 분단된 민족공동체 사회의 상생 경제의 길을 창조적인 융합의 길로 진입하는 생생한 경제의 지혜를 구축하고 상생 경영 일꾼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 ③ 분단, 정치체제는 상생 평화 정체(政體)로 변혁하여 민주, 민본의 사역(使役)을 위한 참여 질서로 개조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생명체의 주권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는 전지구적 제국권력체제의 극복은 물론 生命政體(생명권의 실체를 구현하는)를 창출하여야 한다.
- ④ 생명 공동체에 내재하고 있는 사회 갈등은 물론 외부 권력과의 종속 관계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갈등과 폭력을 종합적으로 극복하고, 그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고, 정의를 회복하고, 화해를 통해 복지와 웰빙과 행복을 담보할 수 있으며, 자주적 평화 상생 복지를 실현한다.
- ⑤ 문화적 갈등과 폭력을 극복하고, 미와 선과 진을 실현해야 한다. 문화 행동인 교육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이어야 하고, 문화의 자율적 정체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문화 창조는 다양한 문화의 융합에서 창조된다.
- ⑥ 생명 공동체의 상생 평화는 모든 생명권의 담보를 초석으로 하여 생태권의 공동적 보전에서 이루어진다.
- ⑦ 종교의 정치적, 종파적, 사회적, 가치적 갈등은 극복되어야 한다. 종교의 근본인 영적 활력이 증진되어야 한다.
- ⑧ 과학 기술주의 체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정치, 경제적 판권, 탐욕 체제와 유착된 최첨단 살생 무기 체제를 근원적으로 부정하여야 한다. 이런 무기 체제는 안전도 평화도 줄 수 없으며, 이는 동북아 비핵화를 비롯하여 중립화 비무장화를 지향한다.

### 3. 5. 평화 페다고지의 성격

평화 상생 페다고지는 정치권력 주도적 평화 만들기, 지정학적 평화 담론과 정책은 한국 평화론에 적합하지 않다. 이것은 민주, 직접, 참여형으로 국가 정치권력의 역할을 변형하여야 할 것이다. 평화 페다고지는 가정을 비롯한 공동체에서 시작하여 평생적, 통합적, 총체적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평화 페다고지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초국적이어야 할 것이다. 제국이 평화만 즐기기엔 주도적이면 팍스 아메리카나 혹은 팍스 로마나(Pax Americana or Pax Romana)와 같은 결과가 생길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페다고지는 전 민족적 문화 행동(Cultural Action)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변 국가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세계 분쟁지역의 민중과 연대하는 평화 페다고지는 초국적이며 생애 전체를 품는 전 생애 기반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 3. 6. 평화교육의 초국적 판도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판도로 하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이를 오늘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북조선의 2천5백만 동포, 남한의 4천5백만 동포, 중국, 러시아, 일본, 미주와 유럽에 살고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동포를 포함해서 8천만의 민족공동체에서 민족의 소임으로 받은 평화와 상생의 비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와 유라시아 그리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이 비전을 다지고 이를 위해서 평화와 상생의 주체를 부양하고 육성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세계 8천만의 민족적 열망인 평화와 상생의 지혜를 탐구하여 나누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일차적인 파라미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과 정쟁과 갈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에게 수난을 겪었던 국가들, 주변 제국들의 시민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한반도, 동아시아, 세계적 평화의 비전을 공유하는 문화 행동, 즉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적 전쟁과 분쟁지역에서 수난당하면서 평화와 상생을 회구하는 민중들과 연대하는 평화 연구/교육이 요청된다. 이것은 그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우리 겨레의 평화와 상생의 비전이 보다 창조적이고 보다 보편적으로 융합 진화되기 위함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민중의 민족 자결, 평화 상생의 열망은 우리 민족 역사가 경험하는 차원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화와 상생 교육은 한반도에 굳건히 그 배움터를 이루고 여기에 초국적으로 우리 민족 세계 디아스포라, 4대 강국과 유라시아, 그리고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젊은 학생과 평화 연구가, 운동가들을 초대해야 할 것이다.

### 3. 7. 평화학을 새 부대에

생명공동체의 상생을 위하여 민주, 민중, 민본적 평화학의 재구성이 요청된다. 한반도 평화학은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의 융합적 비전, 나아가서 세계 평화의 비전에 공헌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한국 민중학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유의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한국/조선 민중 평화학의 인큐베이션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오늘 유엔현장이 평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평화 만들기(Peace Making)가 아니고 "평화 유지(Peace Keeping)" 즉 강대국 중심의 평화 유지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20세기 이후 군대 국민국가나 그 연합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실패하고, 이제는 전 인류는 물론 전 우주 생명 공동체가 전멸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우리는 핵 없는 세상뿐 아니라 전쟁과 폭력 없는 세상을 꿈꾸며 우주적 상생의 생명 동산을 일구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예수가 설교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내가 바로 평화의 주체다. 내가 바로 평화다.”라는 말씀의 요체는 이 시대의 카이로스적 상황을 표현하고 우리를 이 순례에 초대하는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에 3차원이 있다.

- ① 전쟁과 폭력에 희생되고 수난당한 이들의 치유, 즉 분단과 정쟁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처 받은 생명체의 치유 사역에로의 초대.
- ②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정의로운 바탕에 이루어지는 화해 사역에의 초대.
- ③ 상생 질서의 동산을 이루고 함께 만끽하는 생명의 향연 -평화의 향연 초대된 것이다.

#### 4. 평화행동: 동북아시아 평화와 상생 디아코니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 운동은 1970년대 말에 획기적인 전환을 결정하였다. 당시까지 전개하던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을 민주, 인권운동의 차원에서 냉전 분단체제에 대한 저항/극복을 통해 민족 통일과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운동으로 전환하였다. 에큐메니컬 운동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을 선교적 과제로 선포하고 에큐메니컬 운동의 연구기관으로 세워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사장 김관석 목사)은 민족통일 방안연구를 시작하였고, 1988년에는 ‘한국교회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한 신앙 선언’을 하였으며 이는 WCC와 에큐메니컬 운동(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도산조(東山莊) 프로세스와 남북 그리스도인의 글리온 만남)이 동반해주었다. 이 운동은 노태우 정권 말기에 국제적인 지평을 가지고 전개되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만나 정부의 화해 통일 평화 정책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 기독교 연합 운동은 다시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새 기점으로서 참여의 원칙과 인도주의적인 치유, 바른 관계의 회복, 화해, 통일, 평화의 비전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다시 발효시켜야 할 사역이 요청되고 있다. 다시 역사적 맥락을 생각한다면 다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이후 한반도 역사적 과정을 보면 우리 민족은 4대 국가 정치 권력(일본 제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 미를 중심으로 한 서구 정치권력)의 패권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난을 겪어왔다. 중일전쟁과 러일전쟁과 영미의 정치적 개입으로 한반도는 일제의 식민지화에 종속되어 민족의 자주적인 경제 제민권(經世濟民權)을 박탈당했다.

1930년대에는 일제의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의 감행으로 민족은 일제 전쟁경제의 총체적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결과, 한반도는 민족 분단의 총체적 구조에 휩쓸려 들어갔고 민족전쟁의 처참한 불운과 희생을 경험하게 되었고, 더구나 세계적 냉전체제의 횡포는 분단된

조국과 민족의 자주, 평화 통일을 가로막아 왔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자주, 평화, 통일의 염원을 한시도 놓지 않고 실현하려 하였으며, 20년 전부터 남과 북, 북과 남의 민족 정치 지도자들은 의미 있는 평화 통일 정책에 합의하여 일정한 진전을 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기독교와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한 기도와 실천을 지속하여 왔다. 1988년에는 한국기독교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 선언을 발표하였고 1995년을 민족의 회년으로 선포하였으며, 매년 8.15 광복절을 계기로 공동기도를 실천해왔다. 이 선언은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인도주의 원칙과 민의 참여의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해 온 것이다. 금년 4.27 남북 양 정상 회담과 한반도 평화와 민족번영의 선언은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이러한 역사적 시운을 맞이하여 우리는 민족 상생 경제를 통한 평화와 통일의 구체적인 실천의 길을 연구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협의와 연구와 실천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별히 기독교 운동의 사회 봉사적 사역(Ministry of Social Diakonia)과 사회 경제적 접근(Social Economic Approach)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5. 맺는 말

공생동활을 위한 영성의 거대 에큐메니컬 융합(Grand Ecumenical Convergence of Spiritualities)  
: 평화상생적 우주는 메시아 政體를 태극으로( Messianic Polity as the Omega Point)

제국의 평화(Pax Imperium)에 대한 대응은 전 우주적 상생과 태평을 위한 “메시아적 정체”에서 실체화된다는 영적 분별이었고 이것은 예수가 선포한 그의 나라였으며 거기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함께 상생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모든 생명체의 생명향연(Fiesta of Life)을 누린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 세계를 지배하던 흑암과 혼돈을 극복하고 생명질서를 영원히 창조하며 제국의 마왕이 파괴한 생명체를 새로운 생명공동체로 치유하여, 바른 관계 위에 화해공동체로 재구성하고 모든 민족들과 생명체가 생명의 향연을 누린다. 여기에서는 생명체의 파괴세력은 존재할 수 없으며 영원한 태평성대가 온 우주에 충만한 생명의 삶을 지속적으로 창조한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향연을 선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와 전 세계와 우주에서 이 향연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우리민족이 역사적 수난의 의미를 찾는다면 이 생명향연 창출을 위한 평화사역일 것이다. 이 평화상생사역은 전 우주의 죽어가는 모든 생명체들의 신음을 공명하며 생명의 향연을 연출하는 것일 것이다.



# 김용복 박사의 신학

권진관 성공회대 신학과 은퇴교수

김용복의 신학은 전기의 민중신학, 그리고 후기의 생명학으로 나눌 수 있다. 생명학은 민중신학의 연장이고 확장이므로 민중신학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김용복의 생명학(Zoesophia) 혹은 생명의 전기(Zoegrphy)는 분명 전통적인 민중신학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인다. 그의 두 단계의 신학의 여정을 소개하면, 첫 번째 민중신학의 시기는 대체로 1970년대, 80년대에 걸친 시기로서, 이 때에는 “민중의 사회전기”(the socio-biography of minjung)라고 하는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하여 담론을 펼쳤다. 둘째의 시기는 “생명학” 혹은 생명의 전기라는 내러티브로 사상을 전개했는데, 그 시기는 1990년대 이후 서거하기까지의 기간이다.

## 1. 전반기 김용복의 민중신학 (1970-80년대)

그는 대단한 담론가였다. 민중신학의 가장 중요한 담론들을 던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담론에 영향을 받았다. 민중의 사회전기는 그의 대표적인 담론인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가 42세에 쓴 기념비적인 논문인 “민중의 사회전기와 신학”(1979년)에 잘 나와 있다. 그는 민중의 사회전기가 “신학적 사고를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사회전기라는 말은 “민중의 이야기”이다. 즉 민중의 자기 언어로 구성된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김용복은 지식인의 언어인 이념과 개념을 사회전기와 대립시킨다. 이념이나 개념은 민중

이 아닌 타자의 언어(지배자 혹은 지식인)이지만, 민중의 사회전기는 민중이 스스로 내는 언어이다. 이념이 위로부터 혹은 옆(타인)으로부터의 언어라고 한다면, 민중의 사회전기는 민중으로부터의 언어이다. 밑바닥의 언어인 민중의 언어 안에 민중의 진정한 갈망이 표현된다.

다음의 주요한 내러티브는 “메시아 정치”(messianic politics)이다. 메시아적 정치에 대항하는 담론은 정치적 메시아니즘이고, 여기에는 공산주의나 국가지상주의와 같은 전체주의적 이념과 과학기술세력인 테크노크라시 등이 포함된다. 이에 저항하는 내러티브로서 예수의 해방적인 메시아 정치가 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테크노크라시 내러티브이다. 이 세상은 “과학과 기술에 의해 통일된 하나의 문명권에 편입되어 있으며, 그것은 이데올로기나 국경선, 문화 등을 초월”하여 전 세계 온 인류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생태계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테크노크라시 내러티브와 연결되는 것으로 제국 내러티브가 있다. 군산복합체가 제국과 전쟁무기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생산하여 살생의 문명을 열고, 전쟁과 테러의 세상을 만들어 놓는다. 점점 더 정확하게 그리고 대량으로 살생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더 강력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정밀한 운반체를 생산하여 전 지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생명의 지배 혹은 파괴를 조장하는 제국과 과학기술주의의 세계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언어와 담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 진다. 김용복은 생명담론을 논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의 시기에 김용복은 생명학, 생명사상을 쏟아냈다.

## 2. 김용복 후기의 생명학

### 지구적 제국, 그리고 융합(convergence)의 내러티브

김용복은 전 지구적으로 활보하면서 지구/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관리, 남용, 착취하고, 또 살생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구적 제국(the Global Empire)이라고 불렀다. 이 지구적 제국이 오늘의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 모든 것이 지구화되고 있어서 개별 국가는 지구적 제국의 수족이 될 뿐이다. 제국은 한편으로 군사와 과학기술을 독점 통제하고, 군산복합체를 장악하고, 지구적 시장을 통해서 자기 힘을 확장한다. 지구적 제국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융합의 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내러티브는 이러하다. 제국은 모든 요소들을 수렴통합하고 융합하여 일사불란한 힘을 발휘한다. 그는 전기의 민중신학은 개별 국가적인 상황을 전제했는데, 21세기의 새로운 민중신학은 전지구적 제국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개별 문화적, 국가적 민중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주체 개념을 설정해야 하

며, 민중 대신에 생명이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생명은 전지구적으로 확보하는 생명 파괴세력인 지구적 제국, 지구적 자본, 지구적 시장에 대항할 새로운 주체이다. 생명이 바로 지구적인 정치적 주체(global political subject)이다.

제국의 세력은 융합의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제국을 정점으로 통합한다. 이 획일화를 김용복은 죽음의 문명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지금의 물질적 문명을 thanatography(즉 죽음의 전기, the socio-graphy of death)라고 했다. 이에 대응해서 생명의 지혜, 생명학, 생명의 전기를 제시했다. 이것은 이른바 동서양의 생명의 지혜들의 융합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다. 이렇게 그는 죽음의 내러티브에 대항할 생명의 내러티브를 제시했다. 죽음의 융합세력과 동서양의 생명지혜의 융합의 싸움이다. 생명의 지혜를 획득한 역사의 새로운 주체로서 생명을 상징했다. 이 주체는 우주적 생명의 잔치(fiesta of life)를 이루며 여기에 참여한다.

### 생명, 새로운 주체

상생이란 말이 콘비비엔시아(convivencia, conviviality)이고, 오이코노미아(oikonomia)가 경제(economy)라고 한다면, 오이코노미아 콘비비엔시아(Oikonomia Convivencia)는 상생의 경제를 말한다. 상생의 경제에서의 주체는 생명이다. 생명들이 함께 사는 것이다. 인간, 식물, 동물, 광물, 자연 전체가 생명체이다. 조에소피아(생명학)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생명 중심의 담론이다. 인간의 역사를 포함한 자연의 역사가 중심이 된다. 그리하여 생명이 최상의 주체(sovverign subject)가 되며, 진실한 주체가 된다. 김용복은 생명이라고 하는 상징과 그와 관련되어 생물학적이고 물리학적인 개념인 융합(convergence)을 인문학적인 신학에 적용함으로써 나름 특유한 담론을 형성했다.

생명은 자연, 문화, 사회, 역사, 우주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생명은 헤겔의 정신(Spirit)과 유사하다. 철학자 헤겔의 정신은 자연을 배제한 문화, 사회, 역사 안에서 움직이는 정신인데 비하여 김용복은 자연과 우주까지 포함한다. 김용복의 생명은 앙리 베르그손의 “생명의 약동”(elan vital)과 유사한데, 베르그손의 영향을 받은 질 들뢰즈는 생명 주체는 다양화, 다분화, 차이를 생성한다고 했다. 이에 비해 김용복은 겉으로 볼 때에는 융합과 통합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김용복은 민중신학에 많은 담론을 남겼고, 큰 획을 그은 선지자요, 실천가였다. 그의 언어는 주로 내러티브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의 내러티브와 담론은 분석적이거나 논리적이기보다는 통찰적이고, 영적이다. 그는 민중신학을 비롯한 생태신학 등에서 고민해야 할 많은 언어들을 남겨 놓았다.

## 고 김용복 선생이 꿈꾼 세상<sup>31)</sup>

강 원 돈 길마루글방지기, 민중신학과 사회윤리

### 1. 민중의 메시아적 실천과 살림의 경제<sup>32)</sup>

고 김용복 선생은 민중신학자로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민중신학이 태동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중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공헌했고,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과 신학의 발전에 호흡을 맞추어 가며 민중신학의 지평을 끊임없이 확대했다. 그는 민중의 사회전기라는 관점과 방법을 가지고 성서의 이야기와 민중의 이야기를 독특하게 엮으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민중과 더불어 느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길을 모색했다.

김용복 선생은 민중의 메시아적 실천에 근거한 경제사상을 펼쳤다. 그의 경제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정치경제’이다. 하나님의 정치경제는 사회경제적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로 표현되고 살림의 경

31) 오늘 김용복 선생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그분은 민중의 사회전기를 민중신학에 끌어들이 민중신학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했고, 메시아 정치를 중심으로 현실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애썼다. 그분은 오늘의 세계가 처한 위기를 읽어내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방안을 찾기 위해 창의적으로 생각했다. 그러한 창의적인 사고에는 천재적인 발상이 깃들어 있었고, 현실의 여건을 초과하는 측면이 엿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꿈꾸는 소년이었다. 생애의 후반기에 그분은 생명학 연구에 몰두했다. 그분이 생명을 신학적 주제로 삼은 것은 1980년대 초였으니 훨씬 더 오래전부터였지만, 그분이 본격적으로 생명학을 펼친 것은 새천년이 시작되었을 무렵이었다. 그분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관심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들을 통섭하는 생명학을 전개하고자 했고, 생명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생명학연구원과 생명학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고자 했다. 그 꿈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분의 생명학 연구 요람에 대한 구상은 민들레 씨앗처럼 퍼져 언젠가 싹이 돋고 줄기가 자라고 결실을 맺을 것이다. 고 김용복 선생을 추모하면서 필자는 그분의 경제사상을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글이 다소 길기에 몇 차례 나누어 <에큐메니안>에 실는다.

32) <에큐메니안> 2022.04.07.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08>

제로 구현된다. 이 글에서 필자는 고 김용복 선생의 경제사상이 갖는 의의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음미하면서 고인을 추모하고자 한다.

### 김용복 선생의 경제사상과 민중신학

김용복 선생의 경제사상은 그가 민중신학자로서 기왕에 제시하였던 여러 관점과 명제에 연결되어 있다. 민중의 사회전기, 메시아 정치, 민중 주체성, 종(從)의 도(道) 등은 김용복 선생의 민중신학을 가로지르는 핵심적인 모티프들이다.

### 메시아 정치

1990년 이전까지 김용복 선생의 신학에서 핵심적인 주제를 이루었던 것은 민중의 사회전기를 관통하는 ‘메시아 정치’였다. 그는 이 주제를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정치신학과 문화신학의 영역에서 다루었다. 민중의 사회전기의 신학적 입지점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계약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나는 역사적 틀이다. 따라서 성서의 이야기와 민중의 사회전기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 둘을 분리하면,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사는 초점을 잃는다. 성서의 이야기와 민중의 사회전기는 구체적인 상황과 그 안에서의 민중의 삶을 매개로 해서 서로 엮여져 구원사의 구체적인 핵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 핵이 곧 메시아 정치다.

김용복 선생은 메시아 정치와 메시아주의를 구별하고, 메시아주의의 권력정치적 성격을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메시아 정치의 해방적 성격을 부각시켰다. 메시아 정치가 해방적 성격을 갖는 것은 그것이 권력의 자기중심성을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메시아는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왔고(이사 53장) 자신을 비웠다.(빌립 2,5~ 11) 권력의 행사와 폭력을 포기하였다는 뜻이다. 그는 세상을 지배하는 죄의 권세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그 십자가상의 죽임에서 종말론적인 역전이 일어난다. 그는 죄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그것을 무력화시켰다.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연 것이다. 죽임의 권세가 지배하는 현실을 넘어서서 만물을 새롭게 형성하고 갱신하는 메시아 정치의 현실성과 그 미래가 열린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김용복 선생은 역사 속에서 고난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새로운 현실을 갈망하는 민중의 모습을 본다. 역사적으로 보면 민중은 삶의 모든 영역과 틀에서 권력을 박탈당했다. 민중은 그들을 누르고 그들에게서 삶의 기회를 빼앗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마저도 조작하려는 엄청난 폭력에 노출되었다. 그러나 그 폭력은 민중을 영원히 죽이지는 못한다. 민중은 모든 것이 왜곡되고 굴절된 현실 속에서 자신의 갈망과 희망을 잃지 않고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살아감으로써 폭력의 지배를 무력화한다. 폭

력을 넘어서 있는 곳에 민중의 미래가 있기에 권력의 형성과 그 행사를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서로 봉사하며 서로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가 민중이 지금 살아가고자 하는 현실이고 또 앞으로 나아가며 형성하여야 할 미래의 현실이다.

성서를 관통하는 메시아의 이야기와 역사 속에서 엮여져 가는 민중의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연결하면서 김용복 선생은 민중신학의 형성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매우 중요한 통찰에 이른다. 그의 기본명제는 메시아는 민중적이고 민중은 메시아적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그렇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런 권력도 갖지 않은 민중이 역사의 주체이다. 민중의 주체성은 민중의 메시아적 성격의 본질이다.

### 민중신학의 관점과 방법

만일 민중신학이 민중의 주체성에 충실하려면, 그 관점과 방법은 민중의 주체성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 민중신학은 어떤 고정된 사고의 틀을 고집함으로써 민중의 삶의 총체성을 가리거나 민중이 역사를 통해 표현하는 삶의 구체적 성격을 놓쳐서는 안 된다. 민중의 삶에서 경험과 느낌과 생각과 기대는 서로 분절되어 있지 않다. 이를 서로 떼어 놓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서구의 지성주의 신학은 끊임없이 그러한 잘못을 범해 왔다. 거기에는 신학적 명제들이 이성을 통하여 체계 있게 조직되지만, 인간의 구체적인 경험이 생생하게 전달되지도 않고 구체적인 인간의 느낌이나 기대는 너무 서투르게 다루어지고 있다. 서구의 지성주의 신학은 감성과 이성의 이원론과 감성에 대한 이성의 지배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데올로기적이다. 이데올로기는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든, 현상을 혁명적으로 타파하려고 하든, 민중의 삶의 포괄성과 구체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닫힌 사고의 체계이다. 따라서 민중과 더불어 있으려면 이데올로기에 매이지 않는 시각이 필요하다. 김용복 선생이 민중의 사회전기에 주목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민중의 사회전기는 민중의 삶의 이야기이다. 민중의 삶이 구체적인 현실관계들 속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과 갈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론 역사적 맥락에 대한 분석과 관계들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적이고 사회과학적인 분석은 민중의 사회전기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일 수 없다. 역사적이고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수행할 때에도 그 분석에 전제되어 있는 관점이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지 않은가를 늘 비판적으로 자기반성적으로 살펴야 한다. 민중의 사회전기를 통해 민중의 삶에 접근하고자 할 때,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언어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작된 언어인가를 판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심리학적이고 이데올로기 비판적인 언어분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민중의 고난과 갈망을 표현하는 언어는 이데올로기적 조작의 언어와는 판이한 성격을 갖는다. 왜냐하면 민중의 언어는 몸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 몸의 언어를 담고 있는 틀이 이야기다. 이

야기를 꾸려 나가는 일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야기는 삶과 불가분의 통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민중의 경험과 느낌과 생각과 기대를 유기적 연관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신학은 성서와 역사 속의 민중의 이야기를 출발점으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사가 펼쳐지는 구체적인 통로를 꿰뚫어 보게 된다.

### 민중 주체성 선언의 정치적 의미와 실천론적 의의

민중의 주체성에 대한 통찰은 신학적 관점과 방법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민중의 주체성에 대한 인식은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실천론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치적으로는 민중의 주체성이 현실의 전 영역에서 민중의 정치적 배제가 강요되었던 시대에 선언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독재 권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민중의 자리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때에 민중 주체성이 선언된 것이다. 그 선언은 독재를 근본적으로 부정했고, 현실의 전 영역에 민중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새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참여는 민중의 주체성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한 형식이다. 참여는 그것을 가로막는 배제의 논리와 그 논리를 구현한 구조적인 틀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구현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민중을 배제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득권 세력이다.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온갖 논리를 동원하여 기득권을 정당화하고 이를 폭력으로 지켜내려고 한다. 거기서는 폭력 자체가 질서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정상화된다.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핵심인 소유권도 사실은 정당화된 폭력의 또 다른 표현이다. 왜냐하면, 소유권은 소유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주장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소유권 행사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도외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중의 참여는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타당성 요구를 거부하고, 그 논리의 실천적 기반인 폭력을 지양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것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 종(從)의 도(道)

김용복 선생의 실천론 구상에서 핵심을 이루는 ‘종의 도’(Doularchie)는 바로 이 대목에서 깊이 음미될 필요가 있다. ‘종의 도’는 폭력과 그 행사에 대한 굴종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이 겨냥하는 것은 권력 현상 그 자체의 극복이다. 권력 현상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권력을 행사하는 세력과 권력의 지배를 받는 세력이 서로 갈라진다. 권력은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관철하는 기회이고, 그 의지에 맞서는 타인의 의지를 꺾는 힘이다. 권력은 자기주장과 폭력을 같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한다. 권력은 한정된 사회적 재화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배제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러한 배제와 차별과 억압을 심지어 정당화하고 정상화한다. 그것이 권력을 매개로 해서 관철되는 자

기주장의 정치적 형식과 사회적 형식과 문화적 형식이다.

‘종의 도’는 이러한 자기주장의 근본적인 부정이다. 그것은 자기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남을 일으켜 세워 주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다. 남을 섬기고 남과 더불어 나누고 사귀고자 하는 데 지배와 권력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 지배와 권력이 지양되는 곳에서는 사권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사권은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종의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것이 참여공동체의 내용과 형식이다. 참여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요, 나눔의 공동체요, 사권의 공동체다. 이러한 민중신학적 발상이 경제를 매개로 하여 전개될 때 어떤 경제사상으로 나타날까?

## 2. 에큐메니컬 사회사상과 교류하며 경제사상을 펼치다<sup>33)</sup>

김용복 선생의 경제사상이 담긴 글들은 1990년을 전후로 하여 발표되기 시작했다. 그 글들은 에큐메니컬 사회사상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992년 WCC가 발간한 『기독교 신앙과 오늘의 세계경제』<sup>34)</sup>는 김용복 선생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 그 문서는 1970년대 중반 이래 CCPD(발전을 위한 교회참여 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문제를 분석하고 논의한 성과를 정리한 것인데, 1988년 WCC 중앙위원회는 그 문서의 작성을 CCPD에 위임했다. 그 문서는 WCC의 이름으로 발표되기 전에 여러 나라 교회협의회 차원에서 독회를 거쳤다. 김용복 선생은 그 문서의 한국 독회 과정을 조직했다.

### 『기독교 신앙과 오늘의 세계경제』

CCPD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기독교 신앙과 오늘의 세계경제』는 JPSS(정의롭고 참여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관한 WCC의 논의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1978년 취리히에서 “정치경제와 윤리와 신학”이라는 주제로 열린 협의회에서는 정치윤리에 이바지할 정치경제의 기본개념이 제시되었고, 1979년 CCPD는 AGEM(경제문제에 관한 자문 그룹)을 설치하여 정치경제에 관한 연구를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1979년 4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AGEM의 첫 회의에서는 JPSS 논의를 위한 여섯 가지 지침들이 제시되었다. 그 지침들은 다음과 같다.

33)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12>

34) 홀리오 데 산타아나가 편집해서 1992년 제네바에서 출판된 이 문서의 영문 제목은 Economy as a Matter of Faith(『신앙의 과제로서의 경제』)이다. 그 제목은 경제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의견 제시와 경제 형성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실천이 신앙의 과제이고, 신앙 고백의 수준(status confessiones)에서 경제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 ① 인간의 기본욕구의 충족 : 경제체제가 인류의 기본적인 심리적, 생리적 욕구들을 충족시킨다고 약속하고 있는가?
- ② 정의와 참여 : 이 욕구들은 균등하게 충족되고 있는가? 사람들이 한 사회의 자원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 ③ 지속가능성 : 경제체제가 수세대에 걸쳐서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가?
- ④ 자립 : 경제체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자존심과 자유를 지키고 능력을 계발하도록 만들고 있는가?
- ⑤ 보편성 : 경제체제와 경제정책들이 국민국가나 권역의 정치적 경계를 넘어서서 지구의 인간 가족 전체를 위해 위에서 말한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 ⑥ 평화: 경제체제가 정의에 바탕을 둔 평화의 전망을 촉진하고 있는가?

AGEM은 이 지침들에 따라 1980년 제네바에서 둘째 회의를 열어 세계경제질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1980년 로마에서 열린 셋째 회의에서는 초국적 기업의 문제를 다루었다. 1981년 워싱턴에서 열린 넷째 회의에서는 세계기아 문제를 다루었고, 1984년 제네바에서 열린 다섯째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체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1985년 제네바에서 열린 여섯째 회의에서는 실업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그 해법을 모색했다. 다섯 차례 열린 회의에서는 방대한 문서들이 만들어졌고, 그 문서들은 1992년에 발간한 에큐메니컬 경제문서의 바탕을 이루었다.

### JPSS 논의

경제를 신앙의 과제로 인식한 1992년의 에큐메니컬 문서의 의의를 파악하려면, AGEM의 정치경제 연구의 바탕이 된 JPSS 논의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JPSS 논의는 그 이전까지 에큐메니컬 사회사상의 패러다임을 이루어 왔던 ‘책임사회’ 개념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다. ‘책임사회’ 패러다임은 1937년 옥스포드협의회에서 선을 보였고, 1948년 WCC 암스테르담 창립총회에서 채택되었다. 파시즘과 불세비즘, 그리고 전쟁의 혼돈에서 세상을 해방하고 제대로 형성하고자 하는 에큐메니컬 구상을 담은 ‘책임사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현실을 서로 매개하는 기독교인들의 책임을 유도하는 중간공리(middle axiom)의 성격을 가졌다. ‘책임사회’는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치국가, 경제정의 개념에 입각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 기회균등, 참여의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삼았다. 그런 점에서 ‘책임사회’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제1세계의 현실을 전제로 한 기획이었다.

1966년 제네바의 “교회와 사회” 세계대회에서 제3세계 여러 나라 기독교인들의 경험과 신학적 성찰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책임사회’ 패러다임은 도전에 직면했다. 인간개발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1968년 옹살라 WCC 총회 이후 새로 설립된 CCPD는 정의와 개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 시기에 구스타보 구티에레스(Gustavo Gutiérrez)의 해방신학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본격적으로 수용되었고, 에큐메니컬 사회사상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했다. ‘책임사회’ 패러다임의 신학적 골격을 이루었던 그리스도 지배의 보편주의는 메시아적 관점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그 초점은 하나님의 구원사가 가난한 사람들의 해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었다. 그리스도가 세상과 교회를 다스린다는 주장은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신학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1975년 나이로비 총회는 강령선언을 통해 “우리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요구해야 하며, 제3세계 민중의 발전은 그들의 자립과 공동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령선언은 시종일관 남북문제의 심각성, 민중의 개발 과정 참여의 중요성, 정의 실현의 긴박성을 강조했다. 그러한 강령선언에 바탕을 두고 1978년 취리히에서 모인 “정치경제와 윤리와 신학”협의회는 JPSS 논의를 위한 이정표를 세웠다. 호세 미구에스 보니노(Jose Miguels Bonino)가 의장으로 활동하였던 자문위원회의 제2차 보고서(1979년)는 JPSS 개념의 기본골격을 확립했다. 그 보고서는 정의와 참여를 상호의존 개념으로 파악했다. 그것은 결정적인 논점이었다.

제2차 JPSS 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 정의는 ‘메시아적 범주’로 인식되었다. 그것은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신실의 바탕을 둔다는 뜻이고, 세상의 정의가 인류공동체의 바른 질서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정의는 자기중심적인 무관심이나 소외된 예측 없이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정의는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는 역사적인 과제이며,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이루시는 종말적 성취이다.”*

메시아적 범주로서의 정의는 모든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제2차 JPSS 자문위원회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메시아적 관점에서 볼 때, 참여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없고 각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참된 코이노니아의 본질적 표현이다.”*

그렇다면, 지구 전체와 각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정의와 참여를 돌아서 가는 길은 없다고 말해야 한다.

## 생태계 보전의 이슈

JPSS 논의에서는 생태계 위기의 심각성이 의식되었지만, 그 논의의 핵심 이슈는 정의와 참여의 연관성이었고, 생태계 위기는 부차적인 이슈로 취급되었다. 정의와 참여에 대한 논의와 생태계 위기에 대한 논의는 서로 겹돌았다. 그것은 그 당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의와 참여와 지속가능성을 별개의 이슈로 파악하지 않고, 유기적 통일성 속에서 인식하는 것은 중대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 과제는 JPIC(정의와 평화와 피조물의 보전) 공의회 과정에 맡겨졌다.

JPIC 공의회 과정은 1983년 밴쿠버에서 모인 제6차 WCC 총회에 의해 소집되었다. 총회는 “전 세계 회원 교회들을 정의, 평화, 피조물의 보전을 위한 상호 책임(계약)을 향한 공의회 과정에 초대”하였으며, 이를 WCC의 포괄적인 중점사업으로 명시하였다. 총회는 인류의 생존이 불의하고 모순적인 질서들과 환경파괴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생태계 파괴, 대량파괴 무기의 확산, 군사주의, 계급차별과 가난, 인종차별, 성차별 등이 세상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세력이라고 지목했다. WCC는 이러한 절박한 세계상황에 직면하여 죽음의 악마적인 세력에 맞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생명으로” 고백했다. 1987년 제네바에서 모인 WCC 중앙위원회는 “정의, 평화, 피조물의 보전의 세 영역에서 각각 나타나는 문제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천명하고, “이 상호관계의 본질을 인식하고, 평화, 정의, 피조물의 보전에 관한 교회들의 범세계적인 공동 입장을 천명하되, 이를 교회의 신앙고백 및 교회의 행동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JPIC를 위한 공의회 과정은 유럽과 북미,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진행되었으며, 1990년 서울에서 JPIC 세계대회가 열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JPIC 서울 대회의 최종문서는 정의와 평화와 피조물의 보전이 위협받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에 입각한 구체적인 행동의 의무들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올바른 세계경제질서를 수립하고 채무국들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 모든 국가와 인간의 안전을 실제로 보장하고 비폭력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행동, 모든 생명을 주의 깊게 보존하고 대기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 사람에 관심을 보이고 국민국가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인종주의와 차별을 폐지하기 위한 행동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의 의무들을 나열한다고 해서 정의와 평화와 피조물의 보전을 위한 행동들을 하나의 신학적 전망 아래서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실천 지침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1983년의 밴쿠버 총회의 강령적 요구를 충족한 것은 아니었다.

JPIC 세계대회가 이처럼 실패한 까닭은 JPIC 세계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세계상황에 대해 공동인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가난과 억압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생태계 위기의 문제는 부유한 국가들의 관심사일 뿐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유럽과 북미에서 온 참가자들은 생태계 위기와 대량살상 무기를 동원한 전쟁이 인류를 위협에 빠뜨린다고 보고

이를 가난과 억압의 문제보다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3세계 출신의 참가자들이 JPSS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어서 JPIC 논의의 진정한 도전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면, 북미와 유럽 출신의 참가자들은 JPIC 논의의 통전주의적 함정에 빠져서 평화의 문제와 생태계 위기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정의의 확립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었다.

정의와 평화, 그리고 피조물의 보전의 유기적 연관성을 일관성 있는 관점에서 정식화하는 것은 WCC의 오랜 과제로 남게 되었다.

## 사회정의와 생태학적 정의의 연관성

사회정의와 생태계 보전의 연관성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시도는 1991년 캔버라 제7차 WCC 총회에서도 계속되었다. 총회에 제출된 분과연구 I의 보고서를 준비하였던 1990년 쿠알라룸푸르 협의회는 “생존을 위한 정의 윤리”의 구상을 제시하였고, 이 구상은 캔버라 총회 분과연구 I에서 “생태학적 경제윤리” 구상으로 가다듬어졌다. 이 구상은 다음과 같은 명제들로 요약된다.

*“우리는 만인을 위한 사회정의와 모든 피조물을 위한 생태학적 정의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회정의는 건강한 환경과 무관하게 성립되지 않으며, 생명 능력이 있고 안정된 환경은 보다 큰 사회 정의를 전제로 한다. ... 성서적인 정의 개념은 하나의 통전체를 이루고 있는 피조물들 사이에 건강한 관계들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태학적 경제윤리 구상은 1998년 하라레 제8차 WCC 총회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여물지 못했다. 하라레 총회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응하여 제3세계 국가들의 부채탕감을 핵심 이슈로 부각했고, 대안적 지구화를 추구하는 AGAPE 과정을 출범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했을 뿐이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맞서서 “민중과 지구를 위한 대안적 지구화”를 추구하였던 AGAPE 과정은 “정의롭고, 공감적이고, 포괄적인 세계의 비전”을 추구하였고, “그 비전은 모든 수준에서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경제정의와 생태학적 정의를 통전적으로 구현할 때에만 현실화될 수 있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위기와 생태학적 위기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인식은 더 구체화되어야 했다. 그 작업은 AGAPE 과정의 후속 작업인 “가난과 부와 생태계”의 연관을 논의하는 PWE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2006년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열린 제9차 WCC 총회의 결의에 바탕을 두고 출범한 PWE 과정은 가난과 부를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하는 탐욕의 경제가 생태계 위기를 불러들이는 장본인이라고 분석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위기와 생태학적 위기의 상호연관성을 더 분명하게 논증했다. 그러한 인식은 PWE 논의의

성과들을 수렴해서 2013년 부산에서 열린 제11차 WCC 총회에 공식문서로 제출된 「만물을 위한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경제 - 행동의 촉구」에 기록되었다.

### 김용복 선생의 에큐메니컬 사회사상

김용복 선생은 JPSS로부터 JPIC를 거쳐 부산 총회에 이르기까지 에큐메니컬 사회사상의 형성에 동참했고, 그 발전을 이끌었다. 그는 2013년 부산 WCC 총회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를 내걸고, 정의, 평화, 생명에 관한 에큐메니컬 논의를 촉진하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했다.

#### 1) 정치윤리

김용복 선생은 일찍부터 CCPD의 틀에서 에큐메니컬 사회사상을 논의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해 왔고, JPSS 논의와 AGEM의 정치경제 연구에 유념했다. 그는 JPSS 논의에서 민중신학적 관점을 대변했다.

*“정의롭고 참여적이며 존속가능한 사회를 논함에 있어서 주된 관점은 민중이 정의와 코이노니아(Koinonia: 참여)와 평화(Shalom)의 메시아적 지배에 모두 참여하는 메시아적 왕국에 대한 신학적 조망이 되어야 할 것이며, 존속가능성은 이러한 신학적 비전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입장은 JPSS 자문위원회 제2차 보고서에서 강조된 메시아적 관점에 매우 가깝다. 김용복 선생은 메시아 정치의 관점을 전면에 부각한 뒤에 곧바로 정의와 참여, 존속가능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존속가능성은 정의와 참여에 종속되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이 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기독교적 관심과 대응을 약화하지 않는가 하는 제1세계 신학자들의 우려에 대해 그는 기술지배의 정치적 성격을 재인식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기술지배로 인한 정치적 압제와 생태계 위기가 제3세계 민중에게 가장 큰 고난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존속가능성의 이슈가 갖는 역사적, 정치적 함의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빈곤과 고난의 문제를 인간과 자연 사이의 모순으로 규정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백성의 고난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모순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그는 개발 문제를 GNP 증대나 사회발전 혹은 자연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적 지배의 문제로 보

는 관점에 반대하고, 고난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민중의 투쟁이라는 메시아적 관점에서 개발 문제를 인식하자고 제안한다. 경제성장, 보건 향상, 문화 발달 같은 일군의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고, 정치제도를 발달시키는 것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민중의 노력과 연관해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발전의 전제조건은 민중의 참여가 보장되는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실현이다. 바로 그 맥락에서 김용복 선생은 민중의 주체성을 전면에 부각했다. 민중의 주체성은 민주적 권리를 확립하고 민중의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민중의 역사적 자기 결정권은 참여 민주주의의 토대다.

*“민중의 권리는 역동적인 역사의 전망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민중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민중의 운명은 열려 있으며 그리고 민중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 민중의 미래는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또는 종교적 철학적 체계에 따라 미리 날조될 수도 없으며, 배제될 수도 없는 것이다. 민중이 자기 자신의 인간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도 주인이어야만 한다.”*

김용복 선생은 JPSS 논의가 “세계 경제의 남북 불균형을 중심 문제로 삼으면서 민중의 참여 없는 경제개발은 의미가 없고 인간 공동체의 항구적 존속이 주요 문제라는 차원에서 정치경제 체제의 패러다임을 구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참여의 확대를 위한 아시아 교회의 노력이 JPSS의 논의에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JPIC 공의회 과정에 한국교회가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에 있어서 평화나 창조질서의 보전의 문제는 민중을 위한 정의수립에 달려 있다. 민중의 권리가 옹호되지 않는 사회에 사회적 평화와 안정이 있을 수 없다. 사회적 살림이 없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전쟁을 극복하고 항구적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또 평화를 열매로 낳지 않는 정의도 진정한 정의일 수 없다. 정의와 평화의 조건 아래에서 생명과 생명의 보금자리인 자연환경이 보전될 것이다.”*

한 마디로, 그는 정의의 문제를 평화 수립과 피조물 보전의 선결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의 정세 속에서 그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JPIC 공의회 과정에 공헌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JPIC 주제들에 대한 정치신학적 접근을 통해 하나님의 계약과 민주적 참

여의 불가분리성을 강조하는 데 치중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세속권력의 절대성 요구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종의 정체”(政體)가 정의와 평화와 피조물의 보전을 총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종의 정체는 하나님의 정의, 곧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의, ‘정글’의 질서를 극복하는 평화의 통치, 창조질서의 정원을 보전하는 정체요, 정치질서이다.”

## 2) 경제사상

199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전개한 김용복 선생의 경제사상은 경제를 신앙의 과제로 보아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JPIC 공의회 과정을 제안한 1983년 밴쿠버 총회 강령선언과 관련하여 그는 경제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접근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고 본다. 그 당시 “경제적인 불의에 의한 생명의 위협, 전쟁에 의한 생명의 위협, 생태계의 파괴에 의한 생명의 위협은 상호연관된 것으로서 인류 역사 이래 세계는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인식은 기독교 신앙고백이라는 가장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곧바로 “정의, 평화, 창조보전이 고백적 신앙의 문제(status confessiones)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냐 배반이냐 하는 문제가 정의와 평화와 창조질서를 위한 운동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고 그 의의를 평가했다. 그는 JPIC 서울 대회 최 종문서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신다고 믿는다.”는 고백이 담긴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신앙고백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누르는 세력들을 비판하는 관점이 명확해지고,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정책의 결과인 빈곤을 ‘스캔달과 범죄’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1992년의 에큐메니컬 경제문서가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경제 체제의 위기 심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고백의 문제로서의 경제에 대한 인식은 성서적 뿌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새로운 정치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다. 그 출발점을 마련하려는 것이 금번 세계교회협의회가 마련하려는 ‘신앙고백의 문제로서의 경제’(Economy as a Matter of Faith)라는 경제선언문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용복 선생은 에큐메니컬 사회사상의 전개 과정에 참여하면서 정의를 중시하는 민중신학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관철했다. 그는 1980년대에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참여의 확대를 핵심 이슈로 삼았다. 민주화 이후 그는 경제사상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일관성 있게

정의와 참여를 강조했고, 사회정의를 생태학적 정의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했다. 사회정의와 생태학적 정의가 같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할지라도, 민중을 편드는 정의의 실천 없이 생태계 보전이 무망하다는 것이다. 그는 2013년 부산에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로 WCC 총회가 모였을 때, 사람들 사이의 평화와 인간과 자연의 평화가 정의에 바탕을 둔다는 것을 강조했다. 평화는 삼라만상이 바른 관계들 속에서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대동 세상이고, 그 중심은 정의다.

## 3. 하나님의 정치경제와 살림의 경제<sup>35)</sup>

김용복 선생은 세계화가 민중의 삶과 생태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때 특유의 경제사상을 펼쳤다. 그의 경제사상은 하나님의 정치경제를 그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고, 사회경제적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정치경제를 펼치는 실천론이다. 그러한 경제사상은 세계화에 맞서서 대안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그의 경제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세계화를 어떻게 파악하였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

### 세계화가 민중과 생태계에 미친 영향

김용복 선생의 경제사상이 9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화되었다는 것은 많은 점에서 시사적이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에 동구의 현실 사회주의 체제는 붕괴했고,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일방적 승리가 선포되었다. 세계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를 통해 급속히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화폐자본이 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자유롭게 운동하게 되었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세계경제질서를 새롭게 조율하게 되었다. 거대한 독점자본은 생산기지를 해외에 구축하고 글로벌소싱을 통해 수직적인 국제분업을 이루고자 했다. 일본과 유럽의 금융자본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 유입되면서 그 지역에는 엄청난 경제 붐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화”에 들뜬 분위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거대기업들은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며 엄청난 규모의 신규투자를 하였다. 국민소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이와 더불어 노동임금도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기록한 1990년대 전반기에 민중은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보였다.

35)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17>



이러한 사태 전개를 주시하면서 그는 세계화가 민중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보았다. 세계화는 빈부격차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심화하고, 초국적 기업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만들었다. 세계화는 지구 생태계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세계화는 국민국가를 침식하고, 사회국가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빈부격차, 초국적 기업의 통제 불가능성, 생태계 위기, 사회국가의 침식 -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져온 디스토피아다.

### 빈부격차

빈부격차의 심화와 관련해 김용복 선생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논리 아래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임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의 처지가 급속히 악화한다고 진단했다.

*“우선 모든 나라나 기업이 경쟁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시책을 강행할 것이므로 사회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문제를 소홀히 다룰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기술개발과 설비의 자동화와 현대화 등 고정자본의 비율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자본을 축적하여야 한다. 그것은 임금 부분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자본 투입은 노동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것이고,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노동력이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투자가 늘어나면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된다는 고전적인 등식은 사라지고, 세계화가 강요하는 노동절약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이 증가한다.

실업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세금이 거두어져야 하는데, 자본은 이에 거세게 저항한다. 그나마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 선진국들은 공여지책으로 노동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조세정책을 개편하고, 사회안전망을 축소하고, 가계부채를 크게 늘릴 것이다. 그 결과,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새로운 가난'이 확산한다.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들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처하는 궁핍과 절망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를 가릴 것 없이 사회적 양극화가 악화한다.

### 초국적 기업

김용복 선생은 세계화가 초국적 기업과 국민경제의 탈동조화를 촉진하고 확대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세계의 거대기업들은 그들의 법적인 소속이 어느 나라든지 지구적으로 경쟁하고 확장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국적을 두고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과 우리 국민의 세계적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게 되는 것은 초국적 기업이 국민경제 운영에서 독립된 체제를 이루며 지구적 차원에서 경영을 펼치고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세계 자본의 기술구조'이다. 그 구조는 초국적 기업이 최대의 효율성을 달성하게 하고, '통제 불능의 세력 조직'으로 현존하게 한다. 초국적 기업은 자본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영전략에 따라 지구적 차원에서 움직일 뿐, 한 나라의 국민경제 차원에서 일반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기업의 경제정책, 사회정책, 사회기여 정책 등을 어떻게 서로 연관할 것인가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초국적 기업은 지구적 차원에서 생산과 교역의 조건들을 결정할 수 있는 거대한 경제 권력이다. 바로 그렇기에 초국적 기업은 세계시장에 편입된 모든 나라의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 시장에 생존의 기회를 내걸다시피 하는 사람들의 사회경제 생활을 지구적 차원에서 결정하다시피 한다.

그는 이처럼 세계화가 가져온 잉여가치의 수취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에 민중의 삶에 접근하는 방법도 이제까지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생태계 위기

김용복 선생은 세계화가 민중의 삶에 부정적 결과를 미칠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깊은 주의를 기울였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지구의 생명은 더 커다란 희생을 당하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생태계의 위기는 서구형 산업 경제 체제와 산업 발전의 모순, 즉 자연과 인간의 대립이라는 관계에서 인식되어 왔다. 이제 시장의 세력들은 상대적으로 시민의 정치적 압력을 초월하여 군림함으로써 그 사회정책적으로나 생명계에 대한 정책에 있어 더욱 파괴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1996년에 작성된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그는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시키는 세력들이 생태계의 파괴와 민중의 사회경제적 희생이 같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한다고 인식했다. 그것은 사회정의

와 생태학적 정의를 따로 보지 않고 둘의 유기적 연관을 내다보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물론 그는 사회적 가난을 불러일으키는 자본의 축적과 팽창 기제가 생태계 위기를 불러들인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하지 못했다. 그것은 에큐메니컬 사회사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는 에큐메니컬 사회사상이 JPSS 논의로부터 JPIC 공의회 과정을 거쳐 PWE 과정에 이르기까지 점차 명료하게 가다듬어간 통찰을 선구적으로 제시했다. 탐욕의 경제가 사회적 가난과 생태계 위기를 동시에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2013년 PWE 과정의 최종문서에 담긴 결론이었다.

### 사회국가의 침식

김용복 선생은 세계화의 진전함에 따라 국민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보장하는 역할의 한계를 점점 더 드러내리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그것은 국민국가 주권이 영토에 묶여 있어서 국경을 가로지르며 움직이는 자본의 운동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는 세계화된 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시장에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정리하였다.

“국민이나 시민이나 민중은 국가체제나 정부에 그들의 사회적 안정보장을 위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민족국가체제는 약화되고 정부는 국민에게 봉사하기 보다는 시장에게 봉사하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국가가 민중의 사회적 삶의 안정을 위해 펼치는 정책은 크게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민중이 국가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서 대안 공동체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는 세계화가 민중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진단했다. 그의 진단은 현상에 대한 분석이기보다는 현상에 관한 서술에 그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포착한다는 점에서는 손색이 없다. 세계화가 인간과 자연, 삶과 생명을 희생시키고, 민중의 사회적 경제적 삶과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기존의 패러다임들이 실패하였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그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어느 것도 ‘기독교적 경제질서’로 간주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세계화의 조건들 아래서 세계가 지정학적으로 재구성되고 모든 차원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기에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도 힘주어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의 정치경

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고, 지역과 국민국가, 더 나아가 지구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정치경제

김용복 선생의 경제사상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계약의 현실성에서 출발한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계약의 현실성은 그가 펼친 정치신학의 핵심이고, 그가 전개한 민중신학의 관점과 방법을 규정하는 축이다. 그의 경제사상은 경제에 대한 성서의 기본원칙에 바탕을 두었는데, 그 기본원칙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계약의 현실성에서 도출되었다. 그 계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주권이 관철되는 정치경제가 곧 하나님의 정치경제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백성의 정치경제는 서로 연관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그는 묻는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치경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라면, 어떻게 복음이 일차적으로 빈곤에 의해 규정받는 삶을 사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치경제가 하나님의 주권이 관철되는 경제라면, 그러한 정치경제는 어떤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가? 그는 그러한 기본원칙을 성서에서 찾고자 했고, 성서의 민중전기를 통해 하나님과 가난한 자들이 맺은 계약에서 경제생활에 관한 기본원칙을 추적했다.

그는 하나님과 민중의 계약이 하나님과 민중의 해방적 관계에 바탕을 두었다고 인식했다. 민중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파트너라는 것은 민중이 억압과 착취를 일삼는 이 세상의 권세들에 더는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해방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하나님과 민중의 계약에서는 지배의 일대 전환이 일어난다. 민중을 억압하고 노예화하고 죽이는 이 세상 권력의 지배가 자유와 형제적 결속과 생명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지배로 전환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민중의 해방적 관계가 실현되는 정치경제의 기본원칙은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안정, 소유권의 절대성 주장의 지양, 살림의 경제를 위한 청지기 직분, 참여의 경제다.

###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안정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은 모든 경제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그 기준을 제시한 이상, 경제활동의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은 그 자체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민중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해치는 경제적 효율성과 수익성의 추구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은 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절대화되는 세계화 과정에 맞서는 경제의 원칙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 소유권의 절대성 주장의 지양

소유권의 절대성 주장을 지양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민중의 사회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만약 부와 재산이 민중의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민중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사람도 재산과 부를 향유할 권리가 없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서 그는 물건에 대한 절대적, 배타적 지배권을 의미하는 소유권에 제동을 걸고 ‘잠정적 소유권’을 대안으로 주장했다. 그가 ‘잠정적 소유권’의 예로 든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토지 점유권이다. 땅과 토지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한 원시 이스라엘에서는 땅과 토지의 사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았고, 단지 토지의 용익권만이 인정되었다. 그러한 땅과 토지의 점유형태에서는 점유된 토지의 온전성을 보전하여 차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물려주는 일만이 인정된다. 그러한 ‘잠정적 소유권’은 부와 재산에 대한 고대 로마법의 입장과는 충돌한다. 고대 로마법의 소유권 개념에 입각한 근대적 사유재산권도 근본적인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소유권의 절대성 주장을 제한하면, 토지공개념을 확장할 수 있고, 생산수단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에 근거하여 노동의 경영 참여를 한사코 거부하는 경영 독재의 논리를 깰 수 있다. 한 마디로, 경제질서를 새로 짜는 기획이 ‘잠정적 소유권’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 청지기 직분

김용복 선생의 경제사상에서 청지기 직분은 경제활동의 기본원칙의 지위를 갖는다. 그는 그 원칙을 제시하면서 두 가지 점에 유의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정치경제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살림살이를 맡은 관리인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살펴야 한다. 하나님이 살림살이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비롯된 경제주체들의 기능분화와 분업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전체의 살림살이를 정의와 평화와 생명 보전의 기틀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정치경제에서 경제계와 생태계의 관계를 규율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제까지의 경제 체제가 자연을 지배와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았지, “자연을 보다 존중하고 자연을 돌봄의 대상으로 여기는 호혜적 자연관”과는 동떨어져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엮어 읽으며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정원을 이루는 동등한 참여자이고 인간은 이웃 피조물과 더불어 그 정원에서 ‘충만하고 온전한 정의와 살림의 삶’을 가꾸는 정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공동체를 정의와 평화가 숨 쉬는 생명공동체로 형성하고 가꾸는 직분을 맡아야 한다. 그는 이러한 통찰을 통하여 경제학과 생태학을 서로 결합하는 단서를 확보했고, JPSS 패러다임을 생명신학 패러다임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 참여의 경제

김용복 선생은 참여를 경제활동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치신학의 틀에서도 이 중요한 주제를 끊임없이 강조해 왔는데, 경제사상의 틀에서는 자본의 노동 포섭 구조를 해체하고 소비자의 객체화를 극복하는 참여경제를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그는 참여경제와 관련해서 노동과 자본의 동등권에 입각한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이나 국민경제 차원의 소득분배 계획 등과 같은 참여경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 하나님의 정치경제의 실천론

김용복 선생은 하나님의 정치경제의 기본원칙들을 밝히는 동시에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실천론의 대강도 나름대로 제시했다.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정치경제를 현실에 적용하는 실천론의 핵심을 이룬다.

###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하나님과 민중의 계약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 계약의 파트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주인으로 섬긴다. 여기서 두 가지 준칙들이 도출된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권력도 절대성을 주장할 수 없고, 권력의 위계질서를 당연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디아코니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권력의 추구를 포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남을 주인으로 세움으로써만 참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가리켜 ‘종

의 도'(Doulologie)라고 불렀다. 종의 도는 “상대방을 영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노예된 상태에서 일으켜 세워 주인으로 삼고 주인이 되게 하는 관계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자신의 권력추구를 포기하고 남의 주체성을 세우는 디아코니아는 바로 이러한 종의 도를 실천하는 길이다.

그는 디아코니아 실천이 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전제라고 생각했다. 시장경제의 세계화가 추구되는 현실에서 민중의 살림살이 공동체는 지역적, 민족적, 세계적 차원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오직 민중이 살림살이를 경영하는 주체로 등장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경제 민주주의가 지역적, 국민적, 세계적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형태들로 구현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만, 두 가지는 분명하다. 첫째, 지역적, 국민적, 국제적 차원에서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중이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들이 구축되어야 하고 경제운영에 대한 민중의 통제력이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 민주주의는 민중이 살림의 경제를 꾸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주체적으로 구축하는 일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서 그는 민중이 경제적 살림살이의 주인이 되도록 기독교인들이 디아코니아의 실천에 나설 것을 역설했다.

###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koinonia, 나눔)은 종의 도를 수평적으로 실천하는 일이다. 종의 도의 실천, 곧 디아코니아는 모든 것을 나누는 코이노니아와 분리될 수 없다. 거기서는 나누는 자와 나눔을 받는 자 사이에 ‘호혜적 연대의 원칙’이 수립된다.

*“일방적인 섬김은 진정한 정의와 참여의 실천일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쌍방적 섬김이 진정한 참여의 주체를 세운다. 쌍방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통하여 진정한 사랑과 정의의 연대를 이룩할 수 있다.”*

그러한 연대는 물질의 나눔, 삶의 경험의 나눔, 감정의 나눔, 생명의 나눔을 포함한다. 한 마디로, 삶의 전 영역에서 사람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코이노니아가 사회적 연대의 바탕이다.

김용복 선생은 섬김과 나눔의 통전적 성격을 강조했다. 섬김과 나눔은 하나님의 종의 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선교적 실천의 내용이지만, 그 선교적 실천은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안에만 머무를 수 없다. 세상이 그 실천의 영역이다. 그는 세상에서 섬김과 나눔을 펼쳐 공동체를 이루는 전망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재물을 가진 자는 재물로, 정치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은 정치적 영향력으로, 지식*

*을 가진 자는 지식으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자는 경험과 지혜로, 능력과 기술을 가진 자는 능력과 기술로, 농민과 노동자는 생산 활동으로, 종교인은 종교적 진리로 이웃을 섬겨 일으켜 세워 주인이 되게 하고 이러한 섬김은 공동체 안팎에서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이 곧 나뉘어진다.”*

### 하나님의 정치경제를 펼치는 민중의 힘과 지혜

김용복 선생은 민중의 주체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민중이 하나님의 정치경제의 실천 주체로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다지기도 했다. 민중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신의 언어를 간직하고 그 언어를 통해 그들의 좌절과 갈망을 표현한다. 민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 동참동활체(同參同活體)로서 살아갈 힘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민중은 권력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민중의 힘을 북돋아 주는 민중의 지혜를 존중했다. 그는 경제사상을 펼치면서 아시아 종교들을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오는 민중의 슬기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도교에서 말하는 인간과 자연과 초자연의 ‘완벽한 조화’라든지, 불교의 승가, 유교의 태평성대, 정약용의 토지개혁안의 골자인 여전제(閭田制)를 진지하게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미국과 유럽의 자본이 정한 기준을 세계적인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추세를 거스르면서 그는 민중의 지혜에서 경제사상을 길어 올리려고 했다. 그는 민중의 힘이 민중의 지혜와 더불어 강화된다고 확신했고, 민중의 지혜가 경제사상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 글을 마무리하며

고 김용복 선생은 민중의 주체성에 대한 신학적 확신에 근거하여 세계화의 조건들 아래서 민중의 생명과 삶을 보장하는 경제사상과 기독교적 실천론을 제시했다. 그의 경제사상은 민중신학의 지평을 넓혔고, 에큐메니컬 사회사상을 한 차원 더 높였다. 그는 하나님과 민중이 맺은 계약의 현실성에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본원칙들을 도출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안정, 소유권의 절대성 주장의 지양, 살림의 경제를 위한 청지기 직분, 참여의 경제가 그것이다. 세계 현실이 변하고 경제 상황이 바뀌면, 그러한 기본원칙들은 하나님과 민중이 맺은 계약의 현실성을 고려하면서 수정되고 보완될 것이다.

김용복 선생의 경제사상은 문제가 되는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의 제약조건 아래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 모델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정교하게 가다듬어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가 영원한 안식에 들었으니,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과제가 되었다.

민중의 지혜가 민중의 힘을 강화한다는 고 김용복 선생의 확신을 나누는 사람들은 민중의 메시아적 실천에 동참하고 살림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생명 지혜, 평화 향연의 길

故 김용복 목사

1938.11. ~ 2022.04.